

ESMOD
SEOUL
20^{ème}
ANNIVERSAIRE

에스모드 서울
20년사

차례

《에스모드 서울 20년사》를 펴내며

축사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분교로부터 온 축하 메시지

Part 01

한국 패션의 미래를 제시한 선구자들

꿈을 현실로 옮기다 • 26

-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활동 • 27
- ‘미스 박 테일러’를 오픈하다 • 29
- 에스모드 서울 설립과정 • 31
- 에스모드 서울 개교하다 • 36

패션 교육, 그 제도의 벽을 허문 사람들 • 42

- 학교나 학원이나 • 43
- 한국 패션 교육의 이정표를 세우다 • 45
- 학력 파괴의 장벽과 과제들 • 48

한국 패션 기업, 산학의 문을 열다 • 50

- 한국 패션계 최초로 인턴십 제도 도입 • 51
- 패션계 인턴십 제도 정착 • 52
- 산학 협동 워크숍 • 54

Part 02

최고의 패션 디자인 교육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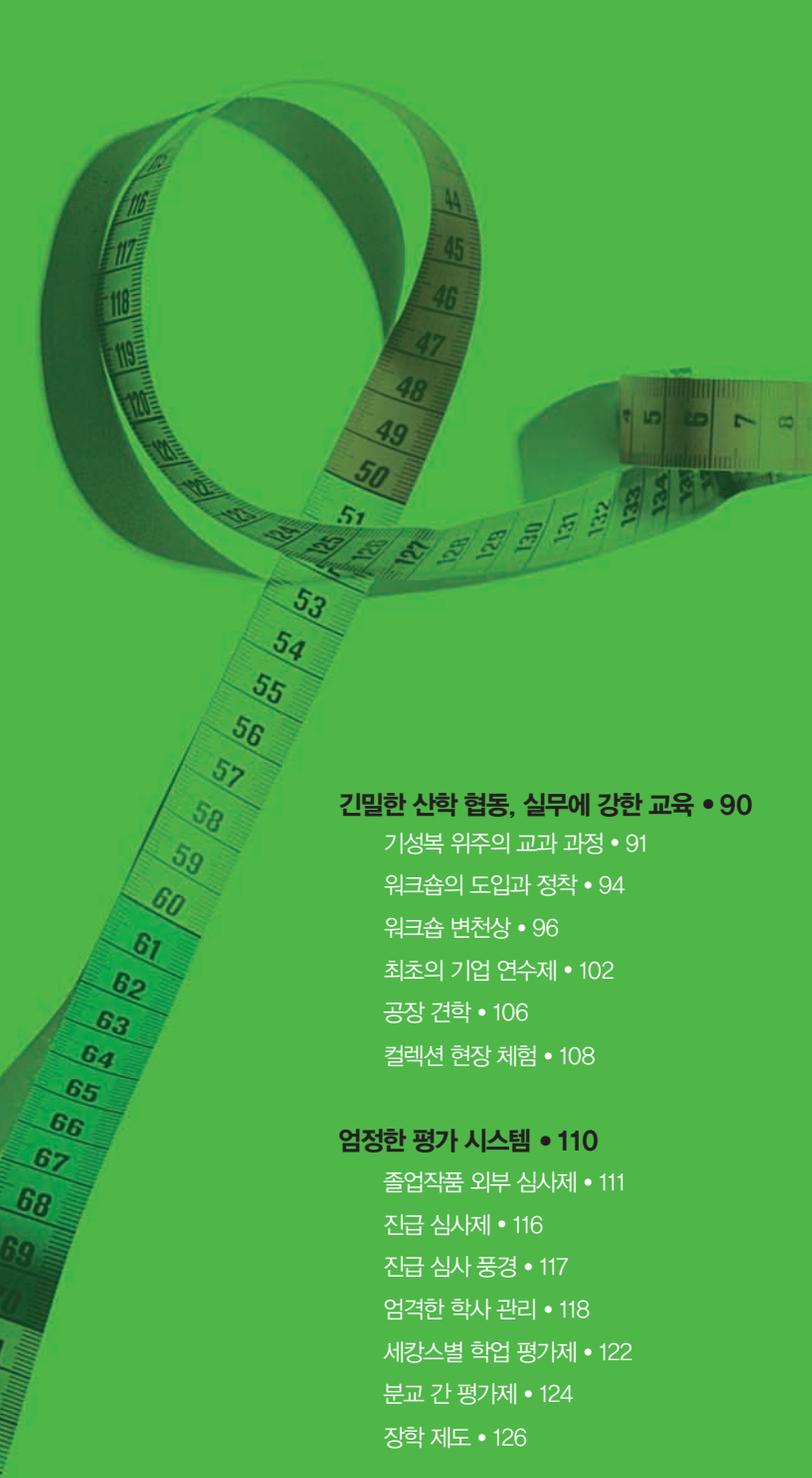
파리의 패션을 서울에서 배우다 • 58

- 에스모드 파리를 중심으로 한 분교망 • 59
- 한국과 프랑스의 가교 에스모드 서울 • 62
-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분교장 회의 • 63
- 에스모드 국제 쇼의 위상 • 64
- 파리 패션계의 주요 행사로 부상한 에스모드 파리 졸업작품 심사 • 65
- 파리와 동일한 교과과정과 시스템 • 66
- 에스모드 파리 교수 연수 • 67
- 더 나은 교육을 향해서 • 68
- 분교망을 통한 글로벌 교육 • 69

반쪽짜리가 아닌 진정한 패션 디자이너로 • 72

- 의상 디자인과 패턴 디자인 병행 교육 • 73
- 최초로 세부 전공제 실시 • 76
- 교양과목과 특별주간 특강 • 80
- 실무 경험 많은 에스모드 서울 교수진 • 82
- 하기특별강좌 • 86
- 해외 전문인 초청 입체재단 세미나 • 88





Part 03 주목받는 에스모드 서울

긴밀한 산학 협동, 실무에 강한 교육 • 90

- 기성복 위주의 교과 과정 • 91
- 워크숍의 도입과 정착 • 94
- 워크숍 변천상 • 96
- 최초의 기업 연수제 • 102
- 공장 견학 • 106
- 컬렉션 현장 체험 • 108

엄정한 평가 시스템 • 110

- 졸업작품 외부 심사제 • 111
- 진급 심사제 • 116
- 진급 심사 풍경 • 117
- 엄격한 학사 관리 • 118
- 세강스별 학업 평가제 • 122
- 분교 간 평가제 • 124
- 장학 제도 • 126

최신 트렌드 지향 • 128

- 졸업작품 발표회 • 129
- 자료실 • 142

입학생 • 146

- 입학 설명회 • 147

콘테스트 수상 • 152

- 콘테스트 수상 •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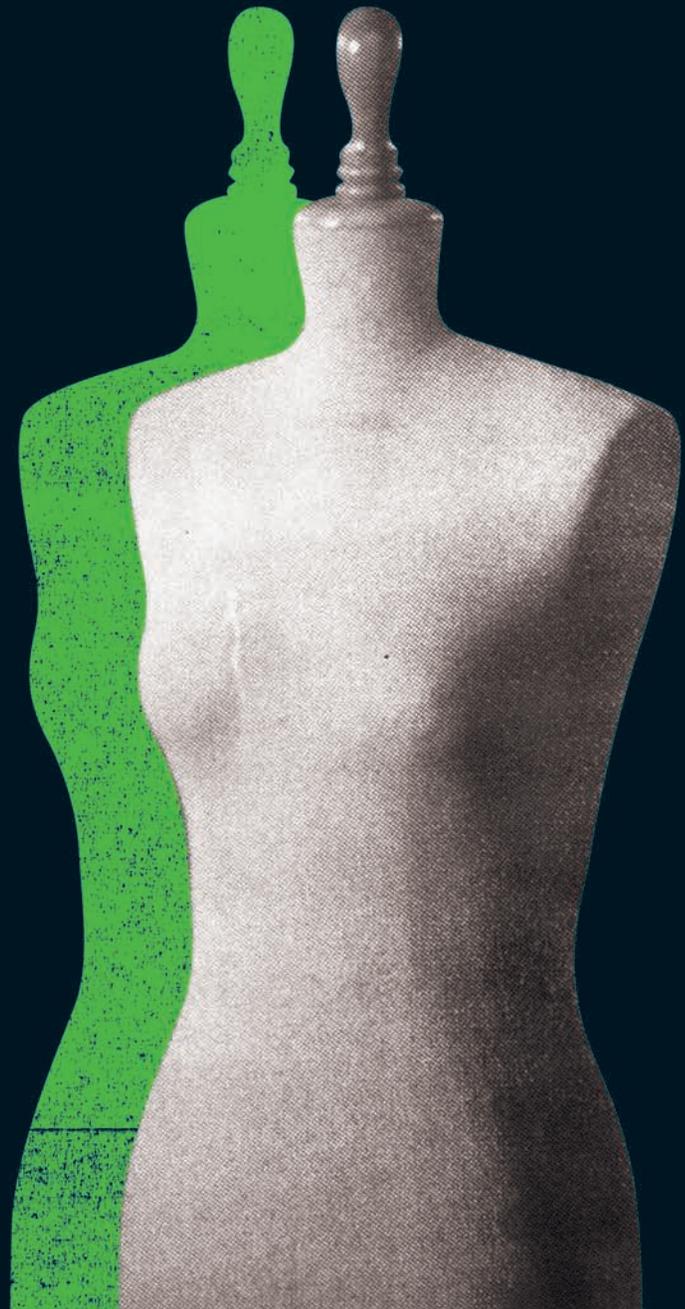
졸업생 • 160

- 에스모드 서울 졸업생들의 활약 • 161
- 기업에서 환영받는 에스모드 서울 졸업생들 • 162
- 해외로 진출하는 졸업생들 • 163
- 에스모드 서울에서 세계 무대로 • 165

에스모드 서울 연혁 • 177

편집 후기

ESMOD
SEOUL
20^{ème}
ANNIVERSAIRE



《에스모드 서울 20년사》를 펴내며



“에스모드 서울은
169년 전통의 에스모드 파리와 분교 협정을 맺어
우리나라 패션 교육기관으로는 최초로
선진화된 유럽의 직업교육제도를 도입하여
한국 패션 교육계를 선도해 왔습니다.”

오랜 동안 패션 업계에 종사해 온 저는 선진화된 유럽의 패션 교육을 도입하여 인재를 육성하고자, 1989년 에스모드 서울 분교를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첫 10년은 프랑스의 선진 패션 교육을 한국에 심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10년은 그 동안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유럽의 패션을 우리화하고, 우리의 패션을 세계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에스모드 서울은 이제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그룹 안에서도 성공한 분교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에스모드 서울 20년사》에서는 에스모드 서울의 교육을 이끌어 온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고자 했습니다. 학력 위주의 한국 사회에서 비제도권 교육기관으로 학력과 제도의 벽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었는지,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쳤으며, 그들은 지금 얼마나 성장했는지, 한국 패션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돌아보고자 했습니다. 첫 마음으로 걸어온 이십 년 발자국이 에스모드 서울이 나아갈 백 년 미래를 밝혀 줄 것입니다.

에스모드 서울이 당당한 스무 살의 청년이 되기까지 수많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에스모드의 모태이자 서울 분교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에스모드 파리 본교, 에스모드 교육의 목표인 기업 밀착형 인재 육성이 가능하도록 협력해 주신 한국 패션 업계, 장학금을 기탁해 주신 후원자 여러분과 에스모드 서울 장학재단 이사진, 에스모드 서울의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적인 정성과 노고를 기울여 준 전·현직 교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모드 서울의 자산인 동문 여러분께 애정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고된 학업을 견뎌 내고 패션계의 각 분야에서 빛나는 활약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에스모드의 역사를 새로 쓰고, 전통을 만들어 내는 주역입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 정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 모든 교육계와 산업계에서 글로벌 인재의 육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그룹의 169년 전통을 이어받은 에스모드 서울은 한국 패션계는 물론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창조적인 인재를 길러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에스모드 서울 이사장
박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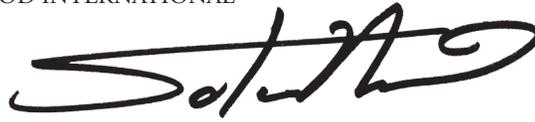
박 윤 정

축사

Je vous exprime tous mes vœux à l'occasion du 20ème anniversaire d'ESMOD SEOUL.
Depuis sa fondation, votre école forme des étudiants brillants, sous la direction de Madame Park
et avec d'excellents professeurs. Leurs créations et technicité de haut niveau sont des modèles pour
ESMOD INTERNATIONAL FASHION UNIVERSITY GROUP.
Mes souhaits les plus sincères de prospérité pour le développement d'ESMOD SEOUL.
Je vous prie de croire, Madame La Présidente, en l'expression de mon profond respect.

Président d'ESMOD INTERNATIONAL

NINO Satoru



에스모드 서울의 스무 번째 생일을 맞아 진심어린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에스모드 서울은 개교 이래 박윤정 이사장님을 비롯한 훌륭한 교수진들의 지도 아래 뛰어난 학생들을
길러 왔습니다. 에스모드 서울 학생들이 지금껏 보여 줬던 창의적이며 수준 높은 작품들은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패션 유니버시티 그룹의 모델이 되어 왔습니다.
에스모드 서울의 번영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사장님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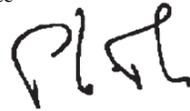
니노 사토루

ESMOD célèbre cette année le 20ème anniversaire de l'ouverture de son école à Séoul. La présence de ce groupe international depuis 20 ans en Corée lui a permis de jouer un rôle essentiel dans la découverte des talents de la mode dans ce pays. Les échanges très dynamiques et très fructueux entre la France et la Corée dans le domaine de la création et de la diffusion de la mode doivent effectivement beaucoup aux professionnels issus de cette institution.

Je me réjouis donc de cette célébration et à l'occasion de cet anniversaire, qu'il me soit permis d'adresser mes plus sincères félicitations à la présidente, Madame PARK Yoon-Chung, à la direction, aux professeurs ainsi qu'aux étudiants d'ESMOD COREE, qui contribuent au dialogue entre les cultures française et coréenne, à la diffusion d'un savoir-faire et à la constitution d'un partenariat d'excellence. Je leur souhaite tout le succès qu'ils méritent.

Ambassadeur de France en Corée

Philippe THIEBAUD



올해 에스모드 서울은 개교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그룹이 한국에 진출한 지난 20년간 에스모드 서울은 재능 있는 한국 패션 디자이너를 발굴하고 교육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은 패션의 창조와 전파를 위해 활발하고 유익한 교류를 지속해 왔으며, 에스모드 서울을 통해 많은 패션 프로페셔널들이 배출되어 왔습니다.

에스모드 서울의 20주년을 맞아 박윤정 이사장님과 교수님들 그리고 에스모드 서울 학생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프랑스와 한국 문화의 소통에 기여해 왔고, 프랑스 패션의 노하우를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파트너십을 정립한 에스모드 서울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주한 프랑스 대사

필립 티에보

20년 전, 박윤정 이사장님이 아니었다면 누가 이런 우수한 학교를 세울 수 있었을까!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 패션 교육자로서 첫걸음을 떼어 놓았던 박 이사장님의 용기에 새삼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에스모드 서울의 장학재단 이사장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평범한 학부모로서 이 학교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제 외동딸이 바로 에스모드 서울 출신입니다.

에스모드 서울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패션을 공부하고자 하는 딸을 프랑스로 유학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파리의 첨단 패션 교육은 이미 이 땅에 상륙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꼼꼼히 살펴본 딸은 에스모드 서울로 진학을 하게 되었고, 그 결정은 만족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에스모드 서울은 파리 본교의 교육 철학과 방법론을 고스란히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유학을 가지 않아도 되니 부모 품을 떠날 필요도 없고, 학비 절감이 된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에스모드는 세계의 어떤 패션 스쿨보다도 뛰어난 커리큘럼과 교수진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가까이 지켜본 에스모드 서울은 두 가지 특징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3년 과정을 제대로 따라가기도, 졸업하기도 어려운 학교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취업이 잘 되는 학교라는 점입니다. 저는 학생 관리의 엄격함에 있어서는 에스모드 서울이 에스모드 파리 본교를 능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스모드 서울 장학재단을 설립한 지도 어느 새 10년이 되었습니다. 학교 개교보다 10년 늦게 발족된 장학재단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많았고, 아직도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에스모드 서울 학생들 모두가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저를 비롯한 장학재단 이사진들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에스모드 서울의 개교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에스모드 서울 장학재단 이사장 | 방송인
김동건

김동건

에스모드 서울이 개교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습니다. 한 개인도 20세가 되면 유년기와 성장기를 지나서 성인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하물며 한 기관이 문을 열고 20개 성상을 유지하며 발전시키는 것은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닙니다.

20년 전 박윤정 이사장께서 에스모드 서울을 설립하여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 뛰어드신다는 소식을 접하고 매우 놀랐습니다. 한국의 선구적인 패션 디자이너로서 수십 년간 명성을 쌓아 오셨고, 남들 같으면 편안한 노후를 설계할 연세에 내린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1989년 에스모드 서울 개교 당시 교육부에서는 고교 이후의 과정으로 4년제 대학과 2년제 전문대학만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3년제로 신설된 에스모드 서울은 기존의 제도 교육과는 다른 새로운 내용과 형식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제 에스모드 서울은 4년제 대학을 나오든, 고등학교를 막 졸업했던 자기의 소질을 발견하면 언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문인 양성 기관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최초의 대학은 교수와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을 개진하고 소질을 계발하는 열린 장소였습니다. 저는 에스모드 서울이야말로 최초의 대학 정신이 살아 있는 한국 초유의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이사장께서도 국가 경제의 변화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었습니다. IMF 당시 에스모드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으나, 특유의 슬기로운과 정직성으로 위기를 관통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에스모드 서울에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졸업작품 발표회도 보았습니다. 패션쇼를 통해서도 종합적인 기술과 패션 아이디어를 고루 갖춘 인재 양성에 힘쓰시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에스모드 서울은 설립자 박윤정 이사장님의 분신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사장님의 설립 정신을 이어받은 수많은 인재들이 나와서 세계 패션의 흐름을 주도하고, 미래 세계의 문화를 창달하는 역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 교육부 장관 | 전 이화여대 교수

김숙희

김 숙희

ESMOD의
20주년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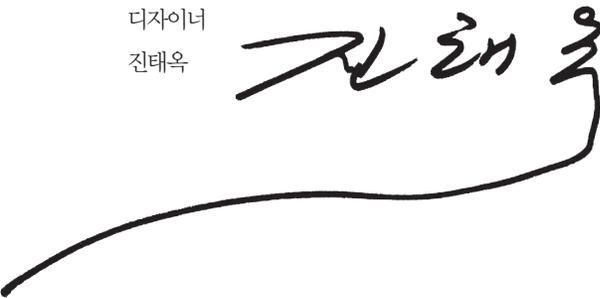
ESMOD의
출발은 한국 패션의 꿈과 미래였습니다.

ESMOD는
20년 동안 큰 과문을 일으켰으며 그 결실은 오늘날 한국 패션의 잣대가 되었습니다.

ESMOD가
이제 글로벌 시대를 맞아 오감을 디자인하는 국제적 디자이너의 산실이 될 것을 믿으며, 축하드립니다.

디자이너
진태욱

진태욱



지난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우리나라 패션 산업계는 국제적인 감각과 선진화된 의식을 가진 프로 패션 디자이너의 육성이 절실했습니다. 그 자신이 패션 디자이너로서 누구보다도 후진 양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박윤정 이사장은 1989년 9월, 유서 깊은 전통의 프랑스 패션 전문 교육기관인 에스모드 파리와 협약을 맺고 에스모드 서울을 설립했습니다.

에스모드 서울은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20여 개 에스모드 분교와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변혁과 발전을 거듭하며 기업 밀착형 교육과 적극적인 산학협동으로 실무형 인재 양성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패션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예술적인 감각을 바탕으로 작품을 창작하던 오트 쿠튀르를 실용예술이 가미된 기성복 산업으로 발전시켜 대중화하는 데에도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저는 LG패션에 재직하고 있던 1992년 제1회 에스모드 서울 졸업작품 발표회부터 10여 년 간 졸업 심사에 참여했습니다. 그 때 에스모드 서울 패션 교육의 우수성을 실감하고 졸업생들을 업무 현장에 바로 투입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직 역량을 검증받기 이전의 초창기였지만 과감히 LG패션에 채용했습니다. 과연 학생들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까. 2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한국 패션계에서 활발히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스모드 서울이 그 동안 축적한 명성과 업적은 이제 한국 패션 산업의 발전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에스모드 서울의 개교 20주년을 축하하며 더욱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예술의 전당 사장
신흥순



Pour les 20 ans d'ESMOD SEOUL, Bravo et encore 20 ans de plus.

Chantal Thomass Designer
Chantal THOMASS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that reads "Chantal Thomass". The signature is fluid and cursive, with a heart shape drawn above the first few let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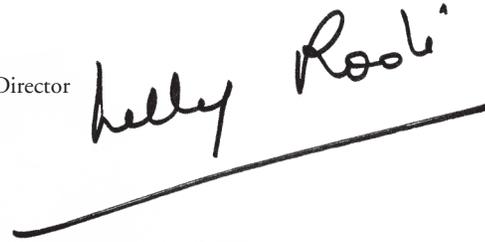
20주년을 맞은 에스모드 서울에게 브라보, 그리고 앞으로 올 20년 동안 더욱 발전하길.

상탈 토마스 디자이너
상탈 토마스

Bravo à ESMOD SEOUL !

Son succès international est du en grande partie à l'énergie déployée par Madame Yoon Chung Park, qui dirige cette école d'une main de maître. Styliste renommée en Corée depuis plus de 40 ans, elle a su combiner style et créativité avec les besoins de l'industrie pour donner à ses élèves la chance de pouvoir s'intégrer rapidement sur le marché du travail. C'est grâce à cette synergie style/marché, qui est aussi notre crédo, que la mode évolue aujourd'hui, au plus près des consommateurs, de leurs besoins et de leurs envies. Proposer une mode, un style en pensant à ceux qui la portent et non l'imposer, voilà le secret de la réussite d'ESMOD Séoul. Bravo !

Nelly Rodi Founder & Creation Director
Nelly RODI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that reads "Nelly Rodi". The signature is written in a cursive, fluid style. Below the signature is a long, horizontal, slightly wavy line that underlines the name.

브라보, 에스모드 서울! 박윤정 이사장님이 장인의 손으로 학교를 일구고 운영하신 그 에너지 덕분에 오늘날 에스모드 서울이 국제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40년 전부터 한국의 유명한 디자이너로 이름을 날리신 박윤정 이사장님은 학생들의 스타일 감각과 창의성을 패션계의 요구에 맞게 결합시켜, 학생들이 업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넬리 로디 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 '스타일과 시장의 시너지 효과'로 인해 오늘날 패션은 최종 소비자들의 필요와 요구에 맞도록 끊임없이 변화, 진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결코 강요하지 않으면서 패션과 스타일을 제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스모드 서울의 성공 비결입니다.

넬리 로디 대표 / 크리에이션 디렉터
넬리 로디

A Madame Park , et temoignage de ma respectueuse amitié et pour le 20e anniversaire d'ESMOD SEOUL dont je peux dire qu'elle represente ma plus belle réussite de l'international.

Paule DOUARINOU



존경하는 박윤정 이사장님, 에스모드 서울의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에스모드 서울은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본교의 가장 아름다운 성공 사례임을 자랑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전 에스모드 파리 교장
폴 두와리누

Déjà 20 ans ! 20 ans de travail, 20 ans de réussite, 20 ans d'amitié...

ESMOD SEOUL a permis à nos vies de se croiser, de se connaître, de s'entendre et de s'aimer.

Yoon Chung PARK a dirigé depuis 20 ans d'une "main de fer dans un gant de velours". Cette école qui est une des plus importantes réussites du Groupe ESMOD INTERNATIONAL et continue à être ma grande fierté.

Que mille et un projets continuent à maintenir votre école au sommet.

Avec tous mes souhaits de bonheur

Annette GOLDSTEIN



벌써 20년이 되었군요. 20년간의 일과 20년의 성공, 20년의 우정.

에스모드 서울로 인해 저희는 만났고, 서로를 알게 되었으며, 교류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박윤정 이사장님은 20년 동안 '벨벳 장갑 속의 철의 손'을 가지고 에스모드 서울을 운영하셨습니다. 에스모드 서울은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그룹의 가장 큰 성공 사례이자, 제 가장 큰 자랑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수많은 계획을 통해 앞으로도 정상적 자리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행복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전 에스모드 파리 교장
아네트 골드슈타인

ESMOD SEOUL

是培养韩国服装设计师的摇篮，
20年中为韩国的服装事业走向国际做出了巨大的贡献！
在这成立20周年的大庆日子里，
我衷心地祝贺：
ESMOD SEOUL 越办越好！
引导韩国服装新潮流！

中国服装设计师

A large, stylized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consisting of the Chinese characters '李欣' (Li Xin) followed by a long horizontal stroke.

에스모드 서울은 지난 20년 동안 한국 패션이 세계로 발돋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새로운 패션을 이끌어 갈 에스모드 서울에 무한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중국 패션 디자인 협회 고문
이신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분교로부터 온 축하 메시지

ESMOD PEKIN

이제 20주년 ESMOD 기념 건

20주년!

이제 ESMOD 기념 건 ESM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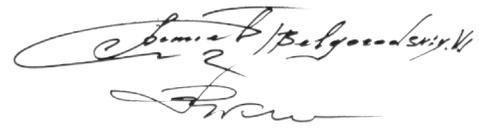
이제 ESMOD 기념 건 ESMOD

20주년!

楊玲

ESMOD MOSCOU

Москов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дизайна и технологий
сердечно поздравляет с 20-ти
летней годовщиной образования
школы Esmod Seoul! Успехов
в развитии школы дизайна!
Ваши коллеги Esmod Moscow



ESMOD JAPON

輝やかとい念に20周年を
迎えられる心より御祝申し
上げます。

ソウル校の今後の益々の
御発展をお祈り申し上げます
と共に、日本校との意義ある
交流がますます深まらる
ことを心よりお祈り申し上げます。

ESMOD JAPAN

事務局長

三好勝彦

ESMOD PARIS

Un grand merci pour ces moments merveilleux que
vous nous faites partager tous les ans, à chaque collection.
Le travail de vos étudiants est toujours plus intéressant
les proportions, le tomber, les volumes, la précision de
leurs vêtements, le style toujours étonnant, la recherche
textile, le travail des matières, tout est étudié de façon
très professionnelle.

La Corée est un pays qui avance avec le mode et le
mode avec la Corée ...

Les créations coréennes sont toujours plus nombreuses sur la
scène internationale et c'est toujours avec émotion
et un véritable honneur pour Esmod qu'ils aient été
formés par vos professeurs.

C'est une équipe pédagogique très compétente et nous
félicitons l'ensemble de vos collaborateurs.

Nous vous remercions, chère Madame Park et
sommes très admiratifs de votre détermination
et de votre action pour le mode en général
et pour Esmod et son rayonnement en particulier.

Merci encore à tous et "bravo"
Très cordialement



ESMOD TUNISIE

إسمود تونس
يسعدنا أن نتوجه لكم جميعًا بأخلص وأحر
التهاني بمناسبة الذكرى العشرين ليلاد اسمود
سيول كما نود الإعراب لكم ولجميع منتسبيكم
كل النجاح والتوفيق في مستقبل الأيام،
والسلام



ESMOD ROUBAIX

Loans... de Beauté, Créativité, Esthétique
Mille et un vœux de Bonheur pour
les Loans à venir...



ESMOD SYDNEY

On behalf of everyone at ESMOD Australia,
I would like to sincerely congratulate ESMOD SEOUL
On their 20th anniversary.
I must say that your success is a great inspiration
to us in Australia.

We note the talent and creativity generated by
the Staff and Students at ESMOD SEOUL.
From all the Staff and Students at ESMOD Australia
we wish you all the best for another 20 years.

Kind regards
Penelope Leonard



ESMOD DUBAI

Congratulations for your
Success of 20 years of
Esmod Seoul -

Tamara Hortal

Denis Ruzen



ESMOD BERLIN

Au nom d'Esmod Berlin, j'
tiens à vous transmettre toutes
nos félicitations pour ce travail
extraordinaire que vous avez
réalisé durant ces 20 années.
Le dialogue humain intentionnel,
nous sommes subjugués par les
surprenants résultats créatifs de
vos élèves et le succès de vos
jeunes diplômés dans l'industrie
de la mode. Cela reflète un
engagement remarquable de votre
part.

Pour tout cela, je vous souhaite
de tout mon cœur que, dans
les années à venir, vous
continuez à donner à votre
école tous les moyens
nécessaires à l'épanouissement
de vos futurs jeunes
professionnels.

Toutes mes amitiés

Silvia Kauter

ESMOD JAKARTA

I would like to extend my heartiest congratulations to you on the occasion of the 20th anniversary of ESMOD Seoul. You must be truly delighted at reaching this landmark and having provided the Esmod teaching excellence through the years to all seeking professionalism in fashion.

The International Meeting hosted at Esmod Seoul has been an unforgettable experience for all of us and we take back warm memories. Thank you for your gracious hospitality.



Mayadewi Hartanto

A equipe Seoul

ESMOD SAO PAULO

Parabéns pelo sucesso conquistado nestes 20 anos de trabalho realizado com muita competência. Que o futuro esteja repleto de brilhantes contribuições da Esmod Seoul para a coroa e para o mundo!

Esmod São Paulo
Brasil
Marta Magri

ESMOD PARIS

ESMOD Séoul, 20 ans de...
Savoir-faire,
Élégance,
Originalité,
Universalité;
Longue vie à ESMOD Séoul!

Anne Viallon M/09 *

ESMOD DAMAS

A l'opportunité de 20ème anniversaire à la fondation d'Esmod Seoul, la famille Esmod Damas vous souhaite les meilleurs vœux et vous exprime ses souhaits de réussite.

Nada AL ASSAD



ESMOD MUNICH

BRAVO POUR VOTRE PROFESSIONALISME !
J'AI LE PLAISIR DE VOUS AVOIR CONNU
PENDANT 20 ANS D'ESMOD.

VOUS ÊTES VRAIMENT UNE FEMME
ADMIRABLE.

AVEC TOUTE MON AFFECTION

DOROTHEA

ESMOD LYON

AVEC TOUTS MES VOEUX DE
FÉLICITATIONS POUR VOTRE 20^{ÈME}
ANNIVERSAIRE.

"HAPPY BIRTHDAY ESMOD SEOUL!"

- S : POUR LE SUCCÈS DANS TOUTES
VOS DEMARCHES
- E : POUR L'ÉCHANGE A L'INTERNATIONAL
- O : POUR L'ORIGINALITÉ DES CRÉATIONS
DE VOS ÉTUDIANTS
- U : POUR L'UNIVERS TRÈS FORT DE
VOTRE ÉCOLE
- L : POUR LA LONGÉVITÉ D'ESMOD SEOUL.

TRÈS CORDIALEMENT

ESMOD LYON

MANUSOIX.

ESMOD OSLO

POUR ESMOD SEOUL !
BRAVO POUR LA CÉLÉBRATION DU
20^{ÈME} ANNIVERSAIRE D'ESMOD SEOUL
ET AUSSI POUR LES TRAVAUX DES ÉLÈVES
PENDANT DES ANNÉES, MAGNIFIQUE !!

AVEC MES AMITIÉS

NIL-CHRISTIAN

ESMOD-OSLO, NORVÈGE

ESMOD BEYROUTH

Sincères Félicitations ↓ ESMOD Beyrouth
votre seule présence représente
ESMOD International. Vous êtes
une femme de crak, de force
Tranquille et en même temps de tendresse.

On sait en vous la femme d'affaires
et en même temps la féminité.

Le succès d'ESMOD vous est
en grande partie imputée ; je
parle d'ESMOD Intern. E. Seoul

c'est vous, mais par le diban
ainsi je pour M^{me} Elie Saab lui

même lui me la confie vous
êtes la fierté d'ESMOD Intern.
national et par conséquent

d'ESMOD Beyrouth et de tout
en Chacun

MAROUF

Notre Nassouf

HASSOUD

ESMOD Beirut
Antoine Kassatly



part

01

한국 패션의 미래를
제시한 선구자들



01

꿈을 현실로 옮기다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활동



패션 디자이너로 활동할 무렵의
박윤정 (1966)

고등학교 졸업 후 약학 대학에 지원하라는 부모님의 권유에 망설이던 박윤정은 과감히 자신의 뜻에 따라 이화여자대학교 가정대학 의류직물학과에 원서를 넣었다. 엄격한 유교적 가문에서 자란 딸이 옷 짓는 ‘쟁이’가 되는 것을 반대하던 부모도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진로 결정이 충동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훗날 패션 디자이너가 될 조짐은 아주 일찍부터 나타났다. 예닐곱 고사리 같은 손으로 천을 오리고 바느질을 해서 인형 옷을 지어 입히는 솜씨가 감쪽같았다. 손 맵시가 좋아서 한복을 지으면 ‘그림 같다.’는 칭찬을 받던 어머니의 재주가 고스란히 대물림된 것이다. 경기여고 시절에는 풍성한 교복 상의를 허리에 짝 달라붙게 고쳐 입고, 교문 밖에 나서면 벨트와 발목을 조이는 배기바지 고무줄을 풀어 주머니에 찢려 넣던 박윤정으로서도 당연한 선택이었는지도 모른다. 대학시절은 6.25 한국전쟁이 관통하고 있었다. 어수선한 가운데 졸업을 하자 친구들은 의상실을 내거나 교직을 갖거나 결혼을 하기도 했다. 박윤정에게도 마침 모교인 경기여고에서 교편을 잡을 기회가 생겼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선망의 대상이었던 교사직을 과감히 포기하고 취업현장으로 뛰어든다.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패션 디자이너였던 것이다. 좋은 디자이너가 되려면 현장에서 실제적인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박윤정은 노라노 의상실의 문을 두드렸다.

외국에 한 번 가기도 쉽지 않았던 시절, 미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디자이너가 운영하는 그 곳을 선택한 것은 장차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3년을 예상하고 입사한 것이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을 훌쩍 넘겼다. 작업실 바닥에 떨어진 핀을 줍는 일을 비롯하여 매장과 시장과 공장을 하루에도 몇 차례씩 오가는 수습 디자이너를 거쳐 책임 디자이너가 되기까지 10년간 박윤정은 패션의 사계절을 반복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맞춤복 수트에서 웨딩드레스에 이르기까지 의상에 관해서라면 다루어 보지 않은 아이템이 없다고 자부할 정도가 되었을 때, 박윤정은 미국으로 건너갈 것을 결심한다. 이화여대 은사이신 고 최이순 교수는 ‘교수가 되라.’고 적극 권유하였으나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욕망이 훨씬 강했다.

미국으로 건너간 박윤정은 LA에 있는 한 의류업체에 면접을 보러 가서 큰 충격을 받는다. 아직 맞춤복밖에 없던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에는 분업 시스템과 기계화에 의한 대규모 기성복 시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국에서 10년 동안 배우고 나자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가서 보니 ‘내가 이렇게 모르고 한국에서 일을 했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은 철저한 분업이 이루어져 있어서 제가 한국에서 배웠던 다양한 경험담들은 그 곳 사람들에게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미국 업체들이 갖춘 최신 장비와 시설, 풍부한 물자는 부러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대학에서 공부하던 시절 신문지, 마분지, 창호지, 누런 시멘트 포장지 등을 이용해서 패턴을 뜨고, 전기 다리미가 없어서 숯불로 다릴 때 불똥이 튀어서 실크 옷감을 태운 기억들이 머릿속에 생생했다. 그러나 결핍은 창조의 원천이 되기도 하는 법이다. 분업화 되지 않은 국내의 열악한 환경은 오히려 박윤정으로 하여금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눈을 틔워 주기도 하였다.

미국 기업에서 일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전문화된 교육의 필요성은 박윤정에게 강렬한 배움에 대한 동기부여로 작용한다. 박윤정은 짧은 기간 동안 미국의 시장을 빠르게 섭렵하며 새로운 기술과 감각을 배우고 싶었다. 코트 전문, 수트 전문 등으로 세분화된 기성복 회사를 여섯 군데나 옮겨 다닌 것도 배움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다. 또, 뉴욕의 메이어Mayer 패션 스쿨에 입학하여 공부를 계속했다. 한 살이라도 빨리 유학을 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장차 새로운 꿈과 도전의 씨앗이 되었다.

2년 동안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에 앞서 박윤정은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 뉴욕과는 또다른 분위기를 접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교수직을 뿌리치고 건너간 이 때의 경험은 패션 디자이너에서 장차 교육자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국제적인 감각을 일깨워 주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미스 박 테일러’를 오픈하다



미스 박 테일러를 오픈할 당시의
박윤정 (1966)

미국에서 귀국한 박윤정 선생은 더 이상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고 자기만의 세계를 창출해 내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찼다. 10년 동안 ‘남의집살이’를 하다가 미국의 현대화된 문물을 익히고 돌아온 선생으로선 당연한 열망이었다. 1966년, 충무로에 자신의 성을 따 명명한 ‘미스 박 테일러’라는 수트 전문 의상실을 개업했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변함없이 품위 있게 입을 수 있는 정장 차림을 유난히 좋아했던 박윤정 선생은 수트 전문 점이야말로 자신의 개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미스 박 테일러’를 운영하면서 선생은 평소에 갖고 있던 의상 철학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선생이 생각하는 최고의 옷은 ‘10년이 지난 후에 입어도 사랑받을 수 있는 옷, 걸어만 놓고 보는 옷이 아닌 자주 입을 수 있는 옷’이었다. 이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심미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추지 않으면 안 되었다. 10년, 20년 전에 만든 옷도 해가 바뀔 때마다 다시 한 번씩 살펴보면서 어색하지 않은가를 확인하는 선생의 습관은 이처럼 패션계 입문 당시부터 형성되었다.

‘미스 박 테일러’의 자긍심은 오래 입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비슷한 것은 없다. 매년 바꾸어 간다. 많은 고객들은 한번 산 옷을 몇 년씩 입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한 고객이 20년 전에 산 옷이 비를 맞아 색깔이 변했다며 가지고 왔다. 가전제품도 아니고 이미 품질 보증기간이 훌쩍 지났으니 어떤 수선이나 보상을 할 의무도 없었다. 그러나 박윤정 선생은 새 원단으로 똑같은 옷을 만들어 그 고객에게 선물했다. 20년이나 지난 옷을 아직까지도 입어 준 것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에서였다. 박윤정 선생의 의상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에피소드라 하겠다.

‘몇 년을 두고도 오래 입는 옷’이라는 개념은 늘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시도하는 것을 패션이라는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율배반적인 것처럼도 보인다. 그러나 변함없는 가운데 조금씩 바뀌는 수트에 대한 박윤정 선생의 견해는 트렌드와 브랜드 이미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쉽게 수궁이 간다.

박윤정 선생은 잡지 《엘르ELLE》 1995년 9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고가의 의상일수록, 트렌드의 영향이 가미되기에는 하나 무조건 따라가지는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다. 중저

가 제품이 오히려 디테일이 많고 트렌드의 감각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래에 조금씩 특색 있게 브랜드의 개념이 정착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브랜드의 이미지보다는 트렌드의 영향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색상, 소재, 디자인 등 모든 면에서 유사한 옷이 가득 진열되어 있는 백화점을 한 바퀴 돌아보고 난 후 어느 브랜드의 옷이 가장 특색 있었는지 발견하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고 매출 상승을 염두에 두다 보면 트렌드에 집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의 안목, 수준, 선택의 폭을 넓혀 주어야 하는 책임 역시 디자이너의 몫”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윤정 선생은 근래의 패션이 지나치게 빨리 바뀌어서 순간적인 화젯거리밖에 되지 못하는 것을 개탄한다. 이 같은 현상을 극복하려면 표면적인 변화에 집착하기보다 예술적 문화적 연구가 조화된, 테마가 분명한 독창적인 패션을 선보이려는 치열한 노력이 따라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관점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여 패션의 영역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를 위한 변화에 집착하여 패션이 단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박윤정 선생은 새로운 변화와 첨단 의 흐름에도 예민한 촉각을 지니고 있었다. 미국에서 돌아온 인기 가수 윤복희 씨에게 과감하게 미니스커트를 입힘으로써, 60년대 우리나라에 미니스커트 시대를 연 장본인 또한 박윤정 선생이라는 사실은 패션 종사자들에게는 꽤 잘 알려진 일화이다.

이후 30여 년 간 ‘미스 박 테일러’를 운영하면서 박윤정 선생은 자신의 의상 철학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명성을 쌓을 수 있었다. 그러나 박윤정 선생의 시선은 늘 ‘미스 박 테일러’의 성취 그 너머로 향하고 있었다.

에스모드 서울 설립과정

패션 전문 교육 기관 설립을 꿈꾸다

미스 박 테일러를 운영하면서도, 미국 회사 입사 초기에 받았던 우리나라의 낙후된 패션 교육에 대한 충격은 지워지지 않았다. 매년 1월과 8월이면 미국으로 일본으로 재충전 교육을 받으러 다닌 것도 이 때문이었다. 비록 몇 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라고는 하지만, 재충전을 위해 한 해도 빠짐없이 외국으로 떠난다는 결정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예외적인 일이었다.

미스 박 테일러는 또다른 목표를 향한 주춧돌이었다. 이 무렵 선생의 가슴 속에는 제대로 된 패션 학교를 세워야겠다는 결심이 구체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바늘 한 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던 선생이 경험한 ‘한국 패션 교육의 낙후성’은 자꾸만 실밥처럼 뇌리에 거슬렸다. 결국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파야 한다고 생각했다.

선생은 최고의 디자이너만이 최고의 학교를 세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미스 박 테일러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선생은 처음부터 기업체 운영뿐만 아니라 패션 스쿨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신뢰받는 박윤정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놓지 않고 있었다.



에스모드 서울 교사 준공식 (1989.9)



에스모드 서울 제1회 입학식 (1989.9.18)

대량 소비 사회가 정착된 미국에서 기성복 생산이 보편화된 것에 비해 그 당시 일본 패션계의 상황은 우리나라 실정과 그다지 다르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의상은 일본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다. 선생은 일본의 영향을 벗어나 새로운 패션을 배우고 싶었다. 일본에 가서도 러시아 교수로부터 입체재단 개인 교습을 받은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보람 있는 시간으로 기억된다.

재충전 교육뿐만 아니라 파리, 밀라노 등지에서 열리는 디자이너 컬렉션을 매년 빠짐없이 관람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그 당시에는 외국에 나가 매년 컬렉션을 보는 한국 사람이 아예 없었다. 이탈리아의 모디트Modit, 파리의 오프 쿠티르Haute Couture 참관은 디자이너에게 필수인 높은 안목을 얻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해외에서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을 관람하는 틈틈이 박윤정 선생은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이름 있는 패션 스쿨도 빼놓지 않고 방문했다. 참관하는 학교들은 저마다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 철학, 운영 방식 등이 달랐고, 이 모든 자료들은 꼼꼼하게 비교해 보아야 할 과제였다.

스틸리즘과 모델리즘을 함께

에스모드라는 선택은 이처럼 세계 유수의 패션 스쿨을 섭렵한 뒤 박윤정 선생이 자신 있게 내린 결정이었다. 기업밀착형 교육 이념은 물론, 스틸리즘(의상 디자인)과 모델리즘(패턴 디자인)을 똑같은 비중으로 가르친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다.

짧지 않은 현장 경험을 통해 박윤정 선생은, 흔히들 ‘패션’ 하면 떠올리는 스타일화 위주의 교육만으로는 반쪽짜리 디자이너만 양산할 뿐, 제대로 된 옷을 만들 수 있는 프로를 양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간파하고 있었다.

우리의 복식 전통과는 판이하게 다른 서양 복식을 배우려면 모델리즘은 매우 중요했다. 당시 에스모드 파리에서는 스틸리즘이나 모델리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나 선생은 두 가지를 필수로 전공할 것을 구상했다.

두 과정 모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만 한두 번 입고 버리는 옷이 아닌, 오래 두고 입을 수 있는 옷, 입어서 편한 옷, 자주 입고 싶은 옷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은 패션에 입문한 지 55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박윤정 선생의 확고한 신조로 뿌리내렸

다. 선생은 ‘웃은 그래서 파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파는 것’이라고 단호히 말한다. 에스모드 쪽으로 마음이 기울자 박윤정 선생은 8년 동안 본격적으로 에스모드 파리를 방문하기 시작했다. 일본에도 5년 전에 개교한 분교가 있는 걸 알게 되자 에스모드 도쿄에도 여러 차례 찾아가 보았다. 에스모드 일본은 규모는 작지만 일본 내 프랑스 학교로서의 차별화된 교육방식을 착실하게 보급하고 있었다. 선생은 에스모드가 국제적으로 뻗어 가려는 선견지명이 있는 학교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에스모드 파리와 에스모드 일본을 방문하는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하루빨리 에스모드를 들여오고 싶은 박윤정 선생의 욕망은 배가되었다. 그러나 외국 분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복잡한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에스모드의 파트너로 선정되다

에스모드가 이론적인 지식 전수보다 실무 위주의 교과 과정을 통해 ‘기업에 맞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삼는 학교라는 점이 마음에 든 박윤정 선생은 본격적으로 에스모드 분교 설립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외국 분교 설립에 관한 각종 국내법의 제약 때문에 일은 서두르는 만큼 신속하게 진척되지 않았다.



에스모드 분교 계약 체결 (1988.5.18)

에스모드 한국 분교 설립에 관심 있는 사람은 박윤정 선생만이 아니었다. 에스모드 파리에서도 한국 분교 설립에 관심을 보이는 한국측 지원자들이 상당수에 이르자 신뢰할 만한 파트너를 선정하느라 적지 않은 시간과 정열을 투자하는 줄다리기가 계속되었다. 우리나라 일부 대기업에서는 엄청난 학생 수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지원서를 냈다는 이야기도 들렸고, 어떤 대학에서는 기존 의상학과의 부속기관으로 에스모드를 설립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다들 규모가 큰 학교를 만들겠다고 제안했지만 선생은 오히려 작은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제안했다. 외적 규모보다 내적으로 견고한 교육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에스모드 파리에서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장고 끝에 에스모드 파리는 박윤정 선생을 에스모드의 파트너로 선정했다. '미스 박 테일러'가 지닌 우리나라에서 가장 품위 있는 수트 전문점으로서의 확고한 이미지가 그 결정적인 이유였다. '미스 박 테일러'를 패션 전문 학교 설립의 교두보로 삼고자 했던 오랜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이다.

당시 에스모드 파리 교장이었던 폴 두와리누 씨는 박윤정 선생을 처음 만났을 때를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제가 이사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사장님께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확신에 차서 설명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의 꿈은 새로운 한국인 디자이너 세대를 키우는 데 일조하는 것이었고, 모든 에너지를 이 꿈과 야망을 위해 쏟아 오셨습니다.”

에스모드 서울 개교 준비

에스모드 파리의 파트너로 선정되자 모든 것이 분주해졌다. 학교 부지를 물색하고 교사를 신축해야 했으며, 에스모드의 분교를 열 때마다 본교측이 학교가 들어설 도시에서 전통적으로 벌이는 프로모션 쇼 준비를 해야 했다. 그 밖에도 교직원 모집, 신입생 선발 등 박윤정 선생이 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었다.

새 학교가 들어설 곳으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이 최종적으로 선택되었다. 1988년 12월,



개교를 준비하던 성산동 임시 사무실

학교 부지가 정해지자 에스모드 한국 분교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성산동에 있는 미스 박 테일러 공장 2층에 에스모드 한국 분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였다. 일간지를 비롯, 패션과 교육 잡지에 에스모드 한국 분교의 개교 홍보를 시작했다. 에스모드 파리에서 연수중이던 박윤정 이사장, 이정순 사무처장, 정진숙 교수 등이 연수를 마치고 귀국하였다. 에스모드 서울의 개교를 앞두고 설립 취지와 교육 방향을 알리고자 1989년 7월 27일, 본교인 에스모드 파리의 1989년 졸업작품 발표회가 서울 하얏트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렸다. 에스모드 서울의 첫 입학생으로 선발된 150명의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에스모드 본교 폴 두와리누 교장과 프랑스 대사를 비롯한 패션계, 교육계, 언론계의 많은 인사들이 에스모드 서울의 개교를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첫 입학생 중에서 선발된 30명의 학생들이 안내를 맡았다. 학생들은 특별히 디자인한 에스모드 서울 티셔츠를 입고 첫 스테이지를 장식했고 에스모드 파리 학생들의 졸업작품 100여 점이 무대에 올랐다. 프랑스 파리 에펠탑 백주년 축하 기념 페스티벌에서 발표했던 12벌의 작품도 함께 소개되었다. 그 작품들 중에는 에스모드 파리에 다니고 있던 한국 학생들 10명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행사에 앞선 인사말에서 박윤정 선생은 “옷과의 인연을 맺은 이후, 수십 년 동안 오직 패션 전문인을 훌륭하게 양성할 수 있는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한 가지 꿈과 목표를 갖고 살아왔는데, 그 꿈을 이루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 유학을 꿈꾸어 왔으나, 그 꿈을 이루지 못해 좌절해 온 많은 패션 학도들을 위한 학교를 열게 되어 기쁘다.”며 감격해 했다.

에스모드 서울 개교하다



에스모드 서울 개교식 (1989.9.18)

1989년 9월 18일, 강남구 신사동에 새로 지은 교사에서 에스모드 서울 개교식과 함께 입학식이 거행되었다.

150명의 신입생들과 학부모들이 참석한 제1회 입학식 축하에서 박윤정 교장은 두 달 전 하얏트 호텔에서 거행된 에스모드 오프닝 기념 발표회 때의 이야기를 꺼냈다.

“당시 파리에서 오신 본교의 폴 두아리누 교장은 ‘왜 이제야 서울에 본교를 내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제껏 한국은 남의 디자인을 모방만 해 왔습니다. 이제 웬만큼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니 진정한 창작품이 나올 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탄탄한 교육의 뒷받침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폴 두아리누 교장의 말은 일찍이 패션 현장에서 일해 오면서, 한국 패션 교육의 낙후성을 절실히 깨닫고 있던 박윤정 교장의 마음을 정확히 대변하는 것이었다. 미국에 건너가서 받았던 충격 이후, 한국에 돌아와 미스 박 테일러를 운영하면서도 늘 머릿속에 그리고 꿈꾸어 왔던 것은 선진 패션 교육 기관의 설립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박윤정 교장의 꿈은 단순히 유럽의 선진 패션 교육을 받아들이는 것 이상이었다.

박 교장은 에스모드 서울을 통해 학생들 개인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찾아 내고, 한국 고유의 스타일을 창조하며,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디자이너를 길러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로써 유학 가지 않고 국내에서도 파리 패션의 진수를 배울 수 있으며,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한 에스모드 서울의 대모험이 닦을 올린 것이다.

박윤정 이사장 회고문

평생의 꿈, 패션 스쿨 설립

대학에서 의상을 전공했지만 실제로 일을 하다 보니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물어 보고 배울 곳이 없어 막막한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막막함'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디자이너들도 겪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부터 이론과 실무를 한꺼번에 익힐 수 있는 전문 교육 기관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경제 발전과 더불어 패션 산업도 크게 성장했지만 여전히 새로운 교육 기관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패션 스쿨의 설립이야말로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평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힘들 때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 준 것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위기의 시기'는 오랜 조사 끝에 에스모드를 패션 스쿨 파트너로 결정하고 분교 신청을 한 뒤, 계약 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린 2년 동안이었습니다. 경쟁자도 적지 않았던 데다가 본교측에서 요구하는 분교 설립 조건들이 국내 현실로는 실현하기 어려웠습니다. 눈앞에 뻔히 보면서도 그것을 손에 갖지 못할 때

의 안타까움이랄까, 매우 인내심이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 시간 덕분에 학교에 대해서 더욱 더 애정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잘 가르쳐만 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대졸자만 찾는 우리 사회에서 기업 연수와 취업을 부탁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기업체에서도 에스모드 서울 졸업생들을 인정해 주고, 에스모드 서울이 시작된 다음 대학의 교육이 바뀌고 있습니다. 에스모드 서울은 이제 세계적인 패션 스쿨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나는 에스모드 서울이 스무 살의 성인이 되기까지 모든 걸 쏟아 부었습니다.

평생을 걸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해도 실제로 그것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외길을 걸어오면서 평생의 꿈인 패션 스쿨을 설립할 수 있었던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만난 사람, 박윤정 이사장님’

이사장님과의 인연

내가 처음 박윤정 이사장님을 만난 것은 1988년 에스모드 파리에서 막 유학을 시작할 무렵이다. 때마침 이사장님께서도 에스모드 서울 개교를 앞두고 에스모드 파리에서 연수를 받고 계셨다. 이사장님의 명성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었다. 평소 이사장님께서 운영하시던 ‘미스 박 테일러’를 보면서, ‘웃을 만들려면 저 정도는 되어야지’ 하고 선망하던 패션 디자이너를 파리에서 만나게 된 것이다.

이사장님은 마흔두 살 늦깎이 유학생으로 힘들어하는 나를 비롯 에스모드 파리 유학생들에게 고향에서 온 어머니처럼 자상하게 대해 주셨다. 맛있는 식사에 초대하고, 한국에서 싸 온 김치를 나눠 주시는가 하면, 패션계의 대선배로서 장래에 대한 조언도 해주셨다. 그 때 에스모드 서울과 함께 할 사람들을 눈여겨봐 두신 때문인지 당시 유학생 중에는 나를 포함해 다섯 사람이나 에스모드 서울에 재직하고 있다.

박 이사장님과 내가 결정적으로 가까워지게 된 것은 졸업 심사를 받을 때였다. 나는 파리 본교 졸업생 중에서 1등을 했는데도 경력지라는 이유로 대상 수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사실을 안 이사장님은 서울 일이 바빠서 당신이 파리에 늦게 오셨기 때문이라며 당신 일처럼 안타까워하셨다. 서운한 마음을 금치 못했지만, 나를 알아 주는 분이 있다는 사실에서 큰 위안을 얻었다. 유학을 마치고 무엇을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나는, 이사장님이 묵고 계시던 콩코드 광장 앞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나도 모르게 ‘에스모드 서울로 가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말았다.

에스모드 서울을 선택한 것이 즉흥적인 것 같지만 실은 필연의 귀결인지도 모른다. 대학에서 강의한 경력이 있던 나는 패션 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었고, 그것은 이사장님이 그리고 있던 패션 교육의 그림과 일치했다. 나는 그 때 내린 결정이 내 생애 일대 행운의 서막이었음을 두고두고 일하면서 깨닫곤 한다.

나는 1992년부터 모델리즘 교수로서 강단에 섰으며, 1999년 박 이사장님의 뒤를 이어 2대 교장직을 역임한 뒤, 현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다. 개교 이래 20여 년 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이사장님을 지켜본 덕에 회고담을 쓰게 되었으니 영광이 아닐 수 없다.

하루 같은 이십 년

에스모드 서울 자료실 한쪽 벽면에는 지난 20여 년 간 매년 찍어 온 교직원 기념사진이 걸려 있다. 그 사진들을 유심히 바라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스무 장의 사진 속에서 이사장님은 마치 같은 날 찍은 것처럼 오른쪽을 살짝 앞으로 내밀고 꼳꼳하게 앉아 계신다. 나는 그 고집스럽게 일관된 자세도 예사로이 보이지 않는다. ‘한 사람이 자신과 마주친 세상과 저렇게 정면 승부를 벌여 왔구나.’ 싶은 것이다. 박음질하듯 오롯이 한 길을 걸어온 사람의 한결같은 열정과 가치관이 고스란히 사진 속에 담겨 있다.

에스모드에서는 5주 교육이 끝나면 1주는 이사장님과 교장, 교수들이 수업 결과를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사장님은 오랜 경험에서 오는 높은 안목과 정곡을 찌르는 화법으로 정평이 나 있다. 담당 교수들은 평가 때마다 이사장님의 한마디 한 마디에 긴장을 하곤 한다. 이사장님은 ‘제대로 된 평가가 제대로 된 강의를 만들어 낸다.’는 소신을 피력하곤 하신다.

어떤 일을 창립한 사람이 중요한 것은 거기에 그 사람의 정신이 스며 있기 때문이다. 박 이사장님의 삶과 가치관은 에스모드 서울 곳곳에 투영되어 있다. 에스모드 서울에는 ‘입학 청탁’이라는 단어가 없다. ‘유급제’라는 말도 없으며, 학생 결원이 생겨도 ‘충원’을 하지 않는다. 원칙을 엄격히 세우고, 경제 논리보다 인재 양성이라는 교

육적 가치 추구를 우선시하는 원칙주의아말로 에스모드 서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당시 홍보실장이 어느 잡지사에게 갈 때 선물을 사 들고 갔다가 이사장님으로부터 야단을 맞았다. 잡지사 쪽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에스모드인데 잘 봐 달라고 청탁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 평생 쌓아 온 인맥들을 활용하면 학교 운영이 수월할 텐데도, 이사장님은 주위 사람들이 갑갑해질 정도로 청탁 한 번 하는 법이 없다.

박 이사장님은 매일 새벽 하루도 빠짐없이 인터넷을 통해 세계의 패션 정보를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다. '눈에 살이 썩어야 한다.'며 늘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을 놓는 법이 없으시다. 남들은 안개가 서리는 노안이 올 연배에도 흑요석처럼 반짝이는 눈을 가진 건 이런 호기심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사장님은 아침 8시 경이면 에스모드 서울로 출근하신다. 일찍 등교한 학생들과 만나 대화도 나누고 얼굴도 익히면서 어느 학년 어느 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훤히 꿰는 것이다. 이사장님은 졸업생들의 얼굴은 몰라도 학생들이 제작한 졸업 작품은 틀림없이 기억하곤 하신다.

하이힐의 비밀

열정과 의욕만으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사장님은 그것을 감당해 낼만한 체력을 갖고 계시다. 지난 2월 에스모드 도쿄 교수를 초빙해서 모델리즘 교수들을 위한 세미나를 3일 동안 열게 되었다. 이사장님께서 몸소 통역을 맡겠다고 나서신다. 내심 다른 분이 맡았으면 했다. 건강도 염려스러웠지만, 다른 교수들이 어려워할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사장님은 사흘 내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통역을 하고, 강사의 저녁 접대까지 마치고 밤늦게 귀가하는 것이었다. 젊은 우리들도 감당하기 힘든 일을 거뜬히 해 내시는 걸 보고 모두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음에 감탄했다.

이사장님은 지난해 행운의 숫자가 둘이나 겹친 일흔일곱이셨다. 이

른바, 희수^{喜壽}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자식 같은 졸업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모습, 직년과 달라진 것 있나요? 아침, 저녁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흰 머리가 났지만 머리숱은 그대로예요. 힘의 높기도 직년과 같습니다.”

팔순을 앞두고 계시지만 30년 동안 힘의 높이가 같다. 이사장님의 건강은 철저한 자기 관리의 산물처럼 보인다. 늘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로 언제 어떠한 일을 맞아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자신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평생 일과 결혼하신 이사장님은 식사와 영양 관리를 해 주는 아주머니와 가정 관리를 맡아 해 주는 아주머니, 두 분과 함께 사신다. 이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아한 독신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남보다 세 배 더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평생 ‘올을 다루며’ 살아오신 분이므로 바늘땀처럼 쫓쫓하지 않을까 예단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IMF로 온 나라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던 그 시절, 등록금을 5년 동안 동결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웠을 때도 공색한 기색 한 번 내비친 적이 없었다. 직원들의 실수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은 적도 있었다. 그 당시에는 분명하게 문책을 했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 마치 아무런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하셨다. 세심한 것까지 살피지만 큰일도 포기할 건 미련 없이 포기하시는 것이다.

세계적인 디자이너를 기다리며

박 이사장님이 무척이나 공을 들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재 채용이다. 이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에스모드 교수들은 그저 오다가다 들어온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오래도록 지켜보다가 모셔왔습니다. 오늘날 에스모드를 이룬 공은 모두 훌륭한 교수진들에게 있습니다.”

나는 적극적인 학생이 있으면 4층에 있는 이사장실로 찾아갈 것을

중용하곤 한다. 이사장님과 관계를 맺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무척 어려워하지만, 가까이 다가간다면 큰 어른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사장님은 학생과 대화를 나누면서 평소 애 보아 왔던 학생 작품의 장, 단점을 파악해 진로에 대한 조언을 해 주곤 하신다.

이사장님에게 ‘관계’라는 말은 인간에 대한 신뢰와 배려의 이음동의 어인 것처럼 보인다. 이사장님과 함께 일본으로 여행을 갔을 때의 일이다. 내가 어떤 분에게 갖다 드릴 선물을 살까 말까 망설이니까 옆에서 말씀하신다. ‘손 교장, 한번 신중하게 선물을 했던 사람이라면 번치 말고 끝까지 해야 하는 거야.’ 이사장님 주변에는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진짜배기 친구들이 많다. 남남이지만 살붙이처럼 살갑게 지내는 지기들이 많은 까닭을 짐작할 수 있었다.

에스모드가 명성을 얻게 되면서 TV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출연 요청이 잦지만 이사장님은 극구 사양하신다. 나도 이번 20주년 기념 행사를 계획하면서 조심스레 TV 출연을 권해 드렸는데 일언지하에 거절하셨다. ‘나는 아직 성공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손 교장, 내가 이루고 싶었던 꿈을 대신해 줄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어느 정도 나와야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요즘 몇몇 졸업생들이 세계 무대에 진출하고 있어서 무척 기쁘요. 하지만 한 시즌만 잘못되어도 그대로 낙오하는 게 패션계 살얼음판인데 말만 앞서 가는 것이 아닐까 불안해요.”

일이 잘 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는 것이 이사장님의 오랜 버릇인 걸 잘 알기 때문에 재차 권하는 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청춘어람’을 꿈꾸는 교육자들이 그렇듯, 이사장님의 가장 큰 보람 가운데 하나는 제자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이사장님은 분교장 회의에도 곧잘 제자들이 만든 옷을 입고 가서 자랑하곤 하신다. 졸업생 컬렉션에는 아무리 바빠도 꼭 참석해서 격려와 조언을 잊지 않으시며, 개업식에서는 제자들이 만든 옷 사 주는 걸 낙으로 아는 분이다. 동문 커플들에게는 주례도 서 주시는데 한 번은 가장

아끼는 조카 결혼식과 졸업생 커플 결혼식이 겹쳤다. 당연히(?) 조카 결혼식에 가지 않고 동문 커플의 주례를 서 주셨다.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부당한 대우 받는 걸 못 참아 하시며, 에스모드의 교육 철학과 맞지 않는다고 몇 년 간 국내 유수의 콘테스트에 학생들을 내보내지 않은 때도 있었다.

패션계의 큰 스승

나는 이사장님과의 일 궁합이 좋은 편이다. 까다롭고 도도하다는 세간의 평판과는 달리 실제로 일을 하면서 그렇게 두렵지가 않았다. 이사장님은 엄격해 보여도 큰 귀를 갖고 계신 분이다. 분명하고 조리 있게 말씀드리면 언제나 설득당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때문에 나는 이사장님을 가까이 모시면서도 서슴없이 ‘노’라고 의사표현을 하곤 했다.

교장 재임 시절, 이사장님으로부터 자주 지적 받았던 일들이 떠오른다. ‘대의 홍보물 작성 시 과장하지 말 것’, ‘우리 것 내세우기 위해 남의 것 깎지 말 것’ 등을 거듭 당부하곤 하셨다. 겸손보다 자기 홍보가 미덕인 시대에 손해 보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사 ‘정직’만큼 든든한 주춧돌이 없다는 걸 새삼 느끼곤 한다. 나는 오랫동안 이사장님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에스모드 서울 안에 숨쉬고 있는 이사장님의 철학과 창립 정신을 학생들과 직원들에게 오롯이 전수해 주는 것이 나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젊은 시절 내가 존경하던 분을 만나서 오래도록 가까운 곳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는 것은 행운이 아닐 수 없다. 패션의 불모지에 전문 교육 기관을 세워서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을 길러 내기 위해 한 땀 한 땀 자기 생을 누벼 온 사람, 내가 만난 박윤정 이사장님은 뛰어난 패션 디자이너이자, 우리나라 패션계의 큰 스승이시다.

에스모드 서울과 가로수길

패션 중심가에 학교 터를 잡아야 한다는 파리 본교측의 계약 조건에 따라 최종적으로 선택된 서울 강남구 신사동 528-8번지. 이 곳에 자리 잡은 에스모드 서울 교사는 건축가 강석원 선생이 설계한 것으로 1989년 서울시 건축대상을 받았다.

이 곳은 현대 백화점과 갤러리아 백화점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의류 매장이 있어 패션 리더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다. 원래는 대학들이 밀집해 있어서 독특한 대학 문화와 젊은 분위기를 발산하는 신촌을 학교 부지로 생각했으나 도심 인구 집중 현상을 제한하기 위해 교육기관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당시의 건축법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다.

박윤정 이사장은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을 이용해서 패션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서울의 여러 곳을 물색하던 중, 1988년 6월, 과거 명동의 영화를 이어받아 새로운 패션 일번지로서 활기차게 움직이는 압구정동 부근에 터를 잡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처음에는 패션 상가의 끝자락이라 약간 외진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았으나, 본격적인 상업지구가 아니어서 오히려 교육적인 환경을 갖춘 곳이라 생각되었다.

1980년대 초반 인사동의 화랑들이 옮겨와 자리를 잡았던 가로수길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패션 크리에이터들과 아티스트들의 집결지로 부상하며 서울에서 가장 트렌디한 장소로 알려지게 되었다.

에스모드 서울 학생들은 가로수길 주변의 다양한 패션 상점과 가구, 인테리어 부티크, 이국적인 분위기의 카페와 갤러리를 거닐며 패션과 스타일리시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관심과 안목을 키울 수 있게 되었다. 패션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현장과 바로 이웃하고 있으니 에스모드 서울은 패션 교육의 가장 좋은 환경적 요인을 가진 셈이다.

뿐만 아니라 에스모드 서울 동문인 정옥준을 비롯, 해외로 활동영역을 넓혀 가고 있는 졸업생들이 가로수길에 작업실과 쇼룸을 오픈하고, 신진 디자이너들의 편집숍에 입점하는 등 가로수길은 에스모드 졸업생들의 활동무대가 되고 있기도 하다.

한편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강남구청 주최로 열린 신사문화축제에 에스모드 서울 학생들이 참여해 가로수길이 패션 스트리트로 거듭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자연과 예술과 인간의 만남'이라는 주제 아래 열린 제1회 축제에서 1학년 학생들은 에이프런을 이용한 의상으로 패션쇼를 펼쳤으며, 2회 축제에선 '시대별로 보는 Jean's wear'를 주제로 직접 제작한 옷을 입고 퍼레이드를 벌였다. 2003년에는 1, 2학년 학생들이 패션 바자회를 열어 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기도 했다.



제2회 신사문화축제 (2002)

02

패션 교육, 그 제도의 벽을 허문 사람들

학교나 학원이나

한국 패션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세계의 패션 교육기관들을 면밀히 살펴본 박윤정 이사장은 숙고 끝에 에스모드를 국내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기까지 현실의 벽은 만만치 않았다.

우선 국내에서 고졸 이상 학력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3년 과정의 실기 위주 교육기관이라는 선례를 본 적이 없었던 담당 관청은 에스모드를 복장학원으로 인가했다. 4년제 대학과 2년제 전문대학으로 양분되어 있는 국내 교육상황에서 3년제는 새로운 개념이었다.

당시 이론 위주의 교육만 해 오던 패션 교육기관들에게 파리 에스모드의 서울 분교 설립은 큰 뉴스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에스모드의 교육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에스모드가 한국 패션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선 어느 누구도 쉽게 예견하지 못했다. 이론 위주의 학계와는 달리 실무 능력을 갖춘 인력이 절실히 필요하던 패션 업계에서는 실기와 이론을 병행하는 에스모드 서울의 교육에 기대를 걸었다. 한편에서는 아무리 에스모드라도 대학 졸업자들이 우선시되는 사회적 인식을 무너뜨리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1989년 4월, 에스모드 서울 개교를 공고하고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아직 학교 교사도 다 지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포구 성산동에 있던 개교 준비 임시 사무실에는 문의 전화와 방문이 끊이지 않았다. 패션 공부를 위해 유학을 꿈꾸던 학생들은 물론, 많은 학부모들에게 유학 가지 않고도 한국 내에서 선진 패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에스모드 서울의 개교 소식은 엄청난 빅 뉴스였다. 더구나 다른 나라로의 유학이 쉽지 않았던 당시의 사회 상황을 감안한다면, 그 파장을 짐작할 만하다.

에스모드 서울 창립 멤버로 근속하고 있는 정진숙 교수와 권명희 총무처장은 당시를 각기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패션 교육의 정수를 이루겠다는 각오로 첫 입학생을 받을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학생 모집 공고가 나가자 학생과 학부모들의 전화 상담과 사무실 방문이 쇄도하였습니다. 5월 1일, 원서 접수가 시작되자 저희 모두는 매우 긴장하고 흥분했습니다.”

“5월 30일에 원서가 마감되었습니다. 그 결과 입학정원을 크게 웃도는 450여 명이 지원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패션 교육을 받고자 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박윤정 당시 교장 선생님과 창립 멤버들은 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기대 이상의 많은 지원자로 인해 면접 일정은 예상 기간을 훌쩍 넘겼다. 하루에 60~70명씩의 지원자를 꼬박 일주일 동안이나 면접을 치러야 했다. 철저한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1989년 6월 30일, 150명의 에스모드 서울 첫 입학생이 선발되었다. 학력 지상주의가 만연해 있었고, 대학졸업장이나 또는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만 된다고 여기던 당시의 사회 풍조에 도전장을 낸 150명의 도전이 시작된 것이다.

한국 패션 교육의 이정표를 세우다

제1회 입학생들이 힘들게 3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앞둔 1992년, 박윤정 교장을 비롯한 사무처장과 교수진들은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발벗고 뛰어야 했다. 실용학문인 패션 디자인학과가 대학에 거의 없는 대신 사립 전문 교육기관인 'Ecole'에 학위를 수여하는 프랑스와 우리의 사정은 매우 달랐다. 대학도 아니고 전문대학도 아닌 3년제 복장학원이라는 교육 체계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들어보는 학제였기 때문이었다.

박윤정 당시 교장은 이정순 사무처장과 함께 학생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 주기 위해 채용 담당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 에스모드란 어떤 학교이며 3년간 어떻게 가르쳤는가를 목이 아프도록 설명해야 했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 본 적 없는 박 교장으로서 생전 처음으로 해 보는 취업 부탁이었다.

결국 150명 입학생 가운데 78명(수료생 포함)의 학생을 졸업시키면서 그 중 절반에 못 미치는 학생만이 취업하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2회 졸업생들부터 사정은 완전히 달라졌다. 박윤정 교장은 그 해 신입생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2회 졸업생 가운데 학교에서 추천한 학생은 모두 취업이 되었습니다. 1회 때만 해도 에스모드 서울의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아 졸업생들을 취업시키느라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모든 친분을 다 동원해야 했지요. 1년이 지난 지금은 졸업생들이 저마다 직장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1993.9.3 개학식 축사).” 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교육 받은 에스모드 서울 졸업생을 써 본 기업체에서 에스모드 교육의 우수성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에스모드 서울 졸업생들은 교육부가 인정하는 정식 학위를 받을 수 없다. 최근 교육계에는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학점 은행제’, ‘사이버 대학’, ‘독학사제’ 등 새로운 시스템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에스모드 서울은 학위를 위한 타협보다는 에스모드 고유의 커리큘럼 유지를 선택했다. ‘학위’나 ‘증’보다는 ‘실력’이 중요하다라는 신념 때문이다.

제도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현실은 많이 개선되었다. ‘학위’보다는 ‘실력’을 얻길 원하는 학생들이 소신 지원으로 입학하고 있고, 이제는 패션 업계에서도 ‘에스모드 출신’이

라는 이름 하나로 신임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 지난 2008년 졸업작품 심사 때 초대된 총 102명의 외부 심사위원 중에는 에스모드 서울 동문 18명이 포함되었다. 이들 모두 유명 패션 기업의 실장급이거나 개별 크리에이터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어 후배들의 졸업작품 심사에 초빙되고 있는 것이다. 실로 큰 발전이라 아니할 수 없다.

패션 전문 교육기관이라고는 거의 전무한 상태였던 20년 전, 한국 패션계에 에스모드 서울의 출현은 강력한 자극제가 되었다. 또한 에스모드 서울이 최초로 실시한 의상 디자인과 패턴 디자인의 병행교육, 기업연수제, 다양한 산학협동 프로그램 등 많은 제도들을 이제는 제도권 대학의 의상학과에서도 실시하고 있으니, 에스모드 서울은 가히 한국 패션 교육의 이정표가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동아일보 (1989.4.27)



일간스포츠 (1989.1.15)

에스모드 분교들의 노력

대학 중심의 한국적 교육 상황에서 학력 파괴를 도모한 에스모드 서울이 개교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 곳곳에 산재한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분교들도 아무런 문제없이 순조롭게 자리 잡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이들도 자국의 교육제도와 마찰을 겪으면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에스모드 파리 학생들은 3년 동안 패션 디자인 과정을 마치면 프랑스 교육부가 인정하는 3 level, 즉 Bac+2 학위를 받는다. 에스모드 파리에서는 2007년부터 패션계의 현실을 반영한 다각적인 교육 개혁을 감행하면서 패션 마케팅 마스터 과정과 크리에이티브 모델리즘 마스터 과정, 그리고 패션 비즈니스 ESMOD CNAM 과정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국립 디자인 기술 대학과 결연을 맺고 마케팅 등 석사 과정을 개설했으며, LASALLE-SIA 싱가포르 예술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에스모드 파리 마스터 1학기를 마친 뒤 그곳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제도권 대학에서조차 시도하지 못하는 높은 수준의 패션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에스모드 파리는 세계 최

고 패션 교육기관으로서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대학과 동등한 학사 학위를 수여하고자 하는 에스모드 분교들의 노력도 끊이지 않고 있다. 에스모드 세낙은 브라질 상 파울로 상공 회의소 산하 직업교육 전문대학의 부설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학에 편입된 에스모드 세낙은 1999년부터 4년제인 ‘패션 디자인 코스(Curso de Design de Moda)’를 운영하며 졸업생들에게 학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2006년에 개교한 에스모드 두바이 역시 ‘French Fashion University ESMOD INTERNATIONAL’이란 이름으로 대학 교육 기관으로 등록되어 3년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정부가 수여하는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텍스타일 패션 도시에 위치한 에스모드 리옹은 리옹 대학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졸업 후 패션 학과에 진학해 석사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에스모드 졸업생들이 대학 졸업장과 동등한 수준의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교육 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에스모드 파리 교사

“에스모드 파리에서는 대학에서조차 시도하지 못하는 높은 수준의 패션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학력 파괴의 장벽과 과제들

에스모드 서울이 제도권 교육이 담아 내지 못하는 패션 교육의 새로운 틀과 사례를 만들어 가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딪치고 있는 장애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외국 학생의 유학생 비자 발급 사례를 들 수 있다.

에스모드 서울은 중국 패션협회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2005년부터 ‘상해 국제 패션 디자인 콘테스트’ 수상자 중 한 명에게 에스모드 서울에서 장학생으로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중국 난징 아트 인스티튜트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한 이준李俊을 첫번째 장학생으로 추천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했던 난관에 봉착했다. 이준 학생의 비자 발급을 진행하던 중, 대학 총장 명의로 발급된 초청장이나 대학 부설 한국어 연수 기관 등록증이 있어야만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법무부로부터 듣게 된 것이다.

에스모드 서울은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접수조차 꺼려하는 출입국 관리국 담당자를 설득하기 위해, 일반적인 비자 발급 서류의 몇 배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했다. 수십 차례 여러 관공서를 찾아가서 양국간 패션 교류의 의의와 학교 소개를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준 학생은 마침내 장기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그는 2006년 3월부터 1년간 에스모드 서울 여성복 반에서 수학할 수 있었다.

이준은 중국으로 돌아간 뒤, 현재 아디다스의 아시아 지역 디자인 총괄 센터에 디자이너로 취업, 국제적으로 활약하고 있다.

2009년 현재, 황문악黃文錫 학생이 차이나컵 제2기 장학생으로 와서 여성복 전공반에서 수학하고 있다. 이번에도 비자 발급 과정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준의 성공적인 사례를 들어 관계자를 처음보다 쉽게 설득할 수 있었고, 황문악 학생은 또 하나의 도약과 성공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최근에도 에스모드 서울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을 비롯한 많은 외국인 지원자가 입학 문의를 해 오고 있다. 정식 유학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없어 이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에스모드 서울의 명성을 듣고 세계 곳곳에서 문의를 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왜 나는 에스모드를 선택했는가? - 방정수 (2학년)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대학과 에스모드 사이의 기로에 서 계신 분들, 부모님께 허락을 받지 못한 신 분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안 서는 분들 등 여러 이유로 에스모드에 도전하기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저 또한 그랬으므로 지금 여러분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1년 전 수능을 치르고 나서 행복하지만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두 개의 대학과 에스모드에 동시 합격한 것입니다. 합격한 학과가 제 꿈과는 동떨어진 것이어서 마음은 에스모드로 향하고 있었지만 꽤 유명한 대학들이었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 혼자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끝날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미래가 걸린 중요한 일이었으므로 부모님과 선생님, 친구들의 생각도 들어야 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붙은 대학인데 아깝지 않느냐?', '안정된 대학에 가야 한다.', '예술계, 특히 패션계에선 성공하기 힘들다.' 등 에스모드를 반대하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심지어 에스모드에 면접시험을 보러 왔을 때, 면접관께서도 망설이는 제 모습을 보시고 '우선 대학에 먼저 진학해 보는 것이 어때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모드의 커리큘럼과 우수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때 다시 입학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충고도 하셨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가슴 떨리는 시간이 지나고 합격한 학교들의 등록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 자신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제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자 '네 꿈은 디자이너야. 그리고 지금까지 네가 열심히 공부한 이유는 단순히 대학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서야.'하고 말하는 내 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제 솔직한 생각을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마침내 에스모드 입학 허락을 받아 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망설이고 있다면 가장 먼저 자신이 꿈꾸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려하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의지를 말씀해 보시고, 진정으로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신 있게 에스모드 서울로 오십시오.

- 2008년 1월 입학 설명회 재학생 체험담 중에서 -

03

한국 패션 기업, 산학의 문을 열다



한국 패션계 최초로 인턴십 제도 도입



플라스틱 아일랜드 인턴십 (2006.7)

요즘 한국 패션 업계에서는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인턴 사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제는 학위보다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호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인턴 사원제를 아예 정규직 채용의 한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는 패션 기업도 많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인턴’이란 말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임상 실습을 받는 수련의 과정 가운데 첫 1년 동안의 의사를 이르는 단어였다. 인턴제는 이론 위주의 학문 연구에서 벗어나 실제적으로 현장 경험을 터득하도록 하자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실무 능력이 중요한 패션 학교에서는 필수불가결한 제도이며, 현업에 필요한 인재를 뽑고자 하는 패션 업계에서도 꼭 필요한 채용 방법이 아닐 수 없다.

에스모드 서울은 한국 패션 업계 최초로 인턴십 제도를 제안, 도입했다. 1989년에 입학한 첫 신입생 150명 가운데 110명의 학생들이 2학년이 되었을 때 여름 방학 기간을 이용해 전체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기업연수를 시키기로 하였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인턴 사원’이라는 개념조차 전무하던 시기였으니 기업들이 선뜻 수락할 리가 없었다.

당시 교장이었던 박윤정 이사장은 학생들이 연수할 만한 기업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에스모드의 실무 중심 패션 교육의 우수성을 인식시켰다. 학교는 물론 기업 입장에서든 인턴 사원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하는 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학생들 받기를 주저하던 회사들 가운데 처음으로 논노, 신원, 데코, 성도, 뽀랭땅, 프랑소와즈, 오리지날 리 등이 기업연수의 취지와 박 이사장의 간곡한 부탁에 문호를 열었다.

기업으로서는 비록 현장 일에 서툰 학생들이기는 하지만 요긴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학생들로서는 본격적인 취업에 앞서 현장 업무를 미리 체험해 봄으로써 자신의 꿈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업 연수는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다. 에스모드 서울에서는 인턴십 제도의 효용을 시대에 앞서 예견한 것이다.

패션계 인턴십 제도 정착

인턴십 제도에 대한 개념조차 없어 연수생 받기를 주저하던 패션 기업들이 일단 문호를 개방하고 나자 기업연수제도는 기업과 학교가 상생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이 제도는 학생들로 하여금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패션 업계 분위기나 업무 특성 등을 미리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세분화된 패션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졸업 후 기업에 입사했을 때 보다 빨리 회사 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인턴십 제도는 지금껏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실제 업무에 적용해 볼 수 있게 하여 ‘살아 있는 교육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고 있다. 사실상 그 동안 인력의 수요자인 기업은 이론 중심의 지식형 인력을 배출하는 대학 패션 학과에 대해 불만을 가져왔다. 패션 학과를 졸업한 대학졸업자들은 과잉 공급되고 있었지만 막상 패션 산업 현장에서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는 한국의 패션 디자인 교육이 시장 원리를 도외시하고 질과 양 모든 측면에서 기업과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 섬유 산업 연합체는 패션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방안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21세기 패션 교육 방향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한국 섬유 산업 연합체 · 에스모드 서울, 1996.2.14》

그러던 차에 준비된 전문 패션 인력인 에스모드 서울 학생들을 연수생으로 받아들이면서 한국 패션 기업들은 산업체의 실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성화된 전문 패션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실무 중심의 인턴십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한국의 패션 기업들은 젊은 마인드와 감성이 필수적인 패션 회사에 참신한 디자인 능력과 감각을 갖춘 학생들을 연수생으로 활용하면서 활력을 얻고 있다. 또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기업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면에서 인턴십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연수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대기업의 패션 브랜드에서도 실무에 강한 에스모드 졸업생들이 업계에서 인정을 받아 패션 전문학교 졸업예정자로 자격 요건을 확대하였다.

인재 채용의 혁신을 감행한 기업

- 원대연(전 제일모직 패션 부문 사장, 현 한국 패션 협회 회장)

패션 부문은 전자, 기계, 금융 등과는 많이 다르다. 일의 특성상 개성과 끼가 남달라야 한다. '패션에 미치고 싶은 사람만 오라!' 나는 언젠가 이런 채용 공고를 낼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드디어 내 뜻을 펼칠 기회가 왔다. 그룹 채용 방식에 변화가 온 것이다. (중략) 나는 신입사원 모집 규정에 학벌과 전공 제한을 없애 패션에 대한 끼와 열정이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중략)

나는 곧 디자이너 지원자를 위한 3주간의 섬머 인턴십 코스를 만들었다. 산학 프로젝트를 겸해 우수한 인력을 직접 발굴하기 위한 시스템이었다. 각 대학교에서 추천받은 우수한 학생들이 3주 동안 회사의 기본 실무를 익히면서 디자인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과제를 부여해 수료식장에서 발표하게 했다. 이 자리에는 나와 디자인 실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결과를 세심하게 평가했다. 여기에서 인정받은 학생들을 그 해에 신입 사원으로 받아들였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데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 역시 제일모직 의류 사업 본부장 시기였다. 프랑스 제휴 디자인 학원 에스모드 서울의 졸업작품 심사위원으로 위촉받은 일이 있었다. 아직 디자인 학원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을 때라 별 기대 없이 참석했다. 그런데 막상 가서 학생들의 작품을 보니 수준이 보통이 아니었다. 실무에 약한 대학 졸업생들보다도 훨씬 실용적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나는 그 학원에서 디자이너와 패턴사 두 명을 우리 회사로 데려왔다. 그 후 나는 매년 학원 졸업생과 대학 졸업생을 똑같은 조건에서 실력만 되면 선발하도록 제도를 바꾸었다. 당시 통념이던 학벌과 학력 차별을 철폐한 것이다.

- 원대연 저, 《가치를 디자인하라》 중에서 -

산학 협동 워크숍



쌔미마켓 워크숍 디자인 선정 장면 (2007.7)

1997년부터 시작한 워크숍 과정은 3학년 기업연수 프로그램에 이어 2학년을 위한 산학협동의 새로운 출발이었다. ‘기업에 부응하는 교육’을 위해 에스모드 분교들이 각 나라의 패션 회사들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이 워크숍을 국내에 도입하기까지 난관이 적지 않았다.

기업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학생들이 그 브랜드의 콘셉트에 맞는 의상을 디자인하고 직접 만들어 디자인실 실무진들에게 심사를 받는 워크숍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협조 의지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해당 브랜드의 콘셉트를 설명하고, 학생들의 디자인을 평가, 선정하고, 소재를 협찬해 주는 전반적인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학생들은 사실상 해당 기업의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시장조사와 실질적인 상품 기획, 컬렉션 기획 업무를 생생하게 체험하게 된다.

1997년, 당시 교장이었던 박윤정 이사장은 태승 트레이딩과 첫번째 워크숍을 열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를 선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젊은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흔쾌히 수용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했다. 에스모드에서는 개방적인 기업 문화로 세간의 주목을 받던 태승 트레이딩을 첫번째 워크숍 파트너로 지정, 당시 총책임을 맡고 있던 홍선표 부사장의 동의를 얻어 낼 수 있었다.

2학년 학생들은 닉스와 스톱의 디자이너가 되어 직접 매장을 찾아가 시장조사를 하고, 브랜드 콘셉트 설명회에 참가해 상품 분석 과정을 거친 뒤, 97 F/W 시즌 컬렉션을 구성했다. 초기 워크숍 경험이 없던 기업 입장에서는 브랜드의 포지셔닝 전략과 상품 기획 방향, 타깃으로 하고 있는 다음 시즌 컬렉션 등 대외비적인 성격이 강한 내부 정보를 학생들에게 알리기를 꺼려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기업측에서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채택해 상품화하는 등 산학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패션 기업, 산학의 문을 열기까지

기업 밀착형 교육을 목표로 추구해 온 에스모드에서는 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에서는 해마다 패션 경향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는 기업 또는 브랜드를 주시하여 연수와 워크숍, 나아가 취업이 가능한지를 타진한 다음 업체를 선정한다.

2008년 3학년 학생들이 하기 기업 연수를 받았던 곳이 39개 업체, 52개 브랜드에 이르고 있지만 기업 연수가 처음부터 업체들의 대대적인 환영과 기대 속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다. 에스모드에서는 기업 연수, 워크숍, 취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 있어 선진 교육 제도에 대한 기업체들의 이해 부족과 학력 지상주의에 길들여진 잘못된 선입견으로 인해 무수한 어려움과 부딪혔다.

초창기, 에스모드 서울이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취업이었다. 1992년, 에스모드의 3년 과정을 무사히 마친 제1회 졸업생들은 어려운 과정을 마치고 졸업은 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오르는 곳이 없었다. 기업체들로서는 아직 에스모드에 대한 인식이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훌륭한 인재만 양성해 놓으면 자연스레 수요가 생길 것으로 예상한 것은 오산이었다. 에스모드의 전 임직원들은 제1회 졸업생들의 취업을 위해 발벗고 나서야 했다.

박윤정 당시 교장과 이정순 사무처장이 제일 먼저 문을 두드린 곳은 당시 '해성과 같이 나타났다.'는 세간의 평가 주목을 받고 있던 'A'

라는 업체였다. 학교와 가까운 곳에 있어서 쉬 뿌리치지는 못하리라 생각하며 첫 방문 업체로 손꼽았던 곳이다. 그러나 인사 담당자로부터 '우리 회사는 대학 졸업자만 쓴다.'는 말과 함께 일언지하에 거절을 당하고 말았다. 쓰러질 듯 회사 문을 걸어 나오면서 '그래, 당신이 나를 가르치는구나.'하고 중얼거렸던 박윤정 이사장의 회고담은 20년간 두고두고 교직원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또 다른 예. 2003년, 이윤선 2학년 스티리즘 주임교수는 워크숍을 진행하기 위해 'B' 업체를 찾았다. 이 교수의 설명을 들은 회사 관계자는 "우리는 대학이 아닌 학원을 워크숍 파트너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당신을 보고 특별히 수락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의 보고를 들은 박윤정 이사장은 "한 사람의 호의에 의해 진행되는 워크숍이라면 할 필요가 없다. 책임자부터 말단 직원까지 최선을 다해 학생들과 협력할 업체를 다시 찾아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학생들이 선정한 브랜드라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B' 업체와 워크숍을 진행시켰고, 결국에는 학교의 체계적인 업무 진행과 학생들의 높은 작업 수준을 인정한 회사측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참신한 작품을 상품화하여 일반인들에게 판매한 첫번째 워크숍이 되기도 하였다.



part

02

최고의 패션 디자인 교육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01

파리의 패션을 서울에서 배우다



에스모드 파리를 중심으로 한 분교망



ESMOD 창설자 알렉시 라비뉴

ESMOD는 ‘Ecole Supérieure des Arts et Techniques de la Mode’, 즉 ‘패션 고등 예술 기술학교’라는 뜻의 약자로, 나폴레옹 3세의 궁정 복식을 담당했던 알렉시 라비뉴(Alexis LAVIGNE)에 의해 1841년 프랑스 파리에서 창설된 세계 최초의 패션 학교이다. 알렉시 라비뉴는 오늘날 패션인이라면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줄자와 마네킹을 고안한 패션 오브제의 창안자이기도 하다. 또한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상표 등록하고 재단법에 관한 책을 발간하여 유럽의 복식 문화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에스모드의 CI와 인쇄물에 줄자와 마네킹 그림이 있는 것은 에스모드를 창시한 알렉시 라비뉴를 기리는 의미이다. 1976년 폴 두아리누(Paule DOUARINOU)와 아네트 골드슈타인(Annette GOLDSTEIN)이 라비뉴가의 후손들로부터 학교를 인수했다. 2009년 현재는 니노 사토루(NINO Satoru) 회장이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그룹 회장을 맡고 있다.

2009년 현재 에스모드는 14개국 21개 분교라는 국제적 분교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어느 패션 학교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에스모드만의 자랑이다.

에스모드 인터내셔널에서는 매년 분교장 회의를 통해 교육성과를 비교하고 수업 프로그램을 구상한다. 에스모드 파리 본교에서는 전 분교의 교수진들을 대상으로 한 교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분교 간 교환학생제도를 통해 글로벌한 패션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에스모드가 전 세계 패션 스쿨의 대명사가 된 것은 물론 ‘최초의 패션 학교’로서 169년간 쌓아 온 패션 교육에 대한 노하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 에스모드가 전 세계 패션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분교망을 바탕으로 한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네트워크의 힘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SMOD International Network



part

02

최고의 패션 디자인 교육입니다.
이 세계의 모든 디자이너가
다 알고 있습니다.



ESMOD BERLIN www.esmod.de

베를린이 통일 독일의 수도가 되기 전인 1994년 과거 동 베를린 지역에 문을 연 에스모드 베를린은 여성복, 남성복, 런저리, 무대의상 등의 전통적인 전공 외에 1999년 데님 전공 과정을 신설하였다. 독일 굴지의 의류업체인 무스탕 Mustang, Jeans, 시와의 긴밀한 협약하에 진행되는 이 과정은 유럽에서 유일무이한 전공으로 각광받고 있다.

ESMOD BEYROUTH www.esmodbeyrouth.com

1999년 9월 문을 연 에스모드 베이루트는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중심가인 아인 엘-므레세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전공이 개설되어 있으며 레바논 출신의 세계적인 오트 쿠튀르 디자이너 엘리 사브Elie SAAB가 아트 디렉터로 있다.

ESMOD BORDEAUX www.esmod.com

에스모드 보르도는 프랑스 남서부 보르도 시의 고급 상업가 밀집 지역에서 1991년 개교했다. 전통적으로 영국과 교류가 많고, Oxbow나 Quick-silver 등과 같은 유명 상표의 본거지이며, 첨단 CAD 장비업체인 LECTRA와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패션을 배우기에 적합한 환경이다. 2학년 과정까지 개설되어 있다.

ESMOD DAMAS www.esmod-syrie.com

에스모드 다마스는 전통적으로 동서양의 관문이 되어 왔던 지리적 특성을 살려 서로 다른 문화의 혼합과 조화를 존중해 가며, 시리아와 주변국의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시리아 최초의 패션 스쿨로서의 명성을 다져 가고 있다. 3학년에는 여성복 전공반만 개설되어 있다.

FRENCH FASHION UNIVERSITY ESMOD INTERNATIONAL DUBAI

www.french-fashion-university.com

2006년 10월에 개교한 에스모드 두바이는 대학으로 등록되어 있다. 3년 과정의 정규 코스 외에도 2년 과정의 저녁 코스, 선택 아틀리에 코스, 단기 'SOS Couture' 코스 등이 개설되어 있다. 전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 온 50명 남짓한 소수 정예 학생들이 패션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고 있다.

ESMOD JAKARTA www.esmodjakarta.com

인도네시아 디자인 개발 재단의 후원 하에 1996년 9월 문을 연 에스모드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패션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젊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학 협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외국 학생을 포함하여 120여 명의 재학생들이 국제 규모의 콘테스트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

ESMOD LYON www.esmod.com

450년이 넘는 실크 제조와 나염의 역사를 지닌 패션과 텍스타일의 본산지 리옹. 유럽의 남과 북을 이어 주는 도시라는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1991년 개교 이래 유럽 각지로 부터 학생들이 모여들고 있다. 섬유, 의류 산업의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빈번한 신학 협동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서 패션 산업의 전 과정을 배우는 데 이상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다.

ESMOD MOSCOU www.pk-design.com

모스크바 Design and Technology University 내에 에스모드 파리와 연계된 패션 마케팅 석사 과정이 2009년 하반기에 개설될 예정이다.

ESMOD MUNICH www.esmod.de

뮌헨에서 가장 아름답고 활기 넘치는 지역 중의 하나인 게르트너플라츠Gartnerplatz에 자리한 에스모드 뮌헨은 1989년에 개교했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러시아 등에서 모여든 180여 명의 학생들이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런저리 전문 회사인 트라이엠프 사 등 여러 패션 기업과 활발한 산학협동을 벌이고 있다.

ESMOD OSAKA www.esmodjapon.co.jp

에스모드 도쿄가 개교한 지 10년 만인 1994년에 오사카에 에스모드의 두 번째 일본 분교가 문을 열었다. 오사카의 패션 중심지역에 자리한 이 학교에는 현재 240여 명의 학생들이 여성복과 남성복 전공으로 나누어 공부하고 있으며, 인접한 고베 시의 의상박물관과도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다.

ESMOD OSLO www.esmod.no

개교 17년째를 맞는 에스모드 오슬로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특성을 살려 모피 전공반을 운영하고 있다. 노르웨이 모피 업체들이 밀집한 곳. 아름다운 오슬로 항구가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전망이 좋다. 실용성을 중시하는 국민성 때문에 마케팅 분야로 진출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노르웨이 패션 업체들과의 다양한 산학협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ESMOD PARIS www.esmod.com

에스모드 파리 본교에는 해마다 60여 개국에서 천여 명의 패션 지망생들이 모여든다. 정규과정인 스티리즘과 모델리즘의 3년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여성복, 누벨 쿠튀르, 남성복, 아동복, 런저리, 무대의상, 액세서리, 니트 등 총 8개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디자인과 패턴 분야 이외에도 상품 기획, 마케팅, 패션 저널, 홍보 등을 배울 수 있는 패션 비즈니스 코스 ISEM을 함께 운영하면서 패션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세계 최고 패션 학교로서의 명성을 이어 나가고 있다.

ESMOD PEKIN www.esmodbeijing.com

2004년 베이징 시내에서 가장 변화하다는 CBD 비즈니스 센터에 설립된 에스모드 베이징은 중국 정부와 패션 업계, 교육계의 광범위한 지지와 관심을 받고 있다. 16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현재 3학년에는 여성복 전공반만이 개설되어 있다.

ESMOD RENNES www.esmod.com

1989년 문을 연 에스모드 렌네는 프랑스 북서부 대학도시인 렌네의 최고 중심가에 자리 잡고 있다. 바다에 면해 있어 선원들을 위한 스웨터나 기능적 의류를 생산하는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에스모드 보르도와 마찬가지로 에스모드 렌네에서 2학년 과정까지 마친 학생들은 에스모드 파리에서 3학년을 마치게 된다.

ESMOD ROUBAIX www.esmod.com

프랑스 북서부에 있는 에스모드 루베는 루베 섬유업계 인사들의 주도하에 1994년에 개교했다. 기업체는 물론, 경영, 건축, 그래픽 등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주변의 다른 학교들과도 활발한 공동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전공반이 개설되어 있으며 2009년 9월, 에스모드 파리에 이어 두 번째로 ISEM 운영을 준비 중이다.

ESMOD SAO PAULO/SENAC www.sp.senac.br

상 파울로 상공회의소에 속해 있는 에스모드 세낙은 라틴 아메리카는 거대한 시장을 겨냥, 총 500여 명의 입학생들을 받고 있다. 유명 패션 디자이너 알렉산드르 헤르코비치[Alexandre HERCHOVICH]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3년 브라질 학제에 따라 4년제 의상 대학이 된 에스모드 세낙은 남미 대륙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ESMOD SOUSSE www.esmod.com.tn

에스모드 튀니스에 이어 1997년에는 튀니지 제 3의 도시인 수스에도 에스모드 분교가 문을 열었다. 에스모드 수스는 3년 과정이다.

ESMOD SYDNEY www.esmod.com.au

2009년 에스모드의 20번째 분교로 개교한 에스모드 시드니는 영어권 국가에 설립된 최초의 분교이다. 교내에 3,500여 명의 19세기와 20세기의 빈티지, 쿠튀르 컬렉션 전시장을 마련하고 있다.

ESMOD TOKYO www.esmodjapon.co.jp

1984년에 문을 연 에스모드 도쿄는 에스모드의 해외 분교 중에서 가장 오래 되었다. 국제 도시 도쿄에 자리한 학교답게 다양한 국적의 430여 명의 학생들이 국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패션을 공부하고 있다. 에스모드 파리로 유학 가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과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기도 하다.

ESMOD TUNIS www.esmod.com.tn

튀니지의 수도에 위치한 에스모드 튀니스는 2009년 에스모드 서울과 함께 개교 20주년을 맞는다. 섬유와 의류의 주요 수출국인 튀니지는 지중해 연안국가라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패션 산업을 수출 효자 산업으로 키우고 있다.

한국과 프랑스의 가교 에스모드 서울

패션의 본고장 파리의 패션과 문화를 한국에 소개한 공로를 인정받은 박윤정 이사장은 2000년 11월 23일 장 폴 레오(Jean-Paul REAU) 당시 주한 프랑스 대사로부터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문화예술 공로훈장 Chevalier de l'Ordre National du Mérite을 받았다.



에스모드 서울은 프랑스의 패션 교육을 한국에 들여와 전문적인 패션 인력을 양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패션을 중심으로 한국과 프랑스 사이의 문화 교류를 넓히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한불 수교 120주년이었던 2006년에는 에스모드 서울 아르누보 홀에서 패션과 예술세계의 관계를 재조명해 보는 '의상을 넘어서(Au-delà du vêtement)'전을 개최하였다. 주한 프랑스 문화원이 주최하고 에스모드 서울과 한국 알리앙스 프랑세즈가 공동으로 주관한 전시에서는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들이 제작한 18편의 비디오 아트를 상영하였으며, 에스모드 서울 1학년 학생들이 한불수교를 기념해 프랑스와 한국을 주제로 리폼한 티셔츠도 함께 전시하였다.

그 밖에도 한국 주재 프랑스 어권 인사들의 모임인 AFC(Association des Francophones de Corée) 갈라 쇼에서 11회 졸업작품 패션쇼를 선보이는 등 국내 프랑스인들에게 한국의 패션 문화를 알리는 데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불 수교 120주년 기념 '의상을 넘어서(Au-delà du vêtement)' 전시회 (2006.9)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분교장 회의



에스모드 파리에서 열린 분교장 회의 참석자들 (2007.7)

에스모드 인터내셔널은 1990년부터 ‘국제주간(Semaine Internationale)’이란 이름으로 일 년에 한 차례 각 분교 관계자가 모이는 국제회의를 마련하고 있다. 분교장 회의를 통해 여러 분교들의 교육 활동을 공동의 목적에 맞추어 조정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분교장 회의의 논의를 바탕으로 커리큘럼을 수정하거나 개혁 프로그램을 짜기도 하고, 새로운 과정을 개설하기도 한다.

또한 분교장 회의에서는 학생 작품에 대한 비교 평가회를 갖는다. 학년별 스티리즘 작품집과 모델리즘 실물 작품들을 놓고, 각 분교의 교수들은 각기 다른 나라 학생들의 작품을 살펴보고 자국의 교과 과정에 반영하기도 한다.

분교장 회의는 보통 개최국의 졸업작품 발표회와 함께 열리며, 이 때 각 분교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모아 인터내셔널 패션쇼를 연다.

분교장 회의 때 국적이 다른 여러 나라의 학교 행정 책임자들과 교수들이 모이므로 각국의 패션 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국제화 시대에 패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심포지엄도 자주 개최한다. 1991년 도쿄 패션 포럼, 1997년 베를린 심포지엄, 1998년 상 파울로 심포지엄 등이 열렸으며, 1996년 서울 분교장 회의에서는 ‘21세기 패션 교육 방향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열기도 했다. 2008년 11월 ‘산학 협동 콜래보레이션’을 주제로 열린 도쿄 심포지엄에서 에스모드 서울은 YKK한국(주)과의 지속적인 산학협동 사례를 발표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분교장 회의는 1990년, 도쿄에서 처음 열린 이래 파리, 뮌헨, 오슬로, 브라질, 베이루트 등 각 분교마다 돌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에스모드 서울에서는 1996년 2월, 분교장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09년 11월, 개교 20주년을 맞아 두 번째 분교장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에스모드 국제 쇼의 위상

분교장 회의와 함께 열리는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패션쇼는 세계 패션계의 다양한 문화적 특성과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각 나라 패션계의 주요 행사로 자리 잡았다. 저명한 패션계 인사들이 모이는 교류의 장이 되면서 에스모드 교수진들과 전 세계 패션계 인사들이 교류하는 국제 쇼는 에스모드 인터내셔널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이다.

매년 에스모드 분교를 돌며 열리는 국제 쇼는 각국의 패션계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계의 큰 이슈가 되어 왔다. 따라서 각국의 독특한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문화재와 박물관, 또는 가장 트렌디한 장소에서 개최되곤 한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갈리에라 박물관 Musée Galliera, 물랭 루주Moulin Rouge 등에서, 베이루트에서는 문화유적지인 주크 미카엘Zouk-Mikael 야외극장에서, 일본의 경우에는 도쿄의 700년 된 고찰 이케가미 혼몽지에서 열린 바 있다. 국제 쇼에는 패션계 인사뿐만 아니라 각 주최국 도시의 시장 및 대사, 총리 등이 참석한다.



도쿄 분교장 회의 기간 중 열린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패션쇼 (2008.11)

파리 패션계의 주요 행사로 부상한 에스모드 파리 졸업작품 심사



파코라반과 박윤정 이사장 (1990.6)

전 세계 에스모드 어느 곳에서나 졸업작품 심사는 반드시 외부 심사위원단이 말도록 규정되어 있다. 때문에 각국의 심사장에는 패션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대거 모이고 있다. 에스모드 파리 졸업작품 심사는 파리 패션계의 비중 있는 행사 중 하나이며,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란제리, 무대의상, 오트 쿠튀르, 액세서리 등 전공별 심사에는 패션 분야의 유력 인사 170여 명이 참가한다.

최근 심사위원들의 면면만 보아도 급속도로 변화하는 패션 업계의 동향을 빠르게 수용하고 있는 에스모드의 모습을 알 수 있다. 디자이너와 크리에이터 위주로 구성되었던 심사위원들은 최근 패션 유통업계의 힘이 커지면서 갤러리 라파예트, 프랭탕, 콜레트 같은 유명 백화점과 상품기획자들로 확대되었다. 패션과 예술의 콜래보레이션이 늘어나면서 연극, 영화, 음악, 순수미술 등 여러 분야의 아티스트들과 넬리 로디, 페클레르 파리 등 패션 정보업체 컨설턴트들이 심사위원으로 적극 위촉되었다.

에스모드 서울에서도 매년 행사에 참석, 각국의 유명 디자이너들과 교류의 폭을 넓히고 있다. 에스모드 파리의 아트 디렉터를 역임한 카스텔바작 J.C.CASTELBAJAC을 비롯해 파코 라반 Paco RABANNE, 크리스티앙 라크르와 Christian LACROIX, 로메오 질리 Romeo GIGLI, 장클로드 지트로와 Jean-Claude JITROIS, 준코 시마다 Junko SHIMADA 등 세계적인 디자이너 뿐만 아니라 카트린 드뇌브 Catherine DENEUVE 등 유명 배우와의 교류도 이 때 이루어진다. 박윤정 이사장은 넬리 로디 Nelly RODI와 세계 란제리 디자이너의 대모격인 샹탈 토마스 Chantal THOMASS와의 교류를 이어 오고 있다. 샹탈 토마스는 두 차례에 걸쳐 에스모드 서울 졸업작품 심사위원으로 방한하기도 하였고, 패션 정보회사의 대명사 격인 넬리 로디 트렌드 설명회가 한국에서 개최될 때마다 에스모드 서울에서는 트렌드 자료를 입수, 교육에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파리와 동일한 교과과정과 시스템

‘유학 가지 않고 국내에서도 선진국처럼 수준 높은 패션 교육을 실현한다.’는 목표로 설립한 에스모드 서울. 개교 당시 패션 전문학교가 부재한 국내 상황에서 에스모드 서울은 에스모드 파리 본교와 동일한 커리큘럼과 시스템을 구축, 패션 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였다.

스틸리즘과 모델리즘을 똑같은 비중으로 가르치는 기성복 중심의 기업밀착형 교육은 에스모드 전 분교가 동일하며, 에스모드 서울은 교재와 방법론에서 한국 패션 교육의 성공 사례로 명성을 얻고 있다.

169년 전통 에스모드만의 교육 방법론 이외에도 에스모드 서울은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패션 교육을 하고 있다.

에스모드 서울은 빠르게 변하는 글로벌 패션 트렌드와 최신 뉴스가 반영된 고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매년 분교장 회의를 통해 각 나라의 패션 동향과 수업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에스모드 파리의 에브 베르트로Eve BERTERO 스틸리즘 교수는 “마치 14개국에 흩어져 있는 에스모드 분교가 트렌드 정보 회사의 기능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때도 있다.”고 말한다. 국제 분교망을 갖추지 못한 다른 패션 스쿨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에스모드 파리 교수 연수

에스모드 파리 본교의 교수 연수는 세계적인 분교망을 갖추고 있는 에스모드 인터내셔널이 교육 일원화를 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이자, 연수에 참가하는 교수 개인으로서는 국제적인 감각과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용한 기회가 되기도 한다.

에스모드 서울 교수진들의 파리 교수 연수는 개교 초창기부터 시작되었다. 정진숙, 장혜림 등 초기에 임용된 교수들은 3개월 간 연수를 받았다. 본교 교육의 정수를 이어받아 국내 패션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교수마다 본인이 맡을 과정에 대비해 본교 수업에 조교로 참여하는가 하면, 모의수업을 통해 교수법을 익히고, 수업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등 혹독한 프로그램을 소화해야 했다.

1992년, 파리 교수 연수를 다녀온 손영순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파리 본교의 교수 연수 교육은 놀랄 만큼 철저하며, 에스모드 서울은 그 맥을 고스란히 이어 오고 있습니다.” 교육개혁 프로그램을 전수받거나 란제리, 패션 마케팅 등 새로운 전공을 개설할 때는 물론, 교수진의 재충전을 위해서도 파리 교수 연수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에스모드 파리 교수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한 홍인수 교수(좌측 다섯 번째)와 신정숙 교수(우측 세 번째) (2006.7)

더 나은 교육을 향해서

1841년, 남보다 한 발 앞서 미래를 내다본 알렉시 라비뉴에 의해 창설된 에스모드는 새로운 전기를 맞을 때마다 패션 교육계를 선도해 왔다. 1960~70년대에는 패션의 산업화와 세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스틸리즘과 모델리즘을 병행하는 등 시장 현실에 맞는 새로운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던 1999년 9월 에스모드 파리 본교와 유럽 본교권을 시작으로 교육 개혁이 실시되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로 가는 21세기를 맞이하며 패션 교육에서도 기업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이 시급함을 예견하고 교육 프로그램 개편에 들어갔다. 개편안은 프랑스 60여 개의 의류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작업 지시서, 상품 기획서, 스타일화 등을 검토하여 ‘기업밀착형 교육’이라는 에스모드의 근본철학에 좀 더 가까이 가자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아울러 창조적인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는 감성적, 예술적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커리큘럼을 마련했다. 스틸리즘과 모델리즘 두 과정으로 양분되던 강의가 세분화되어 의상 전반에 대한 교양과목이 정규 과정으로 편입되었다.

에스모드 서울에서는 본교에서 실시한 연수를 통해 교육개혁의 취지와 방법론을 적극 수용하였다. 파리 연수에 두 차례 참여하며 개혁 프로그램 실행을 주도했던 스틸리즘 홍인수 교수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축적되어 왔던 에스모드의 교육 내용들이 전 세계 분교 교수진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시 한 번 발전할 수 있는 계기였다. 개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2000년 밀레니엄 시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현장에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다. 아울러 에스모드의 힘은 전 세계 분교망을 통한 글로벌 파워임을 확인하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분교망을 통한 글로벌 교육

패션 교육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전 세계 14개국 21개 분교망을 갖춘 에스모드 인터네셔널. 각국의 에스모드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 중 하나가 바로 교환 학생 제도이다.

에스모드 서울에서는 어학실력을 갖춘 학생에 한해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4주에서 6주간 해외 분교로 교환 학생을 보내고 있다. 학생들은 해당 국가의 에스모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며 다양한 패션 문화를 접하고 외국어를 연마할 수 있다. 해외 분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그대로 인정된다.

1996년 에스모드 베를린에 재학 중이던 한국인 김미나 학생이 에스모드 서울에 교환 학생으로 온 것을 필두로 현재까지 매년 에스모드 서울 학생들과 해외 분교 학생들은 이 교환 학생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매년 에스모드 서울에서는 협찬사의 지원으로 졸업작품 발표회 수상자와 전공별 최우수 수상자에게 해외 항공권 및 숙박권을 부상으로 수여하고 있어 우수한 학생들이 취업 전에 파리, 도쿄, 런던 등 세계 여러 나라의 패션 도시를 견학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졸업작품 수상자들에게는 졸업 후 프레데릭 스트로벨Frédéric STROBEL, 피에르 발만 Pierre BALMAIN, 카스텔바작J.C. CASTELBAJAC, 자카디 아동복Jacardi, 프랑크 소르비에 Franck SORBIER, 상탈 토마스Chantal THOMASS 등 해외 디자인실 본사에서의 연수 기회도 주어진 바 있다.

에스모드 파리 교환 학생

파리 요지 아마모토, 콤 데 가르송 기업 연수를 마치고 - 유민정 (16기 / 갤러리아 백화점 해외사업부 대리)

처음엔 막연한 호기심으로 문을 두드렸는데 그것이 현실화되었다. 에스모드 파리 3학년 마케팅 과정의 교환 학생으로 선정된 것이다. 에스모드 파리 수업 첫날, 담당 선생님은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지 않겠느냐며 걱정을 해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발표 때마다 선생님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져 즐거웠다. 깜깜한 새벽에 일어나 8시간의 수업을 듣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선생님 말씀 하나라도 놓칠세라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끼웠다.

어느 날 교내 게시판을 들여다보던 나는 심장이 마구 고동쳤다. 장 폴 고티에, 존 갈리아노 같은 디자이너와 샤넬, 디올 같은 럭셔리 그룹은 물론 저가의 영 캐주얼 류까지... 인턴십이 활성화된 프랑스로 학생들을 인턴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널려 있었다. 평소에 좋아했던 요지 아마모토 Yohji Yamamoto에 응시했고, 합격 이메일을 받은 순간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커머셜 어시

스턴트로 일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지만, 그 곳에서 진행했던 바이어 쇼룸 작업과 환상적인 여성복 쇼를 나는 잊을 수가 없다.

한국으로 돌아와 3학년 기업 연수를 마친 나는 다시 한 번 파리 디자인실로 해외 연수를 지원했다. 평소 관심이 많았던 콤 데 가르송 Comme des Garçons의 승낙을 얻어 3주간의 힘든 연수를 마쳤다.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인턴십이어야 경력의 된다는 걸 알면서도 무리를 하여 간 것은 남다른 CDG의 기업 운영방식을 가까이에서 보고 그 성공의 비결, 아니 힌트라도 얻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연수를 마치고 나서 그것을 얻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지금은 갤러리아 백화점 해외사업부 대리로서 내가 원하던 커리어를 이어 가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파리 교환학생과 인턴십은 나에게 있어 그야말로 'Dreams Come True' 프로젝트였다.

“두 차례에 걸친
파리 교환 학생과 인턴십은
나에게 있어 그야말로
'Dreams Come True'
프로젝트였다.”



파리 요지 아마모토에서 기업 연수 중인 유민정 동문우측 첫번째 (2006.1)

에스모드 베를린 교환 학생

동양적 감성의 디자인을 찾아서

2007년 새 학기 개강 일에 맞춰 에스모드 베를린 재학생 마리에타 Marietta AURAS, 마리아 Maria KANDZI, 기욤 Guillaume DIQUELOU이 서울을 방문했다. 세 학생은 2학년으로 배정되어 4주간 스틸리즘과 모델리즘 수업을 듣고 한국 문화와 패션 시장에 대한 리서치 과제를 수행했다. 학생들은 4주간의 스틸리즘 수업 시간에 서울의 패션 문화를 주제로 한 트렌드 리서치와 이를 바탕으로 여러 아이템을 디자인했다. 9월에 학기가 시작되는 유럽과 학사일정이 다른 관계로 모델리즘 수업은 특별히 독일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세 학생은 자신들이 디자인해 온 테일러드 재킷을 실물 제작했다.

기욤은 “학생 개개인에 따라 철저히 준비해 오시는 교수님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독일에서 배우지 못했던 입체 패턴까지 꼼꼼하게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을 보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모델리스트 중에 한국이나 일본 등 동양 디자이너들이 많은 이유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세 학생을 가르쳤던 모델리즘 손영순 교수는 “학생들이 디자인한 창작 테일러드 재킷을 가르치면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몇 마디만 주고받으면 금방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졌다.”며 “에스모드 인터내셔널의 엄격한 수업운영이 학생들 몸에 배어 있는 데다가 파리 본교를 중심으로 각 분교마다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실감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에스모드 베를린 교환 학생 세 명의 모델리즘 수업 (2007.3)

세 학생은 학교 수업 외에도 교환학생 기간 중 열린 서울 컬렉션에 참석해 에스모드 서울 동문의 패션쇼를 참관하고, 서울 패션 센터와 동대문 시장, 백화점과 압구정동 로드숍 등 주요 패션 거리를 탐방했다. 또한 전주를 방문, 한옥에 머물면서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하기도 했다. 베를린으로 돌아간 학생들은 “친구들과 친해지고 학교생활에도 적응이 되려던 참에 독일로 돌아오게 되어 무척 아쉽다.”며 “동양적인 감성의 디자인이나 한지섬유 등을 이용한 졸업 작품을 만들고 싶다.”고 전해 왔다.

분교 교환 학생 외의 외국인 단기 수강자들



차이나컵 수상자 이준 좌측 두 번째 (2006.7)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교환 학생 이외에도 에스모드 서울에는 다른 경로를 통해 단기 수강을 하는 외국인 학생들도 있다. 에스모드 서울에서는 2005년 이래 중국 패션 협회 주최로 상해에서 열리는 차이나컵 콘테스트 수상자에게 에스모드 서울에서 1년 간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상으로 주고 있다. 첫 수혜자로 중국 난징 아트 인스티튜트 패션 디자인 스쿨을 졸업한 이준*이 2006년 에스모드 3학년 과정을 이수하고, 여성복 졸업작품 컬렉션을 발표하였다. 에스모드 서울 수료증을 받은 이준은 “학생의 디자인 세계를 존중하는 일대일 대면 수업이 특히 인상 깊었다.”며 “진심을 담아 소중히 아이를 키우는 '제2의 어머니'같은 학교로 에스모드 서울을 기억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2009년에는 화남대 의상 디자인 학과를 졸업한 또 다른 차이나컵 수상자인 황문의*이 에스모드 서울 3학년 여성복 전공 과정에서 수학하고 있다.

02

반쪽짜리가 아닌 진정한 패션 디자이너로

의상 디자인과 패턴 디자인 병행 교육

에스모드 서울의 교육이 다른 패션 교육 기관과 비교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의 하나가 스틸리즘과 모델리즘, 즉 의상 디자인과 패턴 디자인의 병행 교육이다.

설립자 박윤정 이사장이 에스모드와 분교 협약을 맺기로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바로 이 점이었을 만큼 에스모드 서울에서는 전방위적 패션 전문인 육성을 위해 스틸리즘과 모델리즘을 같은 비중으로 가르치고 있다.

흔히들 '패션' 하면 떠올리는 스타일화 위주의 디자인 교육만을 가지고는 반쪽짜리 디자이너만 양산할 뿐, 제대로 된 옷을 만드는 프로로 키워 내기엔 역부족이다. 게다가 우리의 복식 전통과는 판이하게 다른 서양 복식을 제작하는 데 모델리즘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에스모드 서울 설립 초기에는 모델리즘까지 의무로 배워야 하는 힘든 과정을 피하여 스틸리즘 단과 과정이 있는 파리 본교로 유학 가는 학생들도 있었다.

스�틸리즘과 모델리즘 두 과정을 동시에 이수해야 하는 에스모드 서울 학생들은 주당 30시간의 수업과 이에 부과되는 과제를 위해 3년간 힘든 학업생활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졸업 후에는 옷을 디자인할 줄만 알지 만들지 못하는 디자이너가 아닌, 실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프로 디자이너로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박윤정 이사장 회고

스틸리스트냐, 모델리스트냐?



수트 차림의 디자이너 박윤정 (1966)

대학 졸업 후 노라노 의상실에서 굿은일을 마다 않고 시장통과 공장을 오가는 밑바닥 일부터 책임 디자이너가 되기까지 10년간 패션 디자이너로 일한 박윤정 이사장. 디자이너가 되려는 욕망이 강했던 박 이사장은 하와이에 “House of Nora Noh”가 열리게 되자 그곳에서 오프닝 쇼를 마치는 대로 뉴욕으로 건너갈 계획을 세웠다. 뉴욕에 건너가 한 의류업체에 면접을 보러 갔을 때의 일이다. 국내에서 10여 년 간 의상에 대해서는 배울 만큼 배웠다는 자신감으로 당당했다. 하지만 처음으로 찾아간 미국 회사 인사 담당자의 첫 질문을 듣고 박 이사장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당신은 스틸리스트(디자인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델리스트(옷의 패턴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박 이사장의 대답에 면접관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다시 “당신은 무슨 분야를 전공했느냐?”고 물었다. 10년간의 직장 생활을 통해 만들어 보지 않은 옷이 없을 정도였던 박 이사장의 다채로운 경험이 미국 사회에서는 오히려 세분화되지 않은, 전문성이 결여된 잡다한 기술로 평가절하되는 순간이었다. 다행히 입고 있는 옷을 손수 만들었다는 말과 자신만만한 동양 아가씨의 태도에 면접관은 합격 점수를 주었지만, 박 이사장은 이 일화를 한국의 전문적이지 못한 패션 교육을 뼈저리게 느낀 순간으로 기억한다. 한국 패션 교육의 낙후성을 체험한 박윤정 이사장은 이 때부터 전문화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 훗날 에스모드 서울을 창립하게 되는 계기로 삼는다.

인터뷰

에스모드 서울 졸업생 채용한 디자이너들

오은환 디자이너

에스모드 서울 학생들을 채용해 보면 다른 대학이나 학원에서 공부한 학생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패션 공부를 3년을 했다면, 사실 에스모드 서울 학생들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다른 학교 출신들이 제대로 못 배운 것일지도 모르겠다.

에스모드 서울 졸업생들은 실무 2년 차 이상 경력자들과 동등하다고 할 수 있다. 잘 교육된 학생들을 받아 보면 그 우열의 차이를 실감할 수 있다.

에스모드 졸업생들의 또다른 점은 '디자이너가 될 각오'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 처음에 입사를 하게 되면 단순 업무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에스모드 졸업생들은 아주 작은 곳으로부터 철저히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남다르다. 입사 때부터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에스모드 서울 졸업생들은 실무 2년 차 이상 경력자들과 동등하며, 잘 교육된 학생들을 받아보면 그 우열의 차이를 실감할 수 있다.”

정구호 제일모직 상무

에스모드 서울 졸업생들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트렌드를 접할 때 느껴지는 기대감이 생겨난다. 그리고 그것은 어긋나지 않는다. 에스모드 서울 졸업생들은 단순히 디자인을 한다기보다 과감한 실험정신으로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완성도 높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낸다. 그들은 나에게도 많은 영감과 도전심을 불러일으키는 재원들이다.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단순한 믿음과 책임감을 떠나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일이다.

나 역시 에스모드 서울에서 개설한 전문인 입체재단 강좌를 들었던 경험이 있다. 그것은 그 동안 내가 알고 있던 스킬에 응용력과 전문성을 더해 주었으며, 패션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심어 준 중요한 교육이었다. 이미 에스모드 서울 출신의 정욱준 디자이너가 세계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지만 머지않아 더 많은 에스모드 서울 졸업생들이 세계가 인정하는 디자이너로 배출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에스모드 서울 졸업생들은 단순히 디자인을 한다기보다 과감한 실험정신으로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최초로 세부 전공제 실시

에스모드는 국내 패션 교육 기관으로서 유일하게 복종별 전공제를 채택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란제리 등 네 개의 전공이 개설되어 있으며, 3학년이 되면 이 가운데에서 자신의 전공을 정하게 된다. 최종 학년인 3학년은 하나의 주제에 대한 연구와 개인의 컬렉션 창작에 바쳐지는 과정이다. 때문에 1, 2학년에서 이미 습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여 더욱 전문화된 지식과 기술을 터득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하게 전공 프로그램이 짜여 있다.

각 전공별로 톱 디자이너들의 메인 라인, 세컨드 라인, 액세서리 라인, 홈 인테리어 등 작업방식에 대한 집중 연구를 통해 학생들은 한 가지 테마를 일관성 있으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시키는 능력을 키우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창의적인 졸업 컬렉션을 발표하고 있으며, 기업에서도 바로 실무에 투입되어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에스모드 서울은 설립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패션 시장의 다변화에 따라 전공분야를 신설하거나 정규 프로그램에 편성하기도 했다. 그 추이를 살펴보면 에스모드의 교육이 시장의 변화에 발맞추고 기업에 부응하는 인재 육성에 목표를 두고 있음을 알게 된다.

에스모드 서울에서는 첫 신입생이 3학년이 되던 1991년부터 세부 전공제를 실시하여, 여성복 전공자 73명, 남성복 6명, 아동복 2명이 첫 전공 타이틀을 달고 졸업을 했다. 이 당시에는 남성복과 아동복이 합반 수업을 했으나 이듬해부터는 남성복 전공을 단독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남성복 전공 졸업생들이 대거 남성복 디자인실로 진출하고 남성복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탄탄한 취업망이 갖춰지기 시작했다. 1999년 3학년 과정에 마케팅 전공이 개설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업종에 관계없이 패션 업계 전반에 걸쳐 마케팅이 중요해짐에 따라 2008년 3월부터 마케팅 전공을 폐지하고 이를 2학년 교과목 안에 포함시키는 등 에스모드 서울은 패션 업계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탄력적인 전공제 운영을 하고 있다.

2002년부터는 란제리 시장이 확대되면서 보다 전문적인 인력이 요구되었다. 에스모드에서는 란제리만이 갖고 있는 섬세한 디자인과 봉제의 전문성 등 체계적인 실무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 패션 교육기관 최초로 란제리 전공반을 개설하였다.

란제리 전공 교수의 소회**보이지 않는 아름다움, 란제리** - 오세향 교수

란제리는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겉옷의 실루엣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얼핏 단순해 보이지만 브라지어에 들어가는 소재만 해도 무려 스무 가지가 넘습니다. 부자재가 굉장히 다양하고 봉제법도 특수하기 때문에 일일이 분해해서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란제리 디자이너의 경우 디자인부터 패턴 능력까지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스틸리즘과 모델리즘을 병행 교육하는 에스모드의 교과 과정은 란제리 전공에서 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란제리 피팅 작업을 하면서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들도 있지요. 속옷은 인체와 가장 밀착되는 것이니만큼 착용감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브라지어나 팬티를 입어 보아야 하는데 오랜 동방예의지국의 후예들에게는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학생들이 몸매를 드러내는 걸 얼마나 썩스러워하는지 결국 첫째 가봉은 전문 모델들을 데려다가 써야 했습니다. 지금은 좀 나아져 피팅 작업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졸업 발표회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전공에서는 모두 재학생들이 모델로 나서지만 란제리 컬렉션만큼은 전문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란제리 전공반이 처음 기업 연수를 시작할 때 참 힘들었습니다. 란제리 업계는 폐쇄적이고 보안이 철저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전화로는 약속을 잡아 주지 않아서 이윤선 스틸리즘 교수와 함께 찾아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렵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설명을 채 하기도 전에 연수를 거절하는 디자인 실장, 연수 협약서에 회사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인사 담당자도 있었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연수 첫째에 (주)남영비비안, (주)좋은사람들이, 이듬해에 (주)신영와코루 등이 연수생을 받아 준 일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특히 제일 먼저 연수를 흔쾌히 수락해 준 (주)좋은사람들의 신선주 부장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처음엔 힘들게 문호를 열었던 기업들이 이제는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 주고 있습니다. 바쁜 가운데도 졸업 심사에 응해 주고, 현장 실무교육을 해 주는 등 란제리 기업들의 아낌없는 지원은 산학 협동의 표본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두 에스모드를 거쳐 기업체에 취업한 졸업생들이 아무지게 일을 해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해지곤 합니다.

전공제가 가져다 준 선물

여성복 전공

최은진 (8기 / McGinn Knightbridge 디자인실 팀장, Fiveheads 6ixfingers 브랜드 운영)

에스모드 서울은 내 자신이 가지고는 있었지만 알지 못했던 능력을 꺼내어 준 곳입니다.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입학했지만 1, 2학년 때까지는 타이탄한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것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3학년 때 여성복을 전공으로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훨씬 더 즐겁게 작업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모드에서는 옷을 표현하고 만들 수 있는 기초 지식뿐만 아니라 전공제를 통해, 현재 팔리고 입는 옷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해서 표현해 내고 만들어 봄으로써 옷을 통해 소통하는 방법과 옷을 사랑하는 방법까지 알게 해 주었습니다.

디자이너? 생각하면 꿈과 같은 직업이지만 옷이라는 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지킬 수 없는 아주 힘든 직업입니다. 패션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만으로는 절대 뛰어난 디자이너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늘 촉각을 세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풍부한 감성이 필요합니다. 저는 에스모드에서 이러한 감성을 가꾸었고, 졸업 후 지금까지 계속 여성복 브랜드에서 일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에스모드 동문인 남편, 손형오(코오롱 Customellow실장)와 함께 Fiveheads 6ixfingers 브랜드를 론칭해 또 다른 소비자들과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남성복 전공

김다인 (5기 / 토틀이 코모도 실장)

일반 대학과 달리 에스모드에서는 3학년 때 전공을 정하여 1년간 심화학습을 하게 됩니다. 제게는 그 1년 동안의 전공 과정이 직업 인생의 반 이상을 결정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남성복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3학년 여름 방학 동안 인턴십 과정을 거쳤던 제일모직에서도 전공제의 효과를 톡톡히 보았습니다. 국내 유수의 여러 대학에서 졸업을 앞둔 학생들과 함께 선발되어 교육을 받는데, 다른 친구들이 어렵게 느끼는 연수 과정이 내게는 너무도 쉬웠습니다. 평소 학교에서 준비해 온 남성복 과정이 실제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콘셉트를 잡고 디자인하고 원단을 선택해 샘플 제작에 이어 품평회를 거치는 것 역시 학교에서 배운 과정과 너무도 똑같았습니다. 경력이 쌓여 갈수록 더욱 빠른 속도로 일을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1999년, 경력 5년 차에 팀장이 되었습니다.

에스모드 교육의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는 패턴 교육입니다.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패턴 교육을 실시하고 있긴 하지만 에스모드만큼 정교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디자인한 옷의 남성복 샘플이 나왔을 때 수정하고 보정하는 제 능력에는 에스모드 패턴 교육의 힘이 크게 스며 있습니다. 남보다 패턴을 보는 이해력이 높았기 때문에 더욱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복 전공

오승규 (12기 아동복 전공 / 퍼스트어패럴 티파니 디자인실)

3학년 때 전공 선택을 앞두고 여성복과 아동복을 두고 고민하던 차에 아동복을 하는 남자 디자이너가 없다는 말을 듣고 '내가 한번 해보자.'는 도전의식이 생겼습니다.

아동복은 1, 2학년 때 배웠던 여성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각 연령대별로 사이즈도 다르고, 디자인도 달랐습니다. 흔히 아동복은 성인복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지만 연령마다 다른 아동들의 기호와 트렌드를 접목시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 내는 일은 여간 힘들지 않았습니다.

전문 지식을 갖춘 교수님의 지도 아래 디자인을 하고, 실물 제작을 해 보면서 여성복과는 다른 아동복만의 독특한 매력에 빠졌습니다. 막연했던 도전의식이 필연적인 선택처럼 여겨졌습니다. 3학년 졸업작품 심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고, 취업도 원하는 곳에 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모드의 아동복 전공제 덕분에 신입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비전 공자들보다 업무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빨랐고, 스타일 제시도 적절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아동복 패턴을 따로 공부했기 때문에 패턴 실장님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보다 완성도 있는 옷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에스모드 서울에서 배웠던 아동복 전공수업은 오늘날 아동복 디자이너로서의 제가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동복을 배우고 싶은 분이 있다면 에스모드 서울에서 아동복을 전공하라고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란제리 전공

정난희 (13기 란제리 전공/ 이랜드월드 에블린 디자인실)

처음 에스모드 서울에 입학했을 때, 저는 여성복 디자이너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학년 말에 우연히 '에블린'이라는 브랜드를 알게 된 다음 란제리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란제리는 국내 대학에서도 자세히 가르치지 않고 있던 전문 분야였습니다. 스틸리즘과 모델리즘도 새롭게 배워야 할 요소들이 많아서 좀 더 전문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전공을 결정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스틸리즘에서는 여성복과 속성이 다른 란제리를 기능성과 창의성을 조화시키면서 디자인하는 법을 배웠고, 모델리즘에서는 인체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파운데이션 패턴의 원리 등을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3학년 때 기업 연수를 받았던 에블린에서는 그 동안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란제리 전공의 결산인 졸업작품은 내게 또다른 기회를 안겨 주었습니다. 파리의 저명한 란제리 디자이너 상탈 토마스 선생님의 심사를 받아 3개월 간 파리 연수를 가게 된 것입니다. 상탈 토마스사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은 매우 값진 것이었습니다. 바쁘게 일하면서 때론 지치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늘 에스모드에서 란제리를 전문적으로 배웠다는 자부심이 어깨를 세워 주곤 합니다.

교양과목과 특별주간 특강

교양과목

교양과목은 교양필수 과목과 교양선택 과목으로 구성된다. 전공필수 과목은 에스모드가 지향하는 패션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필수적인 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다. 교양과목은 전공과 관계 없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초적인 소양 교육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 현장의 흐름에 주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디자이너가 갖추어야 할 새로운 덕목 및 예술적 감성이 요구되면서 점차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개혁 프로그램이 실시됨에 따라 특강 형식으로 이루어지던 일회성 강좌들이 정식 교양과목으로 채택되어 주로 2학년에 집중되어 있다.

2009년 현재 교양필수 과목으로 텍스타일, 서양복식사, 소재개발, 마케팅 개론, VMD, 커뮤니케이션, 프랑스어, 한국전통문화 특강이, 교양 선택 과목으로 입체 재단, 일러스트레이션, 스틸리즘 캐드, 마케팅 기획, 니트, 천연염색 등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2007년부터 개설된 한국전통문화 특강은 다소 이색적이지만 의미심장하다. 파리에 본교를 둔 169년 전통의 에스모드 패션 교육에 한국적인 전통 미학을 접목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이다. 한국전통문화 특강에는 한국복식, 한국건축 등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초빙하고 있다.



천연 염색 수업



메이크업 특강



워킹 특강

특별주간 특강

에스모드 서울에서는 1년을 7세강스séquence로 나누며, 1세강스는 5주로 구성되어 있다. 5주간의 세강스가 끝나면 1주일의 특별 주간이 이어진다.

이 때 정규 교과 과정에서는 들을 수 없는 특강이 이루어지는데 학생들의 인성과 장래 디자이너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증진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메이크업, 워킹, 트렌드 설명회, 사진 특강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듣기도 하고, 의류 공장이나 직물 공장 등을 견학하기도 하며, 패션에 도움이 될 만한 전시회나 패션 쇼, 공연 등을 관람하기도 한다.

1학년 대상의 메이크업 특강은 1990년부터, 1학년 대상의 워킹 특강은 1991년부터 시작된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다. 학생들은 메이크업과 워킹 특강을 통해 패션 전공자로서의 자세와 용모를 갖추고, 배운 내용을 1학년 셔츠 미니데필레와 졸업작품 쇼를 준비할 때 유용하게 활용한다.

3학년 대상의 전공별 공장 견학은 해마다 섬유, 패션 관련 업체들의 생산 현장을 직접 살펴봄으로써 취업 후 업무 현장에 순발력 있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취업 특강은 취업을 앞둔 학생들의 비상한 관심 속에 유명 디자이너, 기업체 대표, 대기업 인사 담당자 등 현장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디자이너가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과 자세, 취업 시 면접 요령 등 실제적인 내용을 배우고 있다.

그 밖에도 패션 사진 촬영기법 특강이라든가, 트렌드 설명회 등 다채로운 특강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별주간은 학생들로 하여금 장차 패션 전문인으로서 필요한 교양과 감각을 익히도록 돕고, 교수들에게도 재충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 정규 교과 못지않게 에스모드의 중요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실무 경험 많은 에스모드 서울 교수진

에스모드의 교육목표는 기업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문 인재양성에 있다. 이에 따라 교수 채용에 있어서도 기업현장 경험이 가장 큰 요건으로 작용한다. 오랜 현장 경험은 대학의 박사학위에 버금가는 권위를 갖기 때문이다.

현장 중심의 교과 과정을 운영하려면 기업체에서 오랫동안 실무 책임자로 일한 사람이어야만 한다. 현장 경험에서 얻은 실제적인 업무지식과 상황에 따른 문제해결 능력을 구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현장 견학 기회와 기업 연수, 워크숍, 취업 등 다양한 패션 업계와의 콜라보레이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에스모드가 제시하는 교육 이념에 투철한 교수만이 에스모드 본교의 정통성을 지켜가며, 에스모드의 교육 프로그램을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박윤정 이사장의 믿음은 20년간 변함없이 철칙처럼 지켜지고 있다.

에스모드 서울은 원칙적으로 전임교수제로 운영되며, 신입 교수는 임용에 앞서 파리 본교 혹은 서울에서 교육을 받는다. 이 기간 동안 자신이 맡게 될 과정에 관한 교재 및 전공에 따른 개별 강의 연구와 교수법, 수업 운영 등에 관해 3~6개월간 집중적으로 연수를 받는다.

교육의 성과는 교수진의 역량에 좌우된다는 신념하에, 우수한 교수진 확보 및 기존 교수진의 재교육에 에스모드 서울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년간 교수진에 다소의 변동이 있긴 했지만, 우수한 교수들을 꾸준히 확보할 수 있게 되어 2009년 6월 현재 전임 교수는 프랑스인 교수 2명을 포함, 스틸리즘 교수 10명, 모델리즘 교수 11명, 봉제담당 교수 3명과 2명의 통역 교수가 교육에 전념하고 있다.

에스모드 서울 역대 교수진 명단

현직

스틸리즘 | 서호성 신정숙 심혜원 이윤선 장혜림 천향아 허미혜 홍인수 Guillaume OGER, Olivier GRILLOT

모델리즘 | 고지영 김윤정 김은희 김필수 손영순 오세향 이주영 임경순 정선혜 정진숙 최은영

봉 제 | 박선옥 이성자 한미숙

통 역 | 임보경 정현지

퇴직

스틸리즘 | 김영선 박성민 설영림 송지오 진성모 채희정 최용숙 Anne-Sophie LOUIS, Betty GODARD,

Catherine CARLONI, Eve BERTERO, Jean-Marc TREVISE, Natalia BREDIN,

Niai SIAKHACHANH, Sandrine AMMAR, Vélerie HUMBERT

모델리즘 | 민경주 박경진 백미숙 양경희 이성희 이옥섭 이희정 하수환 Ida BOUCHER, Isabelle SICAUD

봉 제 | 이분남

통 역 | 곽은하 문은숙 박나연 박미혜 이경은 이혜영 전병미 정강자 조혜나 최희경 한소영

part

02

최고의 패션 디자인 교육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 교수 기고문 : 에스모드 서울에서의 추억

에스모드 서울을 잊을 수 없는 이유

에브 전-베르트로 (Eve CHUN-BERTERO / 현 에스모드 파리 교수)

나는 1991년 새 학기가 시작될 때 한국에 도착했다. 처음에는 내가 살아온 것과 다른 환경에 적응하느라 다소 힘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 생활은 내게 정신을 열어 주었고, 차이를 받아들이는 관용을 가르쳐 주었다. 한국 사회의 위계와 전통을 이해하게 되었고, 세심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박윤정 이사장님과의 만남은 잊을 수 없다. 이사장님은 누구에게나 예의를 갖추고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지혜로운 분이셨고,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셨다. 누구보다 패션을 사랑하며, 한국의 크리에이션을 모던하고 혁신적으로 재창조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셨다. 내가 혁신과 엄격함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모두 이사장님께 배운 것이다. 에스모드 서울과 교직원에 대해서도 참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예의바른 학생들에 대한 추억도 빼놓을 수 없다. 그 학생들이 지금은 디자이너, 크리에이터, 교수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될 때마다 참 기쁘다.

한국에서 내가 제일 좋아했던 건 전통과 현대의 극단이 공존하는 한

국의 건축양식이었다. 왕복 8차선 도로 옆에는 뽕뽕뽕한 좁은 골목길이 나 있고, 초현대식 백화점 옆에 동대문과 남대문이 서 있는 이 묘묘한 조화. 한국에 있는 동안 나는 수많은 사찰과 민속 박물관을 찾아다니며 한국의 전통 문화에 관심을 기울였다. 한국은 상징이 가득한, 보고 또 보아도 항상 탐구할 거리가 많은 풍부한 예술작품을 가진 나라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한국을 잊을 수 없는 이유는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남편 전범준을 만난 곳이 바로 에스모드 서울이기 때문이다. 에스모드 서울의 교수와 학생으로 만난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올해로 서로를 알게 된 지 벌써 16년째가 된다. 우리는 2005년 한국에서 전통혼례로 결혼했고, 레미와 루이는 벌써 11살과 7살이 되었다. 준과 나는 우리의 첫 만남과 서울에서의 생활을 자주 회상한다. 에스모드 서울에서의 추억은 우리에게 언제나 '아름다운 이야기'로 그려진다. 이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선사해 준 에스모드 서울에 감사드린다.



“에스모드 서울에서의 추억은 언제나 ‘아름다운 이야기’, 나에게 아름다운 인생을 선사해 준 에스모드 서울에 감사한다.”

고향보다 자주 찾는 한국

카트린 카를로니 (Catherine CARLONI / 현 에스모드 보르도 교수)

한국은 내가 체류했던 여러 나라들 중에서 가장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 곳이다. 나는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분교 교수로서 노르웨이 에스모드 오슬로에서 에스모드 서울로, 브라질 에스모드 세낙을 거쳐 다시 에스모드 서울로, 일본 에스모드 오사카로 갔다가 다시 서울행 비행기를 타고 세 번째로 에스모드 서울에서 일했다.

타국에서 일하다가 임기가 끝나면 고향인 프랑스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텐데, 나는 어쩌서 매번 한국으로 돌아갔던 것일까? 1993년, 처음 도착한 서울은 전통과 문화 모든 것이 너무나 생소해서 마치 다른 행성에 불시착한 것 같았다.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나는 '교수'이기 이전에 '외국인'으로 간주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첫번째 주가 지나자 학생들은 외국인 교수에 금세 적응했다. 나는 한국 학생들의 넘치는 에너지와 적극성,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유머 감각에 매번 새롭게 놀랐다.

세 차례에 걸친 서울에서의 교수 생활을 통해 내 삶은 그전보다 훨씬 풍요로워졌다. 나는 아직도 문득문득 에스모드 서울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그립다.



한국 패션계의 아방가르드

나탈리아 브르덴 (Natalia BREDIN / 프랑스 패션 정보 컨설팅 회사 'Trendis' 대표)

1989년 9월, 한국에 프랑스 패션 학교를 연 박윤정 이사장은 다음의 세 가지 이유에서 한국 패션계의 아방가르드라고 생각한다.

첫째, 에스모드 스쿨의 이념과 철학을 매우 빨리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간파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당시로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역에 학교를 세웠다는 점이다. 이제 에스모드 서울이 들어선 신사동 일대는 패션과 예술에서 가장 첨단인 거리가 되었다.

세 번째 이유는 프랑스 교수를 과감히 임용했다는 점이다. 그 당시 한국에서 외국인 현지 교수를 기졌다는 것은 차별화된 일이었지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다소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스틸리즘 교수로서 에스모드 서울에 부임해 온 나에게 주어진 미션은 한국 학생들에게 패션의 분위기를 이해시켜 주는 것이었다.

나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사고와 창의적인 능력을 마음껏 발산하게 해 주었다. 20년이 지난 요즘, 내가 가르쳤던 에스모드 서울의 졸업생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볼 때, 각종 매체를 통해 패셔너블한 한국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에스모드 서울의 교수였던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part

02

최고의 패션 디자인 교육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기특별강좌

에스모드 서울에서는 정규과정 이외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매년 여름 하기특별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에스모드 교육 방식 그대로 단기간에 스틸리즘과 모델리즘 등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기획된 하기특강 과정은 에스모드 교수진에 의해 개별지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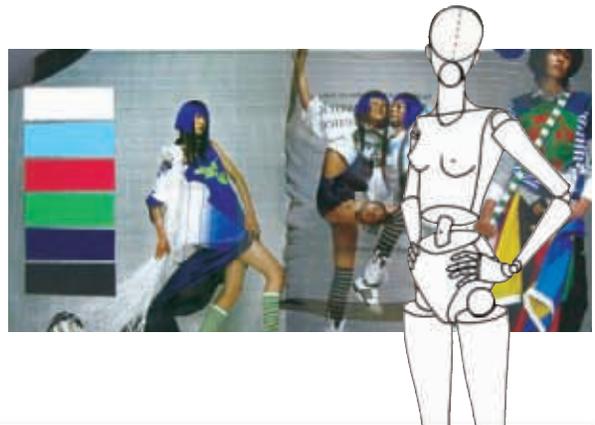
에스모드 인터내셔널의 독특한 실무 중심 패션 교육을 경험하길 원하는 패션계 종사자나 패션 관련학과 및 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주로 수강하고 있으며, 에스모드 서울의 3년 정규 과정에 입학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수강하는 경우도 있다.

1998년부터는 하기특강에서 스틸리즘과 모델리즘을 병행 수강한 학생에 한해 1학년 2학기 편입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 제도는 1년에 한 번 신입생을 모집하는 에스모드 서울의 입학 시기를 놓친 지원자들이 시간을 만회하거나 적성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대학 패션 디자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여름 방학을 이용해 에스모드의 하기특강 초급과 중급 과정을 2년에 걸쳐 수강하는 등 대학의 패션 실기 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실력을 쌓는 경우도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 고민하고 미래를 위해 체계적인 준비를 해 나가는 성숙한 학생들이 늘면서 디자이너의 꿈을 가진 중학생과 고등학생 지원자들의 등록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에스모드 서울에서는 2008년 그 동안 스틸리즘과 모델리즘 초급과 중급으로 나뉘어 있던 하기특강 과정에 패션 디자인 체험과정을 신설했다. 패션 디자인 체험과정은 2주에 걸쳐 스틸리즘과 모델리즘의 가장 기초적인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자신의 적성을 테스트해 보려는 지원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하기특강은 대개 6월 초에 이메일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접수 첫날 모든 강좌가 마감되는 등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 지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나의 인생 향로를 바꾼 하기 특강

- 채은하 (10기 / 1998년 하기특강 수강자, 'Chaeunha' 디자이너)

1998년 여름, 딸아이를 놀이방에 맡기게 되자 모처럼 갖게 된 내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었다. 그 때 눈에 띈 것이 바로 에스모드 서울의 하기특강 광고였다. 가족들이나 내가 입을 간단한 옷 정도나 만들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학교를 찾았다.

비록 취미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평소의 지론에 따라 하기 특강에 개설되었던 교육과정을 모두 신청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특강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밤을 새우기 일쑤였다. 하지만 나의 잠재된 능력이 깨어나는 쾌감도 함께 느꼈다. 하기특강이 끝나갈 무렵 나는 또 다른 고민에 휩싸였다. 에스모드 서울에 편입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패션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고 있던 나는 선택의 기로에서 망설였다. 그러나 남편의 지원으로 1학년 2학기에 편입한 나는 열 살 차가 나는 동급생들과 주경야독을 시작하게 되었다.

에스모드의 수업은 학생들의 개성을 이끌어 내면서 근성을 키워 주는 독특하고 능률적인 것이었다. 과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단이나 부자재 시장에도 다리품을 팔아야 했는데 이것은 졸업 뒤에 일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 자산이 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토요일 날, 다섯 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동대문 시장에 데리고 갔다가 잃어버리고 시장 바닥에 앉아 울던 일, 3학년 2학기가 시작되면서 둘째를 출산한 일 등 웃지 못할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다.

때론 우연처럼 다가온 일들이 필연이 되곤 한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에스모드의 하기 특강은 나의 인생 향로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대학에서 동양화를 전공한 나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어 붓 대신 바늘로 또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해외 전문인 초청 입체재단 세미나

에스모드 서울에서는 해외 전문인을 초청, 유럽의 선진화된 모델리즘을 국내에 소개하는 특강을 열어 왔다. 에스모드 서울과 파리 본교는 강사와 강의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수정에 수정을 거쳐 강의 계획안을 마련했다. 1993년 처음으로 시작된 ‘해외전문인 초청 입체재단 세미나’는 총 8회에 걸쳐서 개최되었다. 1회와 2회 때는 에스모드 파리에서 오트 쿠튀르를 담당하는 미셸 몽사라 Michèle MONSARRAT 교수가, 3회와 4회 때는 프레타 포르테 전공의 베로니크 부스케 Véronique BOUSQUET 교수가, 5회에서 7회까지는 세계 우수 디자이너들의 컬렉션 제작 경험이 풍부한 질리앵 크리스토폴리 Julien CRISTOFOLI 씨가, 8회에는 노에미 르비보 Noémie REBIBO 교수가 강의를 맡았다.

수강자들의 면면을 보면 국내 패션 업체에 종사하는 중견 모델리스트는 물론 각 대학 의상관련학과 교수와 강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어 특강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업체 대표가 회사 소속 모델리스트와 함께 수강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으며, 제작들을 이끌고 단체로 참여하는 연구과 교수들도 눈에 띄었다. 외국에 가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유럽의 최신 패턴 기술을 접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한번 접한 수강자들이 여러 해에 걸쳐 지속적으로 참석하는 경우도 많았다.

패션 업계와 학계 간 산학 협동의 본보기가 된 해외 전문인 특강은 IMF 때에도 수강자들이 몰려 비좁은 강의실에 맞추어 인원수를 제한하느라 애를 먹기도 했다. 한 달 동안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주 5일 간 진행되는 벅찬 일정이지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열의를 보였다. 지방에 거주하는 수강자는 매일 비행기 편을 이용하거나, 서울에서 하숙을 하기도 했다.

한편 1998년에는 한국 섬유산업 연합회가 ‘생활산업 기술력 향상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패턴 기술 진단 지도사업’을 에스모드 서울이 위탁받아 기업 진단을 시행하였다. 그 해에 입체재단 특강 초청강사로 내한한 질리앵 크리스토폴리가 4개 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패턴 기술의 문제점들을 진단, 지도하였다. 기업진단 결과를 토대로 에스모드 서울은 고급 의류의 패턴 기술 문제점과 취약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신소재 패턴 기법에 대한 시범을 보여 주는 값진 시간을 가졌다.



미셸 몽사라의 제2회 특강 (1994)



베로니크 부스케의 제4회 특강 (1996)



질리앵 크리스토폴리의 제6회 특강 (1998)

유럽의 선진 입체 재단 기술을 서울에서 배우다

- 손희순 (숙명여대 의류학과 교수)

1993년 7월 에스모드 서울에서 '해외 전문인 초청 입체재단 세미나'를 개설하였다. 우리나라 패션 산업계 및 학계에 패턴 특히 입체재단의 중요성이 막 부상하는 시기였다. 의복의 패턴 제작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방학마다 해외를 드나들던 나로서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더 이상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유럽의 선진 입체재단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대학원생들과 함께 연수에 참여했다.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초청강사로부터 최신 기법의 입체재단 강의를 전수받는 강의실에는 배움의 열기로 가득 찼다. 박윤정 이사장님을 비롯한 에스모드 교직원들의 아낌없는 봉사를 받으며 4주간 국내 어디서도 접할 수 없는 훌륭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1회 특강을 마쳤지만 나에게 입체재단 특강은 비로소 시작이었다. 그 후 8년 동안 8회의 특강에 빠짐없이 참석하게 된 것이다.

해마다 여름이면 설렘으로 기다리던 특강이 일상화될 즈음, 더 이상의 후속 강의를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참 섭섭했다. 8년 간 강의를 함께 들었던 수강자들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사실도 서운했다. 그러던 1999년 6월, 전국 의복구성 전공 교수 20여 명이 모여 '한국 모델리즘 산학교수협회'를 발족시켰다. 이 협회는 다음 아닌 에스모드 서울의 '입체재단 세미나'에 참가했던 교수들이 주축이 된 것이다.

에스모드에서의 특강이 끝나갈 무렵 나는 속으로 다짐했었다.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여 최고 수준의 인재를 길러 내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학생들에게 정성을 쏟았다. 이제 그 열매가 하나씩 영글어 가고 있다. 나는 모교이자 일터인 숙명여자 대학교만큼 에스모드 서울을 사랑한다. 누가 묻는다 해도 나의 패턴 지식의 모체는 단연 에스모드 서울이다. 국내 최고의 패션 디자인 교육을 추구하고 있는 에스모드 서울의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지칠 줄 모르는 박윤정 이사장님의 열정에 경의를 표한다.



03

긴밀한 산학 협동, 실무에 강한 교육

기성복 위주의 교과 과정

에스모드 인터내셔널은 마스크의 각광을 받는 소수의 스타 디자이너보다는 기업을 위해 일하는 전문적인 실무형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학교로 명성이 높다.

이는 에스모드 창설자인 알렉시 라비뉴(Alexis LAVIGNE)의 철학에도 일맥상통한다. 그는 대표적인 패션 오브제인 줄자와 마네킹의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개발한 패턴 기술을 상표등록하고 재단법에 대한 교재를 발간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위한 쿠티르적인 옷이 아닌, 일반 대중을 위한 옷을 제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에스모드의 전신인 패턴 디자인 학교 ‘게르 라비뉴(Guerre-Lavigne)’에서도 1841년 당시로서는 예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입학의 기회를 주어 기성복 패션 교육의 기초가 되었다.

에스모드 서울이 추구하는 가장 큰 목표 역시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입을 수 있는 옷’, ‘팔릴 수 있는 옷’을 만드는 것이다. 보기에만 아름다운 아트적인 옷은 에스모드에서 추구하는 패션이 아니다.

패션의 일선 현장에서 프로답게 일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 사실 어느 분야보다 트렌드에 민감하고 변화가 빠른 패션계의 흐름을 반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에스모드 서울의 교과과정은 의류업계에서 통용되는 작업 방식을 토대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패션 산업 전반에 걸쳐 보다 전문화, 세분화된 내용을 매년 구상해 프로그램에 적용하고 있다. 에스모드 인터내셔널의 기성복 위주 교과과정 운영을 위해선 긴밀한 산학협동이 필수적이다.

미니데필레

열정과 꿈이 어린 첫걸음

임소리 (2학년)

여름 방학 이후 매년 9월이 되면 1학년 학생들은 자신의 작품을 처음으로 패션쇼의 형태로 선보이는 미니데필레 행사를 갖는다. 학생들은 셔츠를 디자인, 제작할 뿐만 아니라 포스터 제작, 무대연출, 음악, 메이크업, 캣워크 구성 등 쇼를 위한 전 과정을 직접 기획, 발표하게 된다. 반별로 스테이지를 나누어 직접 자신의 작품을 입고 무대에 오르는 1학년 학생들의 가슴 떨리는 첫번째 작품 발표회. 2008년 9월에 미니데필레를 준비했던 임소리 학생의 7주 간의 기록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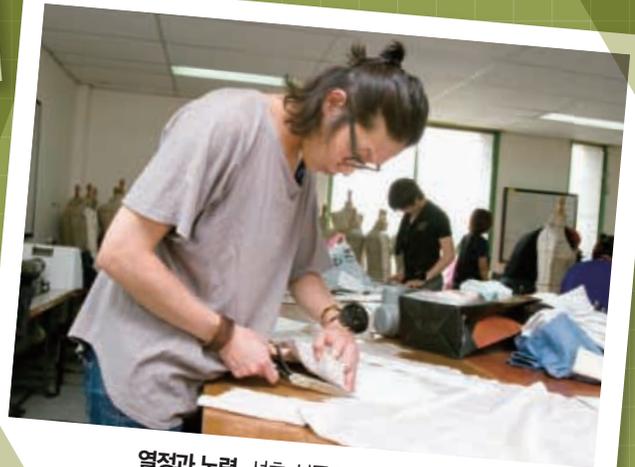
아직 그 설렘과 열정이 가시지 않은 우리들의 첫번째 패션쇼. 내가 디자인한 옷을 직접 만들고 쇼를 하는 과정을 통해 진짜 디자이너가 된 듯했다. 창조의 기쁨과 열정, 두근거림과 성취감을 선사해 준 미니데필레의 과정을 정리해 보았다.



창조 셔츠 디자인 스타일링 작업

◀ 미니데필레 셔츠를 위한 첫번째 과정은 각자 콘셉트를 정하고 셔츠를 디자인하는 일이었다. 나는 남자 셔츠의 콘셉트 키워드를 dandy, basic, tidy로 정하고 그에 맞는 컬러와 이미지 맵을 구성, 셔츠를 디자인하기 시작했다. 나는 열 개의 셔츠를 구상하면서 디자인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푹푹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료를 찾고 모으는 과정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열 개의 디자인 중 실물 제작할 셔츠 하나를 선택했다. 스타일화와 도식화를 토대로 패턴 작업에 들어갔다. 도식화의 디자인 라인을 마네킹 바디에 라인 테이프로 표시한 다음, 모델 사이즈에 맞게 패턴을 그리고 광목으로 가봉을 했다. 가봉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착장 모습이나, 패턴을 상상하여 도식화나 스타일화를 그린다면 더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열정과 노력 셔츠 실물 제작 모델링 작업



열정과 노력 실물 셔츠 가봉 모델리زم 작업

◀ 드디어 원단으로 셔츠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더운 다리미대에서 땀을 뻘뻘 흘리던 친구, 탈부착 소매를 만드느라 찢찢매던 친구들이 기억에 선명하다. 모두 처음 해 보는 일이라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디자인, 패턴, 가봉, 가봉 수정, 실물제작, 봉제의 과정을 통해 미니데필레를 위한 셔츠 제작을 마쳤다.

마침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쇼 준비를 시작했다. 반 대표인 나는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연출, 진행, 사진, 메이크업, 음악, 미술 팀으로 모두 역할을 나누자 팀장들이 최선을 다해 주었다. 연출 팀장과 진행 팀장은 뛰어난 리더십으로 우리 반 전체를 잘 이끌어 주었고, 사진 담당들은 데필레 준비 과정을 모두 찍고 편집을 했다. 메이크업 담당들은 콘셉트에 맞는 멋진 메이크업으로 우리를 무대 위에서 더욱 당당하게 해주었다. 센스 있는 음악으로 스테이지를 더욱 빛나게 해주었던 음악 팀, 멋진 포스터 디자인을 담당한 친구들... 쇼를 준비하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자신이 만든 셔츠를 직접 입고 무대에 선다는 두근거림은 이 모든 수고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다.



두근거림 쇼 준비



성취 미니데필레

◀ 총 리허설을 거쳐서 마침내 미니데필레가 시작되었다. 너무 떨려서 우리 반의 무대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내가 워킹을 어떻게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 열정은 인간에게 최고의 힘을 낼 수 있게 한다고 한다. 누가 보더라도 열정적이었던 우리의 작업 결과가 쇼를 통해 보여졌다. 교수님들과 부모님, 친구들의 박수 소리를 듣는 순간 성취감은 배가됐다. 빈센트 반 고흐는 이런 말을 했다. "행복, 그것은 창조적인 노력의 두근거림 속에서 성취감으로 나타난다." 스티리즘과 모델리즘 작업 과정에서 창조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얻게 된 이날의 성취감, 그리고 행복, 열정과 꿈이 묻어 있는 미니데필레를 첫걸음으로 최고의 디자이너를 향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워크숍의 도입과 정착

에스모드 서울은 국내 패션 교육계에선 처음으로 1997년 기업과의 워크숍 제도를 도입했다. 학생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상품 기획을 하게 함으로써 실무에 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하며, 패션계의 여러 공정을 실제로 체험해 보게 하려는 의도에서이다.

2학년 워크숍은 매년 유명 패션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기존의 한 브랜드를 선정해 시장조사, 상품개발, 컬렉션 기획을 해 보면서 패션계의 실무를 배우게 되는 중요한 작업이다.

한편 듀폰 탁텔, 텐셀, 울마크 컴퍼니, 전주 한지사 등 소재업체와 이루어지는 워크숍도 있다. 프랑스의 경우, 소재업체들이 새로운 소재를 상업화 단계 이전에 학생들에게 미리 제공해 에스모드 파리를 테스트 보드로 삼는 반면, 국내 업체에서는 신소재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재업체와의 워크숍을 통해 3학년 학생들은 시장에서 구하기 힘든 특수 소재들을 접하고 다채로운 졸업작품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다.

2002년 시작된 세계적인 패스닝 제품 메이커인 YKK한국과의 워크숍은 학생들에게 패션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패스닝 아이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2007년에는 환경, 안전, 노년층과 장애인을 위한 기능적인 의상을 주제로 진행했고, 2008년에는 오브제의 디테일과 형태에서 착안한 아이디어를 지퍼와 버클 등 패스닝 제품과 결합한 옷으로 선보였다. 이 워크숍은 YKK측에서는 학생들의 작품을 통해 신제품 개발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점에서, 에스모드 서울측에서는 학생들이 패스닝 제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생각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성공적인 산학협동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3학년에서는 전공별로 심화된 워크숍이 진행된다. 에스모드 서울은 2005년과 2006년 2년 연속 한국을 대표하는 패션 교육 기관으로 선정되어 세계적인 코스메틱 브랜드인 랑콤과 함께 ‘랑콤 컬러 디자인 어워드’를 진행했다. 란제리 전공의 경우, 2004년 (주)좋은 사람들과의 워크숍을 시작으로 (주)남영비비안, (주)신영와코루 등 국내 브랜드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샹탈 토마스사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학생들에게 디자인 실



YKK한국(주)와의 패스닝 아이템 워크숍
Smart & Supplies (2007.10)

무를 경험하게 하고 있다. 아동복 전공의 경우, 2008년 글로벌 유아용 애니메이션 회사인 (주)오콘과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뽀로로’와 ‘디보’ 캐릭터를 이용한 아동복 캐주얼 디자인 워크숍은 국내 패션 교육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아동복 전공반을 운영하고 있는 에스모드 서울과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애니메이션 회사와의 산학협동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패션계의 주목을 받았다.

역대 워크숍 업체

일시	업체명 / 브랜드명	워크숍 타이틀	학년 / 전공
97/09/26	(주)태승 트레이딩 / 닉스, 스톰		2학년
98/09/25	(주)대하 / EnC, B+G		2학년
99/07/08	(주)모수인터내셔널 / 모리스커밍홀		2학년
00/07/13	(주)쌈지 / 쌈지스모츠		2학년
01/07/12	(주)성도 / 톰보이, 빅스아웃피터스		2학년
02/07/11	YKK한국(주)	Unzip Your Mind	2학년
03/07/11	(주)ID LOOK / 레니본		2학년
04/06/16	(주)좋은사람들 / 제임스딘, 보디가드		3학년 런제리 전공
04/07/08	(주)보끄레머천다이징 / 온앤온, 올리브데올리브, 더블유닷		2학년
04/11/11	(주)미우라인 / 가파치		2학년
05/01/25	로레알코리아(유) / 랑콤	LANCÔME Colour Designs Awards	3학년 여성복전공
05/07/09		Trend Factory	2학년
06/01/31	로레알코리아(유) / 랑콤	LANCÔME Colour Designs Awards	3학년 여성복 전공
06/06/13	(주)신영와코루 / 비너스		3학년 런제리 전공
06/07/01		Maison d'ESMOD	2학년
06/10/18	YKK한국(주)	Supplies ATTACK	2학년
07/05/30	(주)남영비비안 / 비비안		3학년 런제리 전공
07/07/07	(주)쌈지 / 쌈지마켓	이일장	2학년
07/10/26	YKK한국(주)	Smart & Supplies	2학년
08/06/18	(주)오콘 / 뽀로로, 디보		3학년 아동복 전공
08/07/04		BizBazar	2학년
08/09/19	YKK한국(주)	Plus	2학년
08/11/27	Chantal Thomass		3학년 런제리 전공
09/07/11	YKK한국(주)	POP-UP STORE	2학년

워크숍 변천상

창의적인 실무형 디자이너를 기르기 위해 에스모드는 여러 형태의 산학협동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2학년 워크숍이다.

워크숍은 회사측에서 진행하는 브랜드와 시즌 설명회, 학생들의 의류상품 디자인 작업, 회사측의 디자인 선정 작업을 거친 후, 학생들이 작품을 실물 제작하고 해당 브랜드 디자인실 임직원 심사의 순으로 진행된다.

part

02

최고의 패션디자이너 교육인
이 세계이루어지고 있다

(주)태승트레이딩 / 닉스 스톱



(주)모수인터내셔널 / 모리스커밍홈



(주)성도 / 톰보이, 빔스아웃피터스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주)대하 / EnC, B+G



(주)쌤지 / 쌤지 스포츠



YKK한국(주) / Unzip Your Mind

한편 2005년부터는 학생들이 자체 브랜드를 론칭하여 상품 기획부터 제작, 외부 매장을 임대하여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경험하는 새로운 형식의 워크숍을 진행하여 실무에 강한 에스모드 서울의 강점을 드러내는 신선한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학생들은 그룹별로 디자인실을 구성하고 직접 자신의 브랜드를 론칭해 브랜드 콘셉트에 서부터 디자인 및 소재, 컬러, 아이템 기획에서 제작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실무처럼 진행하고 있다. 판매 당일에는 패션 업계 실무진이 매장을 방문해 품평회를 갖는다.

(주)ID LOOK / 레니본



2003

(주)미우라인 / 가파치



2004

로레알코리아(주) / 랑콤
LANCÔME Colour Designs Awards



2005



(주)좋은사람들 / 제임스던, 보디가드



(주)보끄레머천디자인 / 온앤온,
올리브데 올리브, 더블유닷



Trend Factory

part

02

최고의 패션 디자인 교육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브랜드 품평과정을 거쳐 인기 상품으로 예상되는 아이템에 관해서는 추가 생산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판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 아이টে으로 티셔츠 기획 상품과 액세서리를 생산하기도 한다. 이렇듯 워크숍을 통해 학생들은 제작뿐만 아니라 회사와 같이 조직을 구성하여 영업, 홍보, 물류, 판매 등 패션 업체의 각 업무별로 실무를 경험하며, 행사 뒤에는 소비자 반응과 매출 결과에 대한 손익분석을 한다.

판매 워크숍은 해마다 성황리에 마감되었으며, 한 벌밖에 없는 옷을 아쉬워하며 같은 옷을 주문 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묻는 고객들도 많았다. 오픈 세 시간 만에 백여 벌의 기획 티셔츠가 매진되는 등 워크숍 행사는 해마다 매출액을 경신해 흥대 앞 상상마당에서 열린 2008년 워크숍의 경우, 하루 동안 99%의 판매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로레알코리아(주) / 랑콤
LANCÔME Colour Designs Awards



Maison d'ESMOD



(주)남영비비안 / 비비안



2006

2007



(주)신영외코루 / 비너스



YKK한국(주) Supplies ATTACK



(주)쌔지 / 쌔지마켓 이일장

에스모드 서울과 함께 한 YKK 워크숍 - 사사키 요시히로 SAsAKI Yoshihiro YKK한국(주) 대표이사

YKK한국(주)은 2002년부터 에스모드 서울과 공동으로 YKK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작품 활동을 위해 다양한 패스닝 제품을 샘플로 제공하고, 패션쇼를 지원하는 등 패션 인재육성에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것은 YKK한국(주)이 추구하는 기업정신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는, 자신의 번영도 없다.'는 '선의 순환'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워크숍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다수의 학생들이 다양한 패스닝 제품들을 보여 주기에 급급했으나, 제품에 대한 설명회와 상호 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패스닝 제품 본연의 기능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쓰기 편하고, 갖고 싶고, 보는 이에게 즐거움을 주는 디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학생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패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고려하여 몸이 불편한 분이나 고령자 분들까지 배려한 디자인들을 창안해 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의 뛰어난 졸업작품들을 본사와 공장에 전시하고 많은 사원들이 감상하고 연구함으로써 산학연계를 통한 시장개발에 더욱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규모의 패스닝 솔루션 대제전 등의 패션쇼를 기획하고 있으며, 에스모드 서울이 그 한 축을 담당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스모드 서울과 함께 하는 YKK 워크숍은 이제 명실상부한 산학연계 프로그램으로 발전했다고 자부합니다.

YKK한국(주) Smart & Supplies



2007

BizBazar



2008

Chantal Thomass



(주)오론 / 뽀로로, 디보



YKK한국(주) Pl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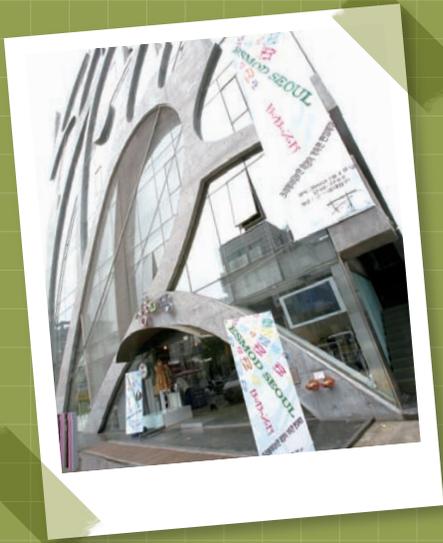
워크숍 주별 진행과정

BizBazar, 10주간의 그 숨가쁜 기록

2008년 7월, 학생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작품을 일반인에게 판매해 보는 2학년 워크숍이 'BizBazar'라는 주제로 열렸다. 에스모드에서는 이러한 워크숍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판매를 위한 옷을 직접 디자인하고 의류회사의 일원과 같은 역할을 해 볼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은 그룹별로 브랜드를 론칭하고, 10주간 디자인부터 패턴, 봉제, 브랜드 네이밍, 가격 책정, 검품까지 상품 기획부터 제작,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직접 담당한다. 뿐만 아니라 영업, 홍보, 물류, 회계, 판매 등의 팀을 조직하여 태그 작업, 검품, 운송, 매장 디스플레이, 고객 유치에 이르는 패션 의류업체 비즈니스의 모든 프로세스를 체험한다.

2008년 7월 4일, 고객들을 만나 자신의 작품을 판매하기까지 숨가뻐했던 10주간의 기록을 홍보팀장을 맡았던 성용 학생에게 들어 보자.



5월 첫째 주 | 워크숍 장소가 홍대 앞 상상마당으로 정해졌다. 그곳 매니저를 만나 대관료와 구조물 설치에 관한 미팅을 진행했다.

5월 둘째 주 | 이미지 맵을 근간으로 크로스 코디가 가능한 아이템을 선정하고 액세서리 라인까지 맞추어 컬렉션 맵을 완성했다. 지금까지는 누구에게 옷을 판다는 생각으로 디자인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내 눈에만 예쁜 옷'이 아니라 '팔리는 옷'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작업에 매진했다.

5월 셋째 주 | 개인별로 15개씩 디자인을 하고, 그 중 모델리즘 시간에 실물 제작할 디자인을 선정했다. 내 디자인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섭섭하긴 했지만, 친구들의 디자인이 브랜드 콘셉트에 더 맞는 것 같다.

4월 둘째 주 | 영업 팀, 홍보 팀, 물류 팀 등 각 파트의 부서장들과 워크숍 임원진 총 책임자인 사장이 결정되었다. 디자인 인력과 유통망까지 갖춘 엄연한 회사가 갖추어진 것 같다.

4월 셋째 주 | 팀원이 밤새 새워 콘셉트와 브랜드 네이밍을 정했다. 하나의 결론을 쉽게 도출하기엔 팀원들의 개성이 너무 다르다. 티격태격하느니 혼자 일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어려웠지만 서로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드디어 합의점에 이르렀다.



6월 첫째 주 | 내게 배당된 3개의 아이템 제작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돈을 받고 파는 옷'이란 생각을 하면 하루루 만들 수가 없다. 조금이라도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뜯고 한 땀 한 땀 작업을 하게 된다.

6월 둘째 주 | 모든 팀원들이 도식화와 가봉 작업을 비교하며 수정할 곳을 찾았다. 다들 의욕이 넘쳐 상대방 작품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느라 기분이 상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완벽한 옷을 만들고자 하는 열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잘 알고 있다.

6월 셋째 주 | 20개 브랜드 외에 따로 판매할 디지털 프린트 티셔츠를 구하기 위해 새벽까지 동대문 시장을 뒤졌다. 색상과 단가가 맞는 샘플을 골라 한밤중에 교수님을 만나 승인받고 시장에 들러 다시 집에 오니 새벽 6시다.

6월 30일 | 1차 검품을 했다. '내가 소비자라면 이 돈을 주고 과연 이 옷을 살까?'라는 생각으로 한 벌 한 벌 꼼꼼히 살폈다.



7월 1일 | 수업이 끝나자 홍보 팀이 모였다. 인터넷 홍보는 이미 오래 전에 시작했고, 오늘은 조를 나누어 포스터를 붙이기로 했다. 지하철 팀은 몰래 역에 포스터를 붙이고 도망가다가 무릎을 꿇다. 버스정류장 팀은 강남 일대 정류장에 포스터를 붙였다. 심지어 버스에도 붙이다 기사님께 걸려 쫓겨나기도 했다. 공공 장소에 포스터를 붙이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년 워크숍을 위해 후배들에게도 꼭 알려 줘야겠다.

7월 2일 | 2차 검품. 리벨과 태그 작업을 마쳤다. 옷의 가격이 교수님들의 심사를 거치며 확 낮아졌다. 아쉽긴 했지만 소비자의 눈으로 옷을 다시 보게 되었다.

7월 3일 | 상상마당에 가서 구조물 도색과 인테리어 현수막 작업을 마쳤지만 할 일이 너무 많다. 인테리어, 브로셔 제작 등. 차라리 옷을 만드는 게 더 쉬운 것 같다. 많은 일에 대한 책임감, 시간관리 능력, 리더십과 상황 대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다. 새벽 5시 반. 하지만 새우잠을 청하는 친구들의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없다.

7월 4일 | 드디어 비즈바자 워크숍 당일. 매장 디스플레이도, 음악도, 우리가 작업했던 영상물도 모두 만족스럽다. 아침부터 손님들이 몰린다. 더 이상 팔 옷이 없어 예정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마무리. 워크숍을 하면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을 꼽자면 내 혼과 정성이 담긴 옷이 눈앞에서 팔려 나갔던 때일 것이다. 그 기쁨과, 섭섭함이란 말로 형언하기 힘들다. 졸업 후 디자이너가 되더라도 첫 작품을 팔았던 오늘을 잊지 못할 것 같다.



최초의 기업 연수제

에스모드 서울 학생들은 재학 중 2회 이상 기업 연수를 받는다. 1학년 학생들은 2학기 말 진급시험 전에, 3학년 학생들은 취업 전 여름 방학 때 연수가 이루어진다.

3학년 기업 연수제도는 ‘기업에 맞는 교육’을 기치로 내건 에스모드 인터내셔널의 모든 분교에서 졸업을 위해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프로그램이다.

3학년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과 성향, 장래 진로에 맞춰 내셔널 브랜드, 디자이너 브랜드, 부티크 등 희망 연수 업체를 정하고 디자인실, 패턴실, 소재실, 마케팅실 등 구체적인 부서를 1, 2, 3지망까지 작성해 학교에 제출한다. 사무처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패션 경향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각 학생이 희망하는 연수 업체를 선정한다.

연수에 앞서 학교, 학생, 연수 업체는 3자간 연수 협의를 맺는다. 학생은 연수 후 출근부와 연수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며, 업체 연수 담당자는 학생의 연수에 대한 평가서를 항목별로 작성, 봉인하여 학교에 전달하게 된다. 연수 이후에 학생들은 연수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담당 교수에게 연수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교장과 담당 교수, 부서장 앞에서 연수 보고회를 갖는다. 연수를 통해 학생들은 미리 현장에서 기업 업무의 동향을 파악하고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을 받는다. 개중에는 연수를 마치고 연수 업체에 취업이 되는 학생들도 있다. 또한 학교측에서는 연수 보고회를 통해 파악되는 패션 업계의 동향을 교과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일례로 기업에서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 등의 프로그램을 많이 쓰고 있다는 학생들의 보고를 받은 학교측은 컴퓨터실을 만들고 2,3학년 교과 과정에 이를 추가하였다.

2001년부터는 1학년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일찍이 패션 현장을 경험하는 것이 목표 설정과 학업 성취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이다. 1학년 학생들은 3학년 연수와는 다르게 연수 업체와 기간을 스스로 정하며, 디자인실, 기획실, 매장 등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부문을 아우르는 보다 넓은 패션 업계에서 연수 업체를 정한다.



한섬 SJSJ에서 기업 연수 중인 부낸시 동문 (2008.7)

기업 연수에 이은 취업의 행운 - 부낸시(18기 / 한섬 SJSJ 디자인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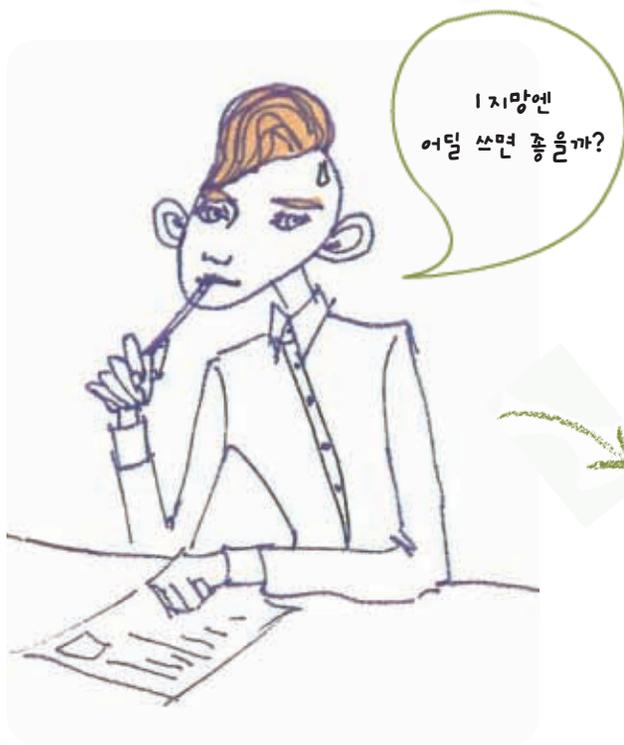
처음 SJSJ를 알게 된 스무 살 때부터 나는 그 브랜드를 좋아했고, 에스모드에 들어와서도 친구들에게 '졸업 후 나의 목표는 SJSJ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3학년 여름방학 동안 바로 그 SJSJ로 기업 연수를 가게 되었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새롭다.

SJSJ 디자인실을 경험한 소감은 한 마디로 '최고'였다. 디자이너들이 세심하게 작업하는 모습과 체계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역시 대기업은 다르구나.'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아트 실, 소재실, 저지 개발실, 컬러실 등 모든 것이 세분화되어 있는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일을 배웠다. 연수 일주일만 지나자 팀장님께서 과제를 내주셨다. '겨울 시즌에 나왔으면 하는 SJSJ의 컬렉션 제안하기'였다. 특히 컬러, 프린트, 실루엣, 디테일, 아트, 실용성 등이 가미된 옷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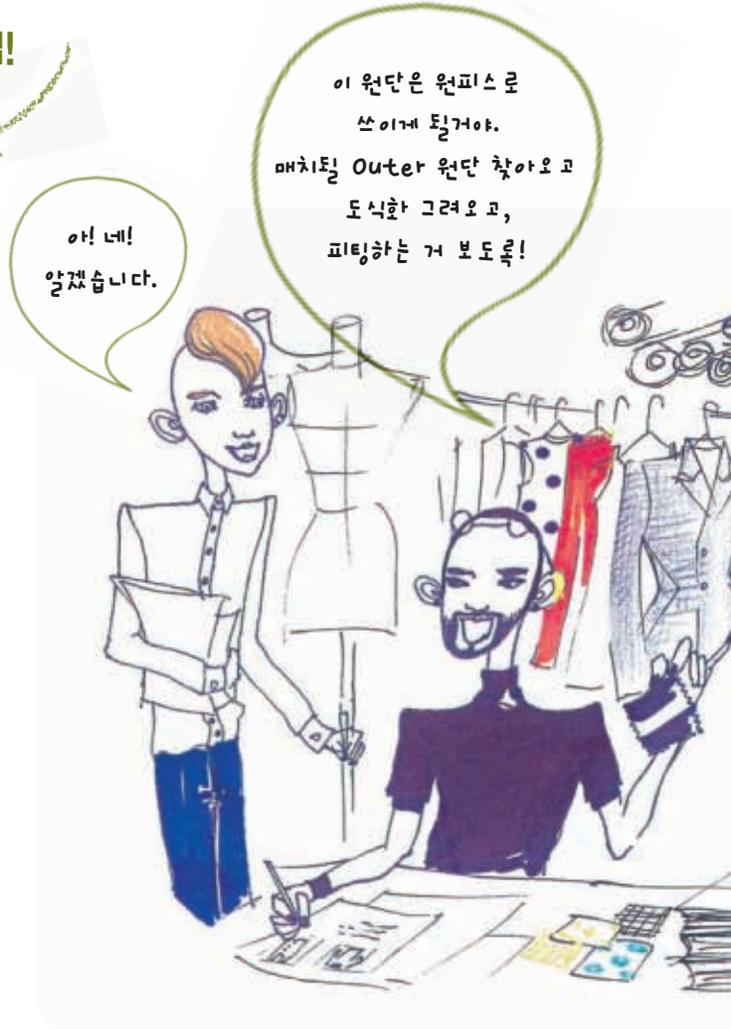
나는 평소 학교에서 하던 대로 차분하게 준비를 했다. 그런데 과제를 제출하자 감사님이 부르셔서 갑작스레 면접이 이루어졌다. 주로 과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었는데 1, 2학년 진급시험 프레젠테이션을 해 봐서인지 어렵지 않았다. 면접이 끝난 후, 디자인실에서 일을 하고 있던 나는 팀장님으로부터 꿈 같은 말을 듣게 되었다. "졸업이 언제지? 감사님께서 내일부터라도 출근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졸업 후 SJSJ에 이력서를 낼 수 있겠다는 생각만으로도 기뻐었는데 취업이라니!

나는 기업 연수를 통해 취업이라는 큰 행운을 얻었다. 내가 좋아하는 회사를 늘 머릿속에 떠올리고 차근차근 준비를 했던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졸업 전 취업이 되어 졸업작품을 만들며 회사를 다니느라 조금 피곤하긴 했지만 3학년 2학기, 나는 누구보다도 행복했다.



기업 연수 돌입!



정말 쉽지가 않구나.

큭...
바쁘다. 바빠!!

열심! 열심!

이것저것 할 일이 많구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4주 후

밑단은 요렇게
마무리하면
 좋겠군요!

아하!!

에!!!
화팅!!!

감사합니다!

학생이 열심히 해 주
아주 기쁩니다. 호호호
에스모드 학생은
역시 다른군요. 호호호.

공장 견학



이동복 공장 견학 (2005)

기업현장의 업무 방식을 교육에 도입하고 있는 에스모드에서 현장학습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실무에 강한 패션 인재 양성을 위해 에스모드 서울에서는 해마다 섬유, 패션 관련 업체들의 생산 현장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디자인한 옷이 만들어지는 생산 라인을 직접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1991년 시작된 2, 3학년 대상의 공장견학 프로그램은 최근 들어 생산 공장의 중국 이전으로 견학할 공장을 물색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매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지속시키고 있다.

제일모직, 신원, LG패션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공장을 견학함으로써 학생들은 특수 재봉틀과 자동화된 시설에서 컴퓨터 그레이딩과 재단 등 한 벌의 옷이 만들어지는 구체적인 과정을 경험한다.

또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문 부자재와 부속품을 보고, 단추구멍 뚫기, 솔기봉제, 밑단봉제, 마무리 다림질까지 평소에는 접하기 힘든 작업을 견학한다.

학생들은 여성복, 남성복 라인뿐만 아니라 니트, 저지 티셔츠, 우븐 등 한 소재만을 다루는 소규모 전문 공장을 견학하기도 하고, 진 봉제, 워싱, 나염, 컴퓨터 자수 등 특수 업무 공장을 견학해 다양한 소재개발에 대한 영감을 얻어 오기도 한다.

바쁘게 돌아가는 생산 라인에 외부인을 들인다는 것은 사실 회사측에서는 힘든 일이다. 따라서 공장 견학은 패션 업체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1992년 이래 에스모드 학생들은 제일모직 패션센터를 매년 견학하고 있으며, 쇼콜라, 아가방, 톱보이, 신영와코루, 남영비비안, 쌤지 등 각 브랜드 디자인실의 협조로 협력 생산 공장을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를 갖고 있다.

에스모드 학생들의 공장 견학 - 배기홍 (제일모직 하티스트 패션센터 과장)

제일모직에서도 다른 우수한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현장 중심의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무를 겸비한 우수한 직원을 채용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인턴 사원 교육은 물론 각 교육기관에서 패션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공장 견학을 실시하는 것도 그들로 하여금 실무 능력을 쌓게 하여 미래의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공장 견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장 견학은 제가 학생들을 공장으로 인솔하여 제조과정을 보여 주고 설명한 다음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난 수년 간 견학 왔던 여러 학교들 중에서 특히 에스모드 서울 3학년 남성복 전공 학생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에스모드 서울 학생들의 견학 태도는 남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신사복이 만들어지는 제조과정을 꼼꼼히 살펴본 다음 질의응답 시간에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학생들의 질문은 탄탄한 이론에 근거하고 있었으며, 직접 신사복을 만들어 본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적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에스모드 서울의 면모를 각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남성복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친구들이 여기 다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훌륭한 교수님들과 재치 있고 개성 있는 젊은 친구들이 어우러져 남성복 패션 시장의 미래를 건설하고 있는 에스모드 서울을 보면서 산업현장 일선의 일꾼으로서 믿음과 격려를 보냅니다.

컬렉션 현장 체험



2004 S/S SFAA 컬렉션 참여

에스모드 서울 학생들은 재학 기간 동안 국내에서 진행되는 여러 패션 관련 행사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한다. 한국에서 열리는 가장 대표적인 패션 행사 중 하나가 서울 패션 위크이다.

에스모드 서울에서는 패션쇼가 패션 교육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현장교육의 일환이라고 판단, 패션쇼 관람 및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에스모드 서울 학생들은 1990년 4월 결성된 국내 정상급 디자이너의 모임인 S.F.A.A(Seoul Fashion Artist Association) 운영위원회의 요청으로 제1회 S.F.A.A 컬렉션 부터 지난 2006년 S/S 컬렉션까지 헬퍼와 안내요원으로 S.F.A.A 쇼에 참여하고 리포트를 제출해 이를 성적에 반영했다.

짧게는 3일부터 길게는 일주일까지의 서울 패션위크 기간 동안 에스모드 서울 재학생 들은 무대 뒤에서 모델들에게 옷을 갈아 입히는 헬퍼 역할과 쇼장 관람객들을 안내하 는 가이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패션 공부가 어떻게 완성되 는지를 보고 느낀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성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가까이에서 살 펴보며 테마 전개, 볼륨, 색상, 소재, 디테일 등 컬렉션의 내용을 알게 된다. 또한 무대 디자인과 리허설, 관람객의 반응 등 패션쇼의 A부터 Z까지 경험하며 미래의 디자이 너로서 꿈을 키우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패션위크뿐만 아니라 개별 디자이너 컬렉션 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역대 회보



1~25호



26호



27호



28호



29호



3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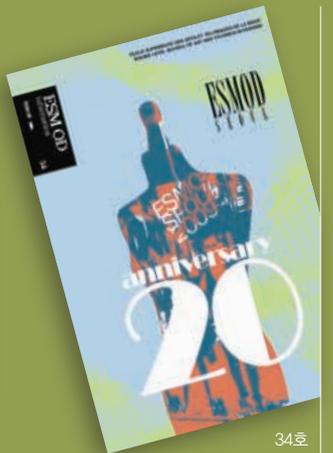
31호



32호



33호



34호

part

02

최고의 패션디자인교육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A person wearing a dark, textured suit jacket and trousers is shown from the waist down. The person is standing against a solid, light green background. The lighting is dramatic, highlighting the texture of the fabric and the contours of the body.

04

엄정한 평가 시스템

졸업작품 외부 심사제



제18회 졸업작품 심사 (2008.11)

에스모드 서울이 한국 패션 교육계에서 최초로 시도한 일 중 하나는 졸업작품 외부심사제이다. 개교 이래 에스모드 서울에서는 매년 외부 패션 업계 인사들에게 졸업작품 심사를 의뢰하고 있다.

졸업작품은 해당 학교의 교육 과정과 성과, 그리고 학생들의 수준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는 거울이다. 그런 점에서 20년 전 에스모드가 졸업작품 외부 심사제를 채택했던 것은 업계에선 큰 사건이었음에 틀림없다. 학생들의 작품에 자신이 없다면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은 교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과 과정에 반영한다.

학생들의 졸업작품은 교내 심사를 포함, 세 차례에 걸쳐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는 패션 업계에서 실시하는 품평회와 같은 개념이다. 1996년까지 1차 심사는 교내 교수진이, 2차 심사는 패션 업계 실무진이 담당하였으나 1997년부터 패션 업계 실무진과 대표급 인사들이 각각 1, 2차 심사를 맡고 있다. 작품 평가의 초점은 창의력, 잠재력, 전문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자질 등에 맞춰진다. 심사방법도 변화를 거듭해 왔다. 부스 형식과 프레젠테이션 형식을 거쳐 2006년부터는 '살롱' 형식의 심사와 졸업작품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내 패션 교육기관에서는 처음으로 파리나 밀라노의 신진 디자이너 살롱과 같은 형식을 선보이게 된 것이다.

에스모드 서울의 졸업작품 발표회는 전문 패션인들에게 학생들이 자신을 '프로모션'하는 장이 되어 오고 있다. 실제로 심사에 참여한 실무진들은 학생들의 작품을 보고 나서 바로 채용을 제안하기도 한다. 이제 졸업작품 발표회는 단순한 심사가 아니라 학생들이 신진 디자이너로서 첫발을 내딛는 데뷔 무대가 되고 있다.

해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나 업체에 몸담고 있는 인사들을 초빙함에 따라, 1997년 32명에 불과하던 심사위원 수가 2008년에는 120여 명에 이르렀다.

심사를 거쳐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는 각종 상이 수여된다. 심사위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심사위원상, 파리 본교에서 가장 우수한 모델리즘 작품에 수여하는 금바늘상, 패션 기자단이 선정한 프레스 상과 협찬사에서 수여하는 전공별 우수상 등이 있다.

역대 에스모드 서울 졸업작품 심사위원

강민근 한화유통 갤러리백화점 과장 | 강성미 에스파플래닝 이사 | 강승민 중앙일보 기자 | 강윤경 신성통상 지오지아 실장 | 강은아 파스트어패럴 베이비퀴즈 팀장 | 강주연 엘르 디렉터 | 강진영 오브제 대표 | 강현주 동일레나운 아놀드파마 주니어 실장 | 경문수 제일모직 신시아로리 부장 | 고은영 데코 DIA 실장 | 고태경 보그레머천다이징 온앤온 실장 | 공석봉 한국섬유기술연구소 이사 | 권아영 좋은사람들 돈앤돈스 과장 | 구희경 신원 지이코 실장 | 국성훈 파비즈 글로벌 대표 | 권동욱 연합뉴스 영상부 기자 / 권성욱 텐셀코리아 대표 | 권오항 데코 XIX, 데얼스 상무 | 권용석 동아TV 부국장 | 권재현 신성통상 올젠 실장 | 기봉선 네티션닷컴 96NY 이사 | 길연수 JDG 회장 | 길희진 이랜드 더데이 실장 | 김강훈 쌍영방직 대표 | 김경민 하퍼스 바자 기자 | 김경화 로피시엘 부장 | 김경희 제일모직 로질리 선임 | 김계속 좋은사람들 해외디자인팀 부장 | 김명남 패션인사이트 기자 | 김규식 테이스트맥시엄 실장 | 김규진 현대백화점 차장 | 김다인 통보이 코모도 실장 | 김대환 롯데백화점 여성장장매입팀 바이어 | 김도완 인디에프 TATE 실장 | 김명희 아이사랑 감사 | 김영희 트리브랜즈 더뷰 실장 | 김미영 신형물산 비폴리코 상무 | 김미영 텍스헤럴드 기자 | 김민선 베스트 베이비 기자 | 김범준 더패션 기자 | 김상철 이대아신드롬 사장 | 김성은 네티션닷컴 캐쉬 이사 | 김성호 한국패션미디어 대표 | 김성희 유로물산 레노마 이사 | 김세창 리얼컴퍼니 ASK 실장 | 김소연 인디에프 TATE 실장 | 김수경 네티션닷컴 EnC 부장 | 김수진 동아TV | 김수진 지엔코 엘록 실장 | 김수진 통보이 코모도 실장 | 김승모 한섬 타임옴 실장 | 김승희 활라코리아 활라골프 실장 | 김영남 레이디경향 편집장 | 김영순 LG패션 MOGG CDO | 김영애 F&F 시슬리 상무 | 김영일 프리젠티 발렌시아 대표 | 김용명 CJ홈쇼핑 부장 | 김윤정 이카방 엘르뽕뽕 실장 | 김은아 DCTY 캐너비 실장 | 김은정 마담후가로 편집장 | 김은정 한섬 타임옴 팀장 | 김일호 오피콘 대표 | 김재이 네티션닷컴 96NY 실장 | 김재현 자랜드스루 대표 | 김정민 신영외교루 플래너 | 김정은 네티션닷컴 A6 부장 | 김정연 쌍영방직 디자인실장 | 김정훈 한국패션미디어 기자 | 김주동 신원 | 김진면 제일모직 빈폴 상무 | 김진희 리더스피케이 코데즈컴바인이너 부장 | 김진희 패션채널 차장 | 김찬문화 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 | 김하정 로에베코리아 부장 | 김한수 성주 디엔디 이사 | 김한준 버버리 이사 | 김현수 동아일보 기자 | 김현아 동아TV PD | 김현정 베네투코리아 베네투 실장 | 김형철 BOYO 실장 | 김혜진 데코 아나카프리 이사 | 김희선 연합뉴스 기자 | 김희옥 한국섬유신문 기자 | 나지현 패션리뷰 기자 | 나효진 미샤 실장 | 남유선 탑스퍼패럴 모크베이비 실장 | 남윤희 엘르걸 편집장 | 남지훈 씨니에스 엘르옴 이사 | 노승은 노승은 대표 | 노은미 제일모직 빈폴옴 실장 | 노장우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원장 | 노희주 현대백화점 차장 | 도성구 성도 제이비 과장 | 루비나 루비나 부딕대표 | 류현위 한국교육방송공사 팀장 | 문미수 한섬 감사 | 문신원 알토 오모소 실장 | 문유선 지오다노 캐주얼 실장 | 문호성 성도 토크드 | 민미경 화림모드 크림 실장 | 민은선 패션비즈 편집장 | 민인숙 필니트 사장 | 민희식 가미미디어 에스콰이어 부장 | 민희원 이랜드월드 뿌디랭 실장 | 박경실 마담후가로 차장 | 박경희 텍스헤럴드 차장 | 박동민 엘르 이사 | 박미혜 성도 이사 | 박상미 FnC코오롱 1492마일즈 실장 | 박선향 활라코리아 활라카드 실장 | 박성경 네티션닷컴/데코 대표 | 박성원 아이올리 에고이스티아너웨어 사업부 부장 | 박순진 아비스타 카이아크만 실장 | 박승수 Int.Enbase 사장 | 박승실 네티션닷컴 A6 실장 | 박운수 박운수 올스타일 대표 | 박윤정 엘르걸 편집장 | 박윤정 OTR 실장 | 박은경 thru 대표 | 박주 쌍영방직 과장 | 박지원 지원바클렉션 대표 | 박진희 패션비즈 기자 | 박철민 통보이 토토이진 실장 | 박춘무 데우 실장 | 박현정 연승어패럴 클라이드 실장 | 박현진 보령메디앙스 타티네소콜라 수석 | 박희자 한국일보 기자 | 방미애 제일모직 빈폴 상무 | 배명철 닉스인터내셔널 콕스 실장 | 배병관 패션비즈 기자 | 배삼진 연합뉴스 영상부 기자 | 배수진 이랜드 콕스 실장 | 배찬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백희수 F&F시슬리 이사 | 변정원 좋은사람들 과장 | 서미정 ISH디자인 대표 | 서상영 서상영 대표 | 서영희 스타일리스트 | 서용선 데코 텔레그라프 실장 | 서정기 서정기부탁 대표, 에스까다 코리아 아트디렉터 | 서정열 성도 토크드 대리 | 서치아 씨씨 기자 | 서태일 TMF 사장 | 석은정 이랜드 티니위니 실장 | 손수진 주얼nl 안아빙 실장 | 손진호 에스콰이어 소르첸테 부장 | 손형오 에이션패션 엠플렘 실장 | 송보영 씨씨 기자 | 송지오 송지오 옴 대표 | 송진호 유로물산 레노마 실장 | 신동선 코스모폴리탄 차장 | 신명은 지엔코 감사 | 신선주 좋은사람들 신유통, 보디가드 부장 | 신성아 트라이엠프 부장 | 신유진 엘르 편집장 | 신장경 신장경 대표 | 신정순 좋은사람들 보디가드 | 신홍순 컬처매니지먼트그룹 고문 | 신희경 이랜드 헌트이너 실장 | 신희옥 한국대반 실장 | 심소영 이랜드 포인포 실장 | 심수진 파스텔세상 캔키즈 실장 | 안경모 신영외교루 마스터 | 안성현 이레나 편집장 | 안세경 전주부시장 | 안혜영 안혜영 대표 | 양석주 SDN 본부장 | 양영숙 탑스퍼패럴 꼬조꼬조 상무 | 오경화 나인코퍼레이션 예고 이사 | 오나미 스와로브스키 코리아 대표 | 오연호 더울마크컴퍼니 대표 | 오은환 오은환 부딕 대표 | 오해정 대하 EnC 이사 | 오현숙 프랑스대사관 상무관 | 왕상호 인터크루 | 우선희 대하TEU 실장 | 우연실 남영비비안 이사 | 우영미 솔리드옴 대표 | 우종환 닉스 소비에직 실장 | 유지희 오피콘 상무 | 원대연 제일모직 대표 | 원종운 제일모직 상무 | 유병선 일경통상 미키클럽 차장 | 유수연 한국섬유신문사 국장 | 유인경 경향신문사 부장 | 유재은 원풍물산 킷북2 실장 | 유정운 LG패션 TNGT W BPU장 | 윤광식 프로패션올 대표 | 윤기석 로토도 아트디렉터 | 윤미혜 F&F 엘스스포츠 실장 | 윤성원 이랜드 태항 실장 | 윤영주 아이디룩 레니본 실장 | 윤유자 유진 미스박 대표 | 윤지현 더씨앤에이 컴퍼니 이사 | 윤한희 오브제 감사 | 은인옥 보그레머천다이징 이사 | 이경수 아니베프 이사 | 이경아 스마일미미 대표 | 이경옥 크리에이티브서비스 패션컨설턴트 | 이경원

가원어패럴 아가씨 대표 | **이경희** 좋은사람들 보디가드 과장 | **이계명** 데크인테리어네셔널 실장 | **이광원** 카피차이나 디렉터 | **이광호** 네디션닷컴 캐쉬 팀장 | **이기선** 에이어컴 ST.a 대표 | **이동연** LG패션 벤추라 실장 | **이민중** 보크레머천다이징 대표 | **이명진** 한섬 량방 실장 | **이명희** 보크로리아 편집장 | **이미경** YEEZ 대표 | **이병주** 마리프 대표 | **이상봉** 이상봉 대표 | **이상업** 보령메디앙스 이사 | **이석화** 지엔코 대표 | **이성희** 한국일보 차장 | **이소영** F&F 정보실 이사 | **이소영** FILA Korea 상품기획 상무 | **이시연** 힐모아 Bonpoint 이사 | **이신우** OTR 대표 | **이영의** 리더스피제이 코데즈컴바인포맨 실장 | **이영주** 진서 보타첼리 실장 | **이영지** 닉스 실장 | **이영희** 한국섬유신문사 부국장 | **이원평** 데코 대표 | **이은경** 씨씨 마틴스봉 이사 | **이은정** 신영외교로 선임디자이너 | **이은화** 씨씨스프츠 이사 | **이은희** 퍼스트뷰코리아 이사 | **이재성** 데코 전무 | **이재성** 유로물산 사장 | **이정민** 프로패션정보네트워크 이사 | **이정아** EBS TV 편집실 | **이정옥** EBS TV 편집실 팀장 | **이정우** JW컴퍼니 sa fille 대표 | **이정재** 우성&C BON 실장 | **이정화** 신영외교로 오르화 마스터 | **이정희** 누 이사 | **이정희** 데일리프로젝트 이사 | **이준하** 신영외교로 부장 | **이진영** 제일모직 빈폴키즈 실장 | **이태형** 동아TV 회장 | **이현선** 성도 상무 | **이현원** 울마크컴퍼니 대표 | **이형숙** 문화일보 차장 | **이호성** 신영외교로 부장 | **이환옥** 한스상사 사장 | **이훈** FnC코오롱 전략기획팀 과장 | **이훈구** 성도 토키즈 실장 | **이희경** 인테그랄에스에이 쿠아 이사 | **임군섭** 톰보이 | **임선옥** 예고 임선옥 대표 | **임지은** 포에버21 팀장 | **임태영** 쉬프컴퍼니 대표 | **임현주** 패션그래픽 엘러이너 실장 | **장시혁** 제일모직 빈폴옴과 과장 | **장정애** 네디션닷컴 ENC 실장 | **장현도** JC인테리어네셔널 사장 | **장형태** 신원 지이크 실장 | **장병국** 제일모직 패턴실 팀장 | **장봉선** 삼성물산 에스카드릴 | **잔연신** 사트렌 이사 | **전호진** 누메로 기자 | **정경연** 홍익대학교 섬유미술과 교수 | **정구호** 제일모직 구조 상무 | **정귀섭** 허리패션 사장 | **정금자** 씨씨 감사 | **정두영** 신원 지이크 퍼렌하이트 실장 | **정미경** C&H 대표 | **정병운** 두손21 캔키즈 실장 | **정석명** 두손21 대표 | **정소연** 리얼컴퍼니 이숍 실장 | **정순진** 예스퍼스스 마루아이 실장 | **정욱준** 론카스팀, Juun.J 대표 | **정윤기** 스타일리스트 | **정은영** 씨씨 편집장 | **정은임** F&F 정보실 실장 | **정인기** 클라라 앤스 이사 | **정인영** 아가방 과장 | **정현정** 더패션 기자 | **정현주** 버버패션 털버리 실장 | **정혜량** 모아방 베이비부 실장 | **정혜선** 아일랜드 디자인본부 부장 | **정혜숙** 베스트 베이비 차장 | **정혜진** 프리코즈컴퍼니 베이비헤로스 이사 | **조강현** 아가방 이사 | **조광미** 탑어패럴 꼬즈꼬즈 실장 | **조도연** 아모레퍼시픽 스페셜리스트 | **조성경** 리틀 대표 | **조영철** CJ홈쇼핑 사장 | **조윤예** 한국패션미디어 기자 | **조은미** 일르 실장 | **조현욱** LVMH 패션그룹 회장 | **조혜나** 패션인사이트 기자 | **조혜선** 엠코르셋 이사 | **조희숙** 전주시 팀장 | **주경아** 트라이 브랜즈 팀장 | **주병학** 좋은사람들 대표 | **주선희** 코오롱 크리스찬바크와 실장 | **지윤경** 씨씨 기자 | **지재원** 동아출판부 부국장 | **지춘희** 미스지컬렉션 대표 | **지혜리** 유화 상무 | **진성모** 국민대학교 교수 | **진은영** 아산우우 이사 | **진태옥** 진태옥 대표 | **차영주** 신세계intl. vov 이사 | **채희정** 트라이시클 이사 | **찬재용** 씨씨 아트디렉터 | **천호균** 씨씨 대표 | **최공나** 퍼스터어패럴 베이비워크 | **최광돈** C&K 이사 | **최미선** 전주시 | **최미영** MK트레이딩 감사 | **최범석** 제네럴 아이디어 대표 | **최선경** 신영외교로 차장 | **최선희** 누메로 편집장 | **최아미** LG패션 TNGT BPU장 | **최완** 페라가모 코리아 대표 | **최용안** 남영비 비안 상무 | **최윤준** DCTY 상품기획 차장 | **최유정** SK네트웍스 루츠 차석 | **최은주** 리더스피제이 코데즈컴바인 씨코즈 실장 | **최은주** 휘가로걸 팀장 | **최주선** FGF CP컴퍼니 실장 | **최채환** 패션콜로리아 대표 | **최향숙** 화림모드 크림 이사 | **최형로** 톰보이 회장 | **최형석** 트라이시클 대표 | **태명**은 플라스틱 아일랜드 실장 | **하상욱** 제일모직 상무 | **하옥경** 삼도물산 미스식스티 팀장 | **한경애** 씨씨 쌤 이사 | **한영호** 유로물산 레노마 실장 | **한상혁** 우성 I&C BON 실장 | **한성희** 서울패션센터 본부장 | **한승** 한승 꾸러미 대표 | **함민정** 패션인사이트 기자 | **허동화** 한국자수박물관 관장 | **현정훈** 예스퍼스스 노트 실장 | **홍마정** 쌍방울 인터메조 실장 | **홍민석** 신성통상 상무 | **홍선표** 제일모직 FUBU 중국 상무 | **홍은경** 더패션 기자 | **홍은주** 엔주반 실장 | **홍해욱** 아일랜드월드 에블린 실장 | **황규방** 디자인미 대표 | **황규희** SH 디자인 팀장 | **황보연** 베이직하우스 키즈 실장 | **황상윤** 패션인사이트 차장 | **황성호** 모다 대표 | **황연희** 패션 채널 기자 | **황윤필** 예스퍼스스 노트주니어 실장 | **황희경** 대현 주크 실장 | **Annette GOLDSTEIN** 에스모드 파리 교장 | **Cecilia FASSBENDER** 로레알 사장 부인 | **Chantal THOMASS** 샹탈 토마스 대표 | **Christine DESCOUEYTE** 주한 프랑스 대사 부인 | **Daniel MAYRAN** Comité Colbert 대표 | **Emmanuel DELRIEU** LVMH 상무 | **Eric BERGERE** 에릭 베르제르 대표 | **Franck JOSSEAUME** 에스모드 일본 아트디렉터 | **François LE GLOAN** LVMH P&C | **Françoise THIEBAUD** 주한 프랑스 대사 부인 | **Hugues DE VAUTIBAUT** 아쉐트어인스미디어 대표 | **Kawakami HITOSHI** YKK한국 사장 | **Laurent GROSGOGEAT** 리치몬트코리아 가르띠에 대표 | **LI Xin** 중국 패션협회 고문 | **Marc LAMY** 프랑스문화원 문화과학교육협력부참사관 | **NINO Satoru** 에스모드 인테리어네셔널 회장 | **Pascal PAOLI** 부르주아코리아 사장 | **Paule DOUARINOU** 에스모드 파리 교장 | **Philippe GALTIE** 리치몬트코리아 가르띠에 대표 | **SASAKI Yoshihiro** YKK한국 대표 | **Thierry MARTY** 리치몬트코리아 가르띠에 대표 | **Vincent G. SHAW** 샤넬코리아 대표 | **Yann LE BOURDON** L'oréal Korea 부사장 | **Yonemori** YKK한국

* 심사위원 명단은 가나다 순이며, 회사명과 직책은 최종 심사일을 기준으로 함.

졸업작품 심사평

Chantal THOMASS 디자이너 (18회 졸업작품 심사)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만든 작품으로는 매우 완벽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디테일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모두 표현하려는 학생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단점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앞으로 업계에 나가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신 중국패션협회 고문 (18회 졸업작품 심사)



학생들의 작품은 창의성이 넘쳤고, 작년보다도 더 높은 수준을 보여 주었습니다. 더욱 실용적이었고, 소재 개발도 눈에 띄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작품이 독창적이었습니다.

루비나 디자이너 (17회 졸업작품 심사)



작년도 좋았지만, 올해의 전시는 더욱 효과적이었어요. 이 작품들을 그대로 파리에 가져가서 전시나 멀티숍에서 선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봉 디자이너 (17회 졸업작품 심사)



에스모드 심사를 하다 보면 관례가 기본이 좋아집니다. 한국 패션의 미래가 이들에게 있기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자신의 반성과 새로운 젊은 에너지를 느끼기에 이들이 10년 뒤에는 한국 패션의 중심이 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박윤수 디자이너 (15회 졸업작품 심사)



미래의 디자이너는 멀티 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는 현실에 공감하듯 이번 졸업생들의 작품 세계는 좀더 다양한 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무겁거나 복잡하지 않게,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현원 울마크컴퍼니 대표 (14회 졸업작품 심사)



앞으로 10년, 어떤 변화가 우리 패션, 소재, 의류업계에 오게 될는지 조금은 두렵기도 하지만 이런 변신을 주도할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격려와 박수를 함께 보냅니다.

서정기 디자이너 (13회 졸업작품 심사)



학생들의 눈으로 바라본 여러 가지 방법의 소재개발과 아이디어가 매우 우수하여 디자이너인 본인에게도 재미를 더해 주었습니다.

우영미 디자이너 (12회 졸업작품 심사)



에스모드 학생들은 패션의 트렌드를 읽어 내는 탁월한 능력을 겸비하였습니다. 사람이 진정 원하는 옷을 알고 있으며, 세심한 부분까지 이끌어 낼 줄 아는 능력에서 미래의 유명한 디자이너를 상상해 봅니다. 해마다 배출되는 에스모드 졸업생은 패션의 현장에서 신선한 공기 와 같은 역할을 충실히 해 내는 것 같습니다.

Eric BERGERE 디자이너 (11회 졸업작품 심사)



매우 수준 높았고 실물 제작 마무리가 훌륭합니다. 다만, 디자이너의 룩과 도시예의 주제 사이에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주의했으면 합니다. 디자이너 자신이 설득되지 않으면, 아무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정욱준 디자이너 (11회 졸업작품 심사)



전체적인 콘셉트, 패턴, 소재, 칼라 감이 아주 좋았습니다. 다만 실용성이 좀 더 가미되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김영순 데코 이사 (10회 졸업작품 심사)



소재 개발 면이나 아이디어에서 많은 노력을 한 흔적이 보여져서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아이디어나 작품의 바탕에 좀 더 자기만의 색깔이 분명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또한 작품이 작품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취업을 해서도 활용이 가능한 기초지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명희 VOGUE코리아 편집장 (10회 졸업작품 심사)



전체적으로 아이디어와 기획, 구성이 돋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능성과 소재 개발, 그리고 패션의 미래를 고려한 듯한 콘셉트의 옷들도 많았습니다. 다만 기획을 위한 기획, 아이디어를 위한 아이디어, 무리한 소재 개발 등의 면모도 없지 않았습니다.

천호균 삼지 대표 (10회 졸업작품 심사)



길게 보면 느끼는 것이 '노력에는 못 당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노력의 소질이 대단한 디자이너 지망생들을 보니 대단히 흐뭇합니다. 앞으로는, 무언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좀 깊이 있는 그러한 표현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진태옥 디자이너 (8회 졸업작품 심사)



전체적으로 작품 수준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너무 소재 개발에 역점을 둔 듯합니다. 하지만, 참으로 풍부한 상상력이 놀랍습니다.

문미숙 한섬 감사 (4회 졸업작품 심사)



학생들 작품을 보고 평을 한다는 것보다 모든 일에 열심히 하면 항상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와서 보고 느꼈습니다.

Paule DOUARINOU 에스모드 파리 교장 (1회 졸업작품 심사)



모델리즘 실력이 대단히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아트적 창의력과 대담성이 좀 더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 심사위원들의 회사명과 직책은 명기된 심사일을 기준으로 함.

진급 심사제



스틸리즘 진급 심사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기 위해 매년 1월 중순 경부터 스틸리즘 10일, 모델리즘 10일 약 20일 동안 진급 시험이 행해진다. 학생들은 1년간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스틸리즘은 도시에를, 모델리즘은 실물 제작한 작품을 제출해야 한다.

스틸리즘 시험의 주제는 대체로 자유롭게 학생들이 정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일정한 주제를 제시하기도 한다. 2008년 1학년의 경우 '2009 F/W 컬렉션'이 주제로 주어졌다. 모델리즘 시험은 각 학년에서 배웠던 아이템 가운데 파리 본교에서 보내 오는 시험 모델을 실물 제작해야 한다.

스틸리즘과 모델리즘의 모든 진급시험 과정은 엄정하게 이루어진다. 모델리즘의 경우, 담당 교수는 본인이 맡은 학급에 시험 감독을 맡을 수 없으며 시험 기간 중 학생들은 날마다 작업했던 내용을 제출, 감독 교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학생들은 스틸리즘 시험 과제를 제출하고 나면 학년 담당교수 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3분간의 발표 시간을 갖는다. 발표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버저가 울린다. 교수들은 주제의 일관성, 창의성, 프레젠테이션 능력 등을 평가한다.

시험 결과는 상대평가로 이루어지며, 출결, 지각 또는 미완성 제출은 평소 세캅스 평가보다 더 엄격하게 반영된다. 진급 여부는 진급 시험 심사 점수와 매 분기 성적과 출석 상황을 집계한 총점으로 결정한다. 1, 2학년의 경우 1년에 6회의 학업 성적을 합산한 평점 70%에 진급 성적 30%를 반영하여 진급 여부가 결정되며 학년 총 평점이 20점 만점 기준으로 11점 이상이 되어야 진급을 할 수 있다. 진급 시험에서 탈락되면 유급이나 재입학이 불가능하며 예외 없이 제적 처리된다.

진급 시험제도는 다른 학교에 없는 제도이므로 의상관련 전공 대학 출신이라도 편입을 하려면 재학생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진급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에스모드만의 단계별 프로그램을 배우지 않은 타 교육기관 학생들이 진급시험을 통과하기란 매우 힘들다.

진급 심사 풍경

해마다 1월 중순 경이면 에스모드 서울 교사를 향해 쏟아져 나오는 학생들을 볼 수 있다. 진급 시험 기간 중의 진풍경이다. 한꺼번에 서너 계단씩 뛰어오르며 가까스로 수험장에 들어선 학생들은 출석 체크를 끝낸 다음에야 안도의 숨을 몰아 내린다. 시험 성적뿐만 아니라 지각도 진급 시험에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시험 기간 동안 과제물을 마감 시간 안에 제출하기 위해 학생들이 벌이는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이다. 자신이 터득한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완성도를 높이자니 시간이 부족하고, 시간에 맞추자니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 특히 평소 소극적인 학습 태도를 가졌던 학생들은 지각 제출과 미완성 제출을 벗어나기 위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나면 진급 사정회를 거쳐 결과를 발표한다. 10여 년 전에는 진급 발표시 석차와 성적이 공개되었는데 학생들의 심적 부담을 감안하여 현재는 진급자 명단만 발표한다. 성적이 커트라인을 넘겼더라도 결석이 많거나 어느 한 과목의 성적이 미달될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받고 조건부 진급이 허용된다. 이런 경우일지라도 마음 졸였던 학생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 그도 그럴 것이 한 번 탈락하면 유급도, 재입학도 할 수 없는 것이 엄혹한 에스모드의 규정이기 때문이다.

진급시험이 힘든 만큼 그것을 통과한 기쁨은 클 수밖에 없다. 매년 입학 설명회 졸업생 체험담에서 빠뜨리지 않는 추억의 단골 메뉴가 바로 진급 시험에 대한 이야기이다.

“1학년 진급 시험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떨립니다. 작품을 제출하고 선생님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어찌나 떨리던지 무슨 말을 하고 나왔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무사히 2학년에 진급된 것을 알고 나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휴~ 살았다! (18기 남화영)

진급 시험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1년 간 나의 성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17기 아가이)

패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진급 시험이라는 관문을 통과해 2학년으로 진급하던 때야말로 제일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11기 양지현)

엄격한 학사 관리

에스모드 서울 학생들은 하루 6시간의 의상 디자인(스틸리즘)과 패턴 디자인(모델리즘) 수업 뿐만 아니라 불어,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복식사, 머천다이징, 텍스타일, 소재개발 등 패션과 관련된 여러 교양과목 수업을 듣는다. 주당 30시간이 넘는 학기가 끝나면 5주의 여름방학과 4주의 겨울방학이 있긴 하지만 학생들은 방학 기간에도 쉴 수가 없다.

매장 판매원부터 대기업과 디자이너 브랜드 디자인실 어시스트, 패션 잡지사 인턴 사원 등 학년별 수준에 맞는 기업체 연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5주 단위로 묶여 있는 한 세강스가 끝나면 'semaine modologie'라는 이름의 특별주간이 있는데, 이 일주일은 패션 업계 전문인 특강, 생산 공장 견학, 전시회 관람, 워킹과 메이크업 특강 등 패션 전반에 관한 교양 프로그램으로 꽉 짜여져 있다.

학년 초에 반이 정해지면 여러 교수가 돌아가며 그 반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반에 스틸리즘 담임 1명과 모델리즘 담임 1명이 배정되어 2명의 담당교수가 학생 개개인의 학습 진행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의견을 나누어 긴밀한 유대하에 학생을 지도하게 된다. 교수들은 일대일 개인교습 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생 개개인의 성격과 라이프스타일을 이해하게 되고, 결국엔 교수-학생의 관계 이상을 맺게 된다.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는 1차로 담임 교수들의 평가를 받게 된다. 그리고 한 세강스가 끝난 후 이어지는 1주 동안의 특별주간에는 교수들의 2차 공동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 공동 평가를 거친 후에야 학생들의 평소 성적이 산정된다. 각 분교에서 평가된 학생들의 작품은 분교장 회의 때 파리 본교에 의해 또다시 3차로 재평가가 된다.

빡빡한 수업과 엄청난 양의 과제물로 인해 학생들은 여러 날 밤을 새우기 일쑤이며, 도중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다. 실제로 150명으로 입학했던 1회 입학생들 중 49%인 73명만이 졸업의 영예를 안았으며, 168명으로 학교에 들어왔던 10회 입학생 중 46%인 77명만이 졸업했다. 2009년 2월 졸업생들은 두 차례의 진급시험을 거쳐 43%가 조금 넘는 74명이 '살아남아' 졸업했다. 실력을 갖춘 성실한 학생만을 에스모드의 이름으로 졸업시킨다는 설립자 박윤정 이사장의 이념에 따라 개교 이래 졸업생 수

는 입학 정원의 50% 내외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입학은 쉽지만 졸업은 어려운’ 에스모드의 교육은 엄격한 출결관리에서도 잘 드러난다. 합격을 통보받은 신입생들이 제일 먼저 작성해 학교에 제출하게 되는 등록 카드에 명기된 출석과 관련된 교칙을 보자. ‘학생들의 출석을 엄격하게 요구한다. 무단결석, 과제물 미제출의 사유로 3회 이상 학사 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 학교측은 배상의 책임 없이 제적시킬 권리를 갖는다.’

졸업작품 컬렉션을 제작하게 되는 3학년이 되면 학생들의 학사 관리는 더욱 엄격해진다. 3학년 2학기가 되면 학교 측에서는 3학년 학부모들에게 일괄적으로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1. 결석이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상인 학생 2. 정해진 기간에 작품 진행과정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 3. 졸업작품 제작을 외부에 의뢰한 학생 4. 지정된 제출일까지 스틸리즘 작품집과 모델리즘 작품 3점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 5. 최종학년 학업 평점과 심사위원 평점이 12점 이하인 학생’, 이 다섯 가지 항목 중 한 가지라도 해당 사항이 있는 학생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된다는 내용이다.

설사 졸업작품 심사까지 거쳤더라도 졸업작품 발표회 과정에 문제될 만한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졸업사정회에서 엄정하게 재평가를 하게 된다. 3년여에 걸쳐 학교를 다닌 수고와 졸업작품 컬렉션을 완성한 노력을 감안해 ‘그냥 졸업을 시키는’ 경우는 에스모드 서울에선 찾아볼 수 없다.

교수 기고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에스모드

신정숙 교수

디자이너는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에스모드에서는 엄격하게 출결관리를 하고 있다. 또 작품 제출일자를 어겼을 경우 교무 회의를 거쳐 졸업작품 심사를 받을 수 없다. 때문에 졸업장을 받지 못하고 수료하는 학생들도 있다.

컬렉션 제작 기간은 그야말로 전투를 방불케 한다. 현장 실무에 있어서도 상품이 제 시즌에 출고되지 못하면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고, 그것은 곧장 매출로 이어지게 된다. '매출은 인격' 인격은 철저한 자기 스케줄 관리에서'라는 말을 학생들은 경고장이란 옐로우 카드로 미리 경험하게 된다. 졸업작품 심사와 같이 큰 행사에서는 단 몇 분의 지각 제출도 용서하지 않고 제출받을 교실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에스모드의 수업 운영 방침인 것이다. 5분의 지각으로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기도 한다.

3년의 어려운 과정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해 졸업장을 받지 못하고 결국 수료로 마무리 하는 학생들을 보면 가슴이 무척 아프다. 하지만 수료한 학생들은 그것이 인생의 쓴 약이 되어 이를 계기로 본인 스스로의 단점을 보완, 사회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제는 지각 결근 안 해요. 회사에서도 저 일 잘한다고 칭찬 받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수료생들을 참 많이 본다. '학교 다닐 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때에 엄격한 시간 개념을 갖게 해 주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돌아서는 학생의 뒷모습에서 나는 미래의 희망을 읽는다.

part
02

최고의 패션 디자인 교육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디자이너는
철저한 자기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에스모드에서는
엄격하게 출결관리를 하고 있다.”



학부모 기고

딸에게 날개를 달아 준 에스모드 서울

임지호 (제일모직 구호 컬렉션팀 15기 최지영 동문 어머니)

계절도 신세대다. 때론 천천히 옷을 바꿔 입지 않고 준비도 안 된 우리를 낚아채듯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간다. 나도 그랬다. 어릴 때부터 음악을 공부해 음악대학을 졸업한 아이를 패션이라는 아주 다른 방으로 데려갔다. 성실하고 신중하지만 과감하게 자기 옷으로 갈아입지 못하는 아이를 처음 에스모드 입학 설명회에 데려갔던 날을 기억한다. 음악이 내 아이의 길이 아니라는 확신도 있었지만 그 날 입학 설명회에서 신나하는 아이를 보며 이제야 제 길을 찾았구나 안심했다. 아이는 에스모드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마치 날개를 단 것처럼 보였다. 과제 때문에 며칠씩 밤을 새우는 날이 잦았고, 잠이 부족해 앉아서도 즐기 일쑤였다. 안타까운 마음에 밤을 새워 과제를 하는 날이면 같이 깨어 있거나 새벽 미사를 다니면서 응원해 주었다. 가끔씩 친구들이 집에 와 작업을 할 때는 다들 내 딸 같아서 아침에 깨우는 것도 미안했고 안타까운 마음에 꼭 아침을 먹여서 보내곤 했다. 3년 동안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한 번도 에스모드에 간 걸 후회하지 않고 즐겁게 과제를 해 내는 걸 보면서 작업의 결과를 떠나 딸이 가 제 길을 찾은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다.

가장 기억나는 순간은 지영이가 3학년 때 대한민국 패션 대전에 응모했을 때다. 학교 생활 중 유난히 힘들어했고, 밤새는 날도 많았다. 급할 때는 온 집안 식구들을 동원해서 가위질이며 다림질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패션 대전 쇼가 열리던 날에는 그 모든 고생을 몇 배로 보상받지 않았나 싶다. 아이가 작업하는 동안 매일같이 봐 왔던 옷인데도 모델이 입고 런웨이를 걸어 나오는 순간, 너무나 멋있었고 마침내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을 때에는 내 아이가 대견하다는 생각에 눈물이 절로 글썽거렸다.

졸업 후 제일모직에 입사한 내 딸이 회사 일로 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긴 하지만 에스모드를 다니던 시절과 비교하면 정말 마음이 편하다. 그 때의 고생과 에스모드가 없었다면 지금의 모습은 없었을 것이다. 에스모드가 내 딸아이에게 날개를 달아 준 것이다.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그 때의 내 딸처럼 밤을 새워가며 작업을 하고 엄마들도 나처럼 마음을 졸이겠지만 가족들의 응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꼭 말해 주고 싶다. 딸아이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준 에스모드 서울의 20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많은 아이들에게 꿈의 날개를 달아 주길 간절히 기도한다.

“과감하게
자기 옷으로 갈아 입지
못하던 아이는 에스모드에서
마치 날개를 단 것처럼 보였다.”

part

02

최고의 패션 디자인 교육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세강스별 학업 평가제

각 세강스가 끝나면 주어지는 1주일의 특별주간 동안 이사장을 비롯하여 교장, 학년 담당교수 전원이 모여 5주간의 학업 결과에 대한 비교 평가의 시간을 갖는다.

평가가 이루어지는 교실에는 반별, 점수별로 학생들의 작품을 진열해 놓는다.

평가자들은 우선 '각 학년별 교육목표에 맞게 주제가 제대로 전개되었는가?' '전년도와 다른 프로그램을 시행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성적 기준은 공평했는가?' '반별 우열은 어떠한가?' 등을 진지하게 검토한다.

전 세강스에 학업 성적이 열등했던 학생과 과제물 미완성 제출자들의 발전 상황에 대한 집중 평가도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했는지가 한눈에 파악되기 때문에 지도 교수들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신입 교수들은 굉장한 심적 부담감을 갖게 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이 단계의 평가가 끝나면 학생들은 각 반별로 전시해 놓은 도시에와 실물 제작한 옷을 둘러보며 작품을 보는 안목을 키우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도 한다.

특별주간이 끝나고 다시 새 세강스가 시작되는 첫날, 교수와 학생들은 'correction collective'라는 시간을 갖는다. 이 시간에는 학업 평가결과를 공유하면서 학생들에게 자기 작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자신의 작품 세계에 대한 논리적 해명을 통해 비평력을 키우는 한편, 학습 내용에 대한 복습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도시에와 실물 제작한 작품을 상대 평가한 점수는 물론 출결, 지각제출, 미완성 제출 등의 사항이 면밀히 기입된 성적표가 담당 교수의 의견과 함께 매 세강스 시작 첫 주에 학생 본인에게 전달되며, 학기 말에는 학부모에게 우편 발송된다.



모델리즘 평가

평가는 또 다른 배움의 시간 - 정선혜 (6기 / 에스모드 서울 모델리즘 교수)

한창 새로운 것을 배우는 학생 시절에는 학습 태도이든 학업 성적이든 으레껏 평가가 있기 마련이다. 그 때는 좋은 평가를 받으면 기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좀 더 잘하면 되지 하는 가벼운 마음이었다. 그런데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 내가 가르친 학생들의 작업을 평가받는 것은 사뭇 달랐다.

나는 아직도 에스모드에 갓 부임해서 받은 첫 교수 평가 시간을 잊지 못한다. 학생들이 만든 스커트들을 마네킹에 입혀 세워 놓으니 생각보다 멀쩡하다 싶었다. 그러나 하나씩 살펴볼 때마다 저마다 사연이 있는 아쉬움들이 눈에 쏙쏙 들어온다. 허리가 늘어나 우는 스커트, 볼륨이 작아 엉덩이 부분이 터질 듯한 스커트, 양쪽 주머니 높이가 다른 스커트, 단추를 잘못 달아 앞이 들리는 스커트, 스티치 선이 뱀처럼 꿈틀꿈틀 기어가는 스커트…….

마네킹을 다시 배치해 본다.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는 스커트들은 구석으로 몰고 좀 잘랐다 싶은 것들을 앞으로 세운다. 사실 이렇게 재배치를 해도 거기서 거기다. 학생들이 만든 스커트는 결국 내가 가르친, 내가 만든, 내 스커트들이다. 내 얼굴이고 내 실력인 것이다.

교수 평가는 이사장님 이하 모든 교수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진다. 교수들이 놓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이사장님과 교장 선생님이 먼저 둘러 보신다. '처음 만든 스커트가 이 정도면 훌륭하지.' 하면서 위안해 봐도 냉엄한 현실 앞에서 가슴이 뚫다. 다행히 큰 지적 없이 잘 '넘어갔다(이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칭찬도 받았던 것 같다.

평가가 끝나고 보니 반마다 다른 성향이 있고 작은 부분에서 놓치는 것들이 달랐다. 평가가 '잘했다, 못했다.'라고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끼리 서로 놓친 부분을 확인하고 더 잘해 나갈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교수 평가 시간은 내가 학생이었던 15년 전에도 있었다고 한다. 교수들에게 또다른 배움의 시간이 되는 공동 평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모드 서울이 패션 스쿨로서 최고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만도 한데 나는 아직도 우리 반 평가시간만 되면 가슴이 콩닥거린다.

분교 간 평가제

매년 1, 2회 열리는 분교장 회의는 패션 관계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국제적인 친교의 장도 되지만 파리 본교에서 제시한 교육목표에 따라 한 해 동안 시행한 결과물들을 비교, 검토하여 앞으로의 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기도 하다.

분교장 회의가 개최되기 5개월 전쯤 파리 본교에서 일정과 프로그램을 공지한다. 아울러 평가회에 제출할 스틸리즘 도시에와 모델리즘 실물 작품 리스트가 학년별로 정해져 전달된다.

분교장 회의에서 분교별 작품을 비교, 평가하는 것은 프로그램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학력 기준까지도 동등하게 유지하여 분교 간의 교육의 일원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근래에는 A학점을 받은 우수 작품만을 선별하여 가져가지만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B학점을 받은 작품까지도 가져갔다. 박윤정 당시 교장은 늘 본교에서 가져오라는 것이상을 이민 가방 몇 개에 가득 담아 손수 끌고 가곤 했다. 파리에서 가장 먼 분교에서 항상 적정 중량을 넘어 초과 요금을 지불하면서도 이렇듯 하지 않았던 것은 하루바삐 파리의 선진화된 패션 교육을 한국에 가져오고자 했던 박 이사장의 열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초창기 분교장 회의 때 가져간 서울 학생들의 작품에 대해서 '색감이 이상하다.'거나 '남성복의 어깨 너비가 넓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에스모드 서울에서는 곧바로 세련된 교육 색깔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남성복 마네킹을 교체하는 등 분교장 회의의 평가를 적절히 수용해 오늘날 어느 분교 못지않게 선진화된 교육을 일구어 낼 수 있었다.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에스모드 교육을 성찰하는 또다른 방법으로 파리 본교에서 교장 또는 프로그램 담당자가 내한하기도 한다. 이들은 파리 본교의 프로그램 개편이나 신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에스모드 서울 교수진들과 함께 졸업작품과 전 학년 도시예를 평가하기도 한다. 그 밖에도 학생들의 발전과정을 체크하기도 하고, 새로운 교수법을 권장하기도 하며, 보다 효율적인 교육 방법론을 모색하는 유용한 시간을 갖는다.

장학 제도

에스모드 서울이 설립된 지 8년째 되던 1997년 3월 24일, 오랜 지인인 일정 오인교 여사가 박윤정 이사장을 조용히 찾았다. 갑자기 무슨 일인가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간 박윤정 이사장에게 오인교 여사는 흰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박윤정 이사장이 수십 년 동안 디자이너 활동을 한 뒤, 인재 양성의 뜻을 품고 패션 학교를 설립하여 열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지켜보던 오인교 여사가 학교 발전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금일봉을 기탁한 것이다. 오인교 여사의 뜻에 감동한 박 이사장은 기탁한 분의 뜻을 오래도록 기릴 수 있는 방법을 며칠 간 고민한 끝에 마련한 것이 바로 '일정 장학금'이다. 에스모드 서울 장학재단의 모태가 된 이 장학금은 마침 IMF의 영향으로 온 나라의 경제가 어렵던 때에 성적은 우수하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긴요한 도움이 되었다.

개교 10주년이 되던 1999년 8월, 재단법인 에스모드 서울 장학재단(발기인 7인: 제1대 장학재단 박윤정 이사장, 김동건 이사, 남기숙이사, 신흥순 이사, 손창희 이사, 이덕신 감사, 이종경 감사)이 설립되었다. 당시 학원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이 화제가 되면서 격려와 찬사가 쏟아졌다. 2004년 9월 개교 15주년을 기하여 제2대 장학재단 이사장으로 방송인 김동건 씨가 취임하면서 장학재단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장학금 기탁자로는 연기자와 사업가, 교육계 인사에서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에스모드 서울 졸업생 중에서도 수년 간 매월 일정 금액을 장학금으로 기탁해 오면서 훈훈한 모교 사랑을 꽃피우는 동문들이 있다.

장학금은 매년 1학기와 2학기, 연 2회에 걸쳐 지급된다. 장학생 선정은 학기마다 열리는 장학금 선발 사정회에서 성적, 출결, 학교 생활 참여도, 가정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후보를 추천하고, 에스모드 서울 장학재단 이사진의 면담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2009년 1학기에는 총 13개의 장학금이 17명의 학생들에게 수여되었다. 에스모드 서울 장학재단은 1999년 발족한 이래 총 35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에스모드 서울 개교 이래 20년 간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는 남기숙 에스모드 서울 장학재단 이사는 2009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마치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에스모드의 가장 큰 자산이며 에스모드의 명성을 높일 수 있는 사람도 바로 여러분.”
이라며 “재단에서 장학 기금 모금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콘테스트나 교내외 행사에서
두각을 나타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지만,
김동건 장학재단 이사장과 이사진들은 전교생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까지 장
학 사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오고 있다.

장학금 리스트

에스모드 서울 이사장 장학금 | 에스모드 서울 장학재단 장학금 | 일정 장학금 |
유순덕 장학금 | 서남재단 장학금 | 정현재단 장학금 | 범은 장학금 | 주용 장학금 |
혜선 장학금 | 지인 장학금 | 보라 장학금 | 지영 장학금 | 록원 장학금 | 니콜라 장학금 |
에스모드 서울 교직원 장학금 | 유진 장학금 | 성진 장학금

장학재단 이사진

김동건 이사장 | 박윤정 이사 | 남기숙 이사 | 신희순 이사 | 김용호 이사 |
이덕신 감사 | 이종경 감사



장학금 수여식 (2006.9)



05

최신 트렌드 지향

졸업작품 발표회

에스모드의 졸업작품 발표회는 졸업을 앞두고 치르는 단순한 통과 의례가 아니라 학생들의 진로를 결정짓는 프로모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심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학생들은 각종 상을 받는 영예뿐만 아니라 취업의 기회도 얻게 되는 것이다.

에스모드에서는 졸업작품 발표회를 연간 학사 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행사로 간주하여 학교측에서 전적으로 행사 진행을 맡고 있다. 학생들 개별 부담으로 진행되는 대학이나 일반 학원의 의상 발표회와 명백히 구별되는 점이다.

에스모드 교수진들은 3년 과정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졸업작품 발표회를 준비하느라 고심을 거듭한다. 교수회의를 거쳐 발표회 주제를 정하고 나면 사무처에서 심사위원을 섭외하고, 대외 홍보를 하는 등 만전을 기한다. 학생들의 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을 모시기 위해 전화 한 통, 초대장 한 장에도 정성을 기울인다.

행사의 주대상이 패션 업계이므로 무대 설치도 소홀히 할 수 없다. 해마다 바뀌는 발표회 주제에 따라 새롭고 신선한 무대와 전시장을 선보여야 하는 것이다.

1996년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국제 종합 발표회를 하얏트 호텔에서, 1999년 에스모드 서울 설립 10주년 기념 졸업작품 발표회를 섬유 센터에서 개최한 것을 제외하고 에스모드의 졸업작품 발표회는 언제나 교내에서 치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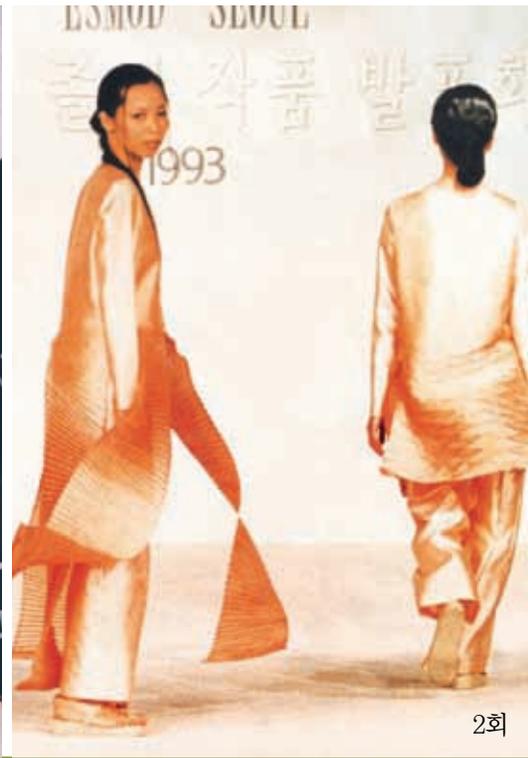
한동안은 부스 형식으로 졸업 심사를 실시하고 발표회를 가져왔으나 2006년부터 살롱 형식의 졸업작품 발표회를 전격 도입했다. 패션계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작품 심사와 더불어 일반인에게도 공개하는 전시회와 패션쇼를 펼치는 것이다.

무대 모델은 대부분 재학생들이 직접 맡고 있다. 단 란제리 전공반만은 외부 모델을 기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 졸업작품 발표회가 가족과 친지들의 축하 잔치에 그치는 반면 에스모드 서울은 2~3차례 갖는 쇼 중에서 1, 2회는 학부모와 일반인을 위한 쇼로, 마지막회는 패션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프레스 쇼로 진행한다. 각종 수상 내역이 결정되는 이 프레스 쇼야말로 졸업작품 발표회의 백미라 할 수 있다.



1회



2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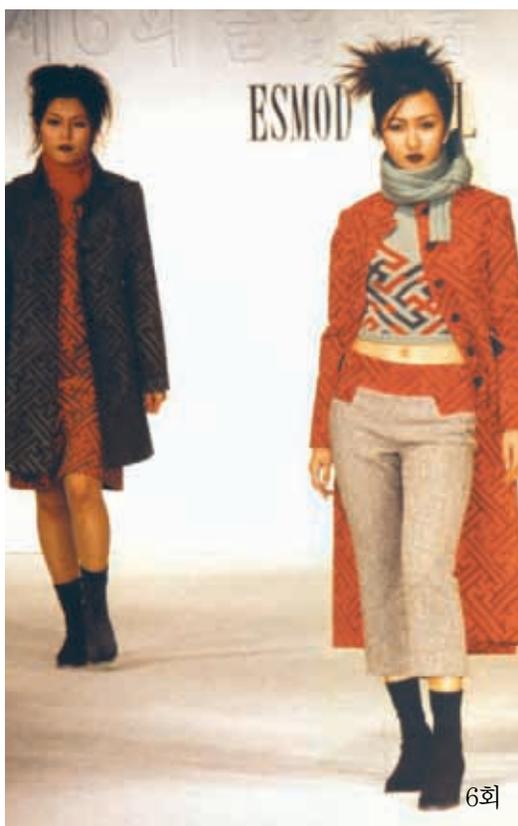


3회

에스모드 서울 역대 졸업작품 발표회



4회









16회



16회



16회





역대 졸업작품 발표회 협찬사

회차	업체명
1회	스위스직물홍보센터 / 신화실크 / 제일모직 / 제일합섬
2회	랑콤 / 박준미장 / 티파니아동복
3회	도남모방 / 마리끌레르 / 삼영모방 / 에어프랑스 / 울마크컴퍼니 / 이철헤어커커 / 한국화장품
4회	마리끌레르 / 삼영모방 / 에어프랑스 / 울마크컴퍼니 / 이철헤어커커 / 태평양화학
5회	도남모방 / 모델라인 / 삼영모방 / 에어프랑스 / 엘르 / 울마크컴퍼니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LG패션 / SBS
6회	도남모방 / 박준미장 / 삼영모방 / 에어프랑스 / 울마크컴퍼니 / 자카디
7회	박준미장 / 삼영모방 / 에어프랑스 / 울마크컴퍼니
8회	도남모방 / 랑콤 / 박준미장 / 삼영모방 / 에어프랑스 / 울마크컴퍼니 / 텐셀 / 한국듀폰
9회	모델센터 / 박준미장 / 삼영모방 / 에어프랑스 / 울마크컴퍼니
10회	동아TV / 로피씨엘코리아 / 에어프랑스 / P&J 박준미장
11회	리베도 / 아이사랑 / 에어프랑스 / 울마크컴퍼니 / 토나정 / 한국패션센터 / P&J 박준미장
12회	보그코리아 / 성주인터내셔널 / 아이사랑 / 울마크컴퍼니 / 코리아트레이딩리아이슨 / P&J 박준 / YKK한국
13회	보그코리아 / 샹탈토마스 / 아이사랑 / 에스까다코리아 / 울마크컴퍼니 / 이경민아트스쿨 / 충무상사 / YKK한국
14회	금호아시아나 / 더슈 / 랑콤 / 렌징마케팅코리아 / 보그코리아 / 성주디엔디 MCM / 아이사랑 / 에스까다코리아 / 울마크컴퍼니 / 이경민포레 / 짐탐슨 / 충무상사 / 태진인터내셔널 루이까뜨즈 / YKK한국
15회	금호아시아나 / 랑콤 / 렌징마케팅코리아 / 보그코리아 / 에스까다 / 울마크컴퍼니 / 주노헤어 / 짐탐슨 / 충무상사 / 루이까뜨즈 / YKK한국
16회	금호아시아나 / 모다 / 박준뷰티랩 / 보그코리아 / 에스까다 / 오픈 / 울마크컴퍼니 / YKK한국
17회	금호아시아나 / 박준뷰티랩 / 보그코리아 / 에스까다 / 오픈 / 울마크컴퍼니 / 지오지아 / Nest by 유양희 / YKK한국
18회	박준뷰티랩 / 보그코리아 / 스와로브스키 / 쌍영방직 / 전주시 / 좋은사람들 / 카파치이나 / AWI / YKK한국

졸업작품 컬렉션 제작과정

꽃으로 피어난 '아버지의 옷장'

조성빈 (18기 / 신원 지이크 디자인실)

졸업작품 발표회는 에스모드 서울 학생들이 3학년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프로모션의 장이 된다. 학생들은 각자의 전공에 따라 디자인부터 봉제까지 자신의 작품을 디자인, 기획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다음은 제18회 졸업작품 발표회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조성빈 학생이 졸업작품 컬렉션을 준비한 일련의 과정을 세캥스^{Séquence, SEQ} 별로 기록한 것이다.

1 SEQ

스틸리즘 | 1 SEQ에서 시대별 복식사 연구와 트렌드 분석 후 처음 착수한 것은 'My universe'를 찾는 것이었다. 나는 '착시[Trompe l'oeil]'라는 주제로 작품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OPI^{창작 디자인} 셔츠 디자인은 내가 처음 설정한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 애썼다. '학생 작품'이 범할 수 있는 실수를 하지 않고자 최대한 디테일을 배제하고 미니멀한 실루엣을 전개하였다.

모델리즘 | 남성복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인 셔츠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캐주얼, 정장 셔츠 패턴의 차이점에 대해 배웠다. 지정 모델은 이것을 바탕으로 스스로 실루엣을 찾아 가며 패턴을 그리고 가봉 후 재단하여 봉제하였다. 칼라의 느낌을 살리는 부분이 무척이나 힘들었다. 얇은 소재라서 재단물 밑에 전지를 깔고 봉제하느라 애로사항이 많았다.

2 SEQ

스틸리즘 | 도시예를 진행하면서 메인 소재 개발로 엠보싱 효과를 선택했다. 우선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원단 하단부에 시물을 놓고 다리미로 눌러 문양을 새겨 보았다. 5월, 졸업작품 디자인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일본에 다녀왔다. 도쿄의 수많은 의류 매장에서 영감을 받고 돌아오니 내 디자인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

모델리즘 | 캐주얼 바지와 정장용 바지의 패턴 구성에 대해 배우고 가봉해 보았다. 그레이딩과 각 아이템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학습하였다. 남성복의 가장 상징적인 아이템, 테일러드 수트에 대해 배웠다. 내가 선택한 모델은 '아버지의 옷장[my father's closet]'이라는 컬렉션의 주제에 맞도록 품이 넉넉하고 레귤러 칼라와 라펠을 가진 모델이었다.

3 SEQ

스틸리즘 | 졸업작품 1모델의 디자인을 확정짓고 전반적인 도시예를 구축해 놓았다. 소재 개발에서도 일약 진보하였는데, 레이스만 찍던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양으로 발전시켰다. 여름 방학 동안 을지로, 종로, 의정부의 벨벳, 엠보싱 관련 업체를 찾아다녔다. 대구의 벨벳 업체 관계자와 미팅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갔다.

모델리즘 | 30개의 디자인 스케치 중 한 모델을 골라 precollection 제작을 하였다. 벨벳은 굉장히 까다로운 소재다. 벨벳과 폴리에스테르 원단을 합병하려면 벨벳이 손상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얇은 스펀지를 원단과 원단 사이에 끼워 놓고 봉제를 했다. 졸업 작품 준비는 철저한 자기 관리와 시간 배분의 싸움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는 옷을 먼저 시작했다.



4 SEQ

스티liz즘 | 소재 개발에 컴퓨터 자수를 추가하였다. 시간과 가격이 수동 자수에 비해 비싸긴 하지만 퀄리티 면에서 월등히 앞선다. 한편 실크스크린 기법은 1모델 바지 포켓 부분에만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수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엠보싱 소재 개발에서 벨벳에 예상 외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였다.

모델리즘 | 8월 18일, 2학기를 시작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졸업 작품 실물 제작에 들어갔다. 재킷은 패치워크 기법으로 시점의 방향을 바깥쪽으로 꺾어서 스티치하여 색깔의 변화를 주는 방식이어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 셔츠와 바지는 자수가 안 나와 재단 먼저 해 놓고 2모델 조끼 아이템을 진행하였다. 그 사이 자수된 재단물을 받아 작업을 재개하여 무난히 22일까지 제출하였다.

5 SEQ

스티liz즘, 모델리즘 마무리 작업 | 졸업 작품전이 가까워 올수록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여 갔다. 아주 큰 문제가 소재에서 발생했다. 나는 벨벳에 엠보싱 기법을 적용하려 했다. 발에 물집이 잡혀가며 가까스로 찾아 낸 공장에서 주물을 깎고 벨벳을 눌렀다. 누른 직후에는 문양이 선명했지만 다음 날 모두 사라진 걸 보고 깜짝 놀랐다.

벨벳의 복원력 때문이었다. 1년 동안 어렵게 준비해 온 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 같았다. 정말이지 포기하고 싶었다. 선생님들께서 기운을 북돋아 주셨다. 다시금 일어서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 내고, 수십 번의 재단과 수백 번의 누름을 한 결과 전공별로 진행되는 세 차례의 가봉을 거쳐 마침내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얻게 되었다.

11월 26일, 졸업작품 심사일. 심사위원들께 내 졸업작품 컬렉션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다.

“저는 ‘아버지의 옷장’이라는 주제로 어렸을 때 아버지의 옷을 입었던 기억을 재구성해 올드한 감성의 컬렉션을 제작했습니다. 오버사이즈 재킷과 배기팬츠 등 일상적인 아이템들을 모던하면서도 빈티지하게 디자인했습니다. 울, 벨벳, 저지, 가죽 등 다양한 소재를 엠보싱 기법을 통해 새롭게 연출해 보았습니다.”

2008년 12월 11일 졸업 작품 쇼가 있던 날, 꽃은 활짝 피었다. 나는 졸업작품 쇼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다. 그 꽃은 그 동안의 모든 시련을 말끔히 보상해 주었다.



졸업작품 발표회 무대 설치

늘 새로운 무대를 꿈꾸다

김남형 관리실 부장

해마다 졸업작품 발표회 때가 돌아오면 에스모드 서울 교내는 긴장감으로 술렁이게 됩니다. 학생들이 3년 동안 배운 모든 것들을 꽃피우는 자리가 바로 졸업작품 발표회이기 때문입니다. 교내 시설관리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저도 이 즈음이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졸업작품 컬렉션을 진열할 부스를 만들고, 패션쇼를 위한 무대를 꾸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전체 교수회의를 거쳐 패션쇼의 주제가 정해집니다. 그 해의 콘셉트가 무엇일지 저는 매우 기대되고 또 흥분됩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전공별 특색을 살려 가장 효과적으로 연출할 무대를 구상합니다. 관리실에서는 무대 설치 작업을 합니다. 해마다 하는 작업이지만 늘 처음 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때 그때 주제에 따라 새로운 무대 디자인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에스모드에서는 여느 대학이나 학원과 달리 졸업작품 발표회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학교에서 전담합니다. 물론 시설물 설치의 모든 작업을 관리실에서만 전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커다란 행사의 주인공들인 3학년 학생들과 담당교수님들이 팔짱 끼고 지켜볼 리가 없지요. 교수님들과 학생들과 관리실 직원들이 힘을 모아 아간작업을 하느라 떠들썩하곤 합니다.

졸업작품 심사를 위한 부스는 학생들이 공부하던 교실과 아르누보 홀에 설치됩니다. 단순한 일들은 학생들이 돕고 장비와 숙련이 필요한 작업은 관리실 직원들이 합니다. 의욕이 앞섰다가 낭패를 겪기도 합니다. 심사 부스를 멋지게 만들기 위해 우드락 위에 석고를 발라 벽체를 세우다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휘어져서 다시 바로잡느라 애를 먹은 때도 있었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졸업작품 발표회의 하이라이트인 패션쇼가 아르누보 홀에서 열립니다. 초기에는 외부업체에서 연출과 무대 설치를 맡았으나 점차 학교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아르누보 홀은 캠퍼스를 위한 포디움과 벽이 모두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무대를 선보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무대로 쓰던 포디움의 높이가 높았으나 학생들의 신장이 커지면서 포디움을 잘라 낮은 무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패션쇼의 막이 오르면, 저도 졸업작품을 발표하는 학생들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곤 합니다. 학생들이 작품을 선보이는 것처럼 저로서는 무대 설치물들을 모든 관중에게 선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뿌듯함과 아쉬움으로 설치물들을 바라보며 보다 세련된 무대를 꿈꾸어보곤 합니다.

“교수회의를 거쳐 졸업작품 발표회의 주제가 정해지면 매해 그 주제에 따라 새로운 무대 디자인을 선보이게 됩니다.”

아르누보 홀

에스모드 서울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곳으로 손꼽히는 아르누보 홀. 개교 후 1년간의 공사 끝에 1990년 에스모드 서울 교사 지하 1층에 330㎡(100평) 면적의 아르누보 홀이 만들어졌다. 이동무대, 조명, 음향시설 등을 완벽히 갖춘 홀을 개관함으로써 에스모드에서는 작품 발표회, 전시회, 축제 및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 등을 외부 장소를 빌리지 않고 학교 안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들은 졸업작품 심사와 패션쇼, 학년별 발표회 등을 준비하면서 의상을 만드는 과정만큼이나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한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1990년 6월, 2학년 진급발표회를 시작으로 아르누보 홀에서는 매년 많은 행사가 열렸다. 학기 중에는 인체 데생, 복식사, 특강 등 대형 강의실로 쓰이다가 특별주간에는 매 분기 학생들의 작품을 비교 평가하는 곳으로 쓰이기도 한다. 또한 1학년 미니데필레, 2학년 워크숍 발표회, 3학년 졸업작품 패션쇼와 전시회 등 학년별

작품 발표회가 열리기도 하고, 생트 카트린^{St. Catherine} 축제가 열리는 파티 장으로 변신하기도 한다. 1995년에는 아르누보 홀이 결혼식장으로도 사용되기도 했다. 3회 졸업생 윤광식, 황보연 커플이 박윤정 이사장의 주례로 많은 동문들의 축복 속에 에스모드 서울 재호 캠퍼스 커플로 태어난 것이다.

아르누보 홀은 교내 행사를 위한 발표회장으로서만 아니라 패션쇼가 지나는 일회성을 보완하고 디자이너의 창작세계를 깊이 있게 보여주며, 세계적인 패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패션 전시장으로도 사용되어 왔다.

1991년에는 디자이너 이신우 초대전이 열릴간 개최되었으며, 1992년부터 1997년까지는 매년 이화여자대학교 산업 디자인 대학원 학생들의 작품전이 열렸다. 2006년 9월에는 한불수교 120주년 기념 전시가 개최되는 등 아르누보 홀은 패션과 관련된 여러 외부 행사장으로도 쓰이고 있다.



아르누보 홀에서의 인체 데생 수업

자료실

자료실은 1989년 개교 당시 박윤정 이사장이 30여 년 간 파리, 미국, 일본, 홍콩 등지에서 수집해 온 패션 및 미술 전문서적들을 바탕으로 꾸려졌다. 이사장의 은사인 안현민 선생께서 기증하신 서적들이 보태어졌고 트렌드에 따라 패션 신간들을 꾸준히 확충해 왔다. 그 밖에도 교수들과 후견인들의 기증이 이어지면서 장서가 늘어나고 있다. 2009년 현재 단행본 2천여 권과 잡지 2만여 권이 비치되어 있다.

연속 간행물로는 19세기 말부터 발간된 프랑스의 고서 《라 모드 일뤼스트레 La Mode Illustrée》를 비롯, 1923~1936년대에 발간된 《페미나 Femina》, 1987년부터 연대별로 합본되어 있는 《콜레지오니 Collezioni》와 같은 귀중한 자료들이 소장되어 있다.

도서 이외에도 파리 본교로부터 받은 에스모드 교육 자료, 슬라이드, 역대 졸업 작품들과 재학생들의 워크숍 작품집 등이 체계적으로 자료화되어 있다. 또한 본교와 분교의 행사, 오트 쿠튀르 컬렉션, 프레타 포르테, 패션의 역사와 문화, 에스모드 서울 관련 국내외 기사 등을 2005년 DVD로 전환시켜 생생한 영상 기록물로 접할 수 있다.

자료실은 원활한 자료 활용과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과 설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자료실 한 칸에는 각종 직물들을 혼용률별, 조직별, 중량별로 분류해 놓은 소재실이 있다. 디자인 표현의 중요 요소로 대두하고 있는 섬유 소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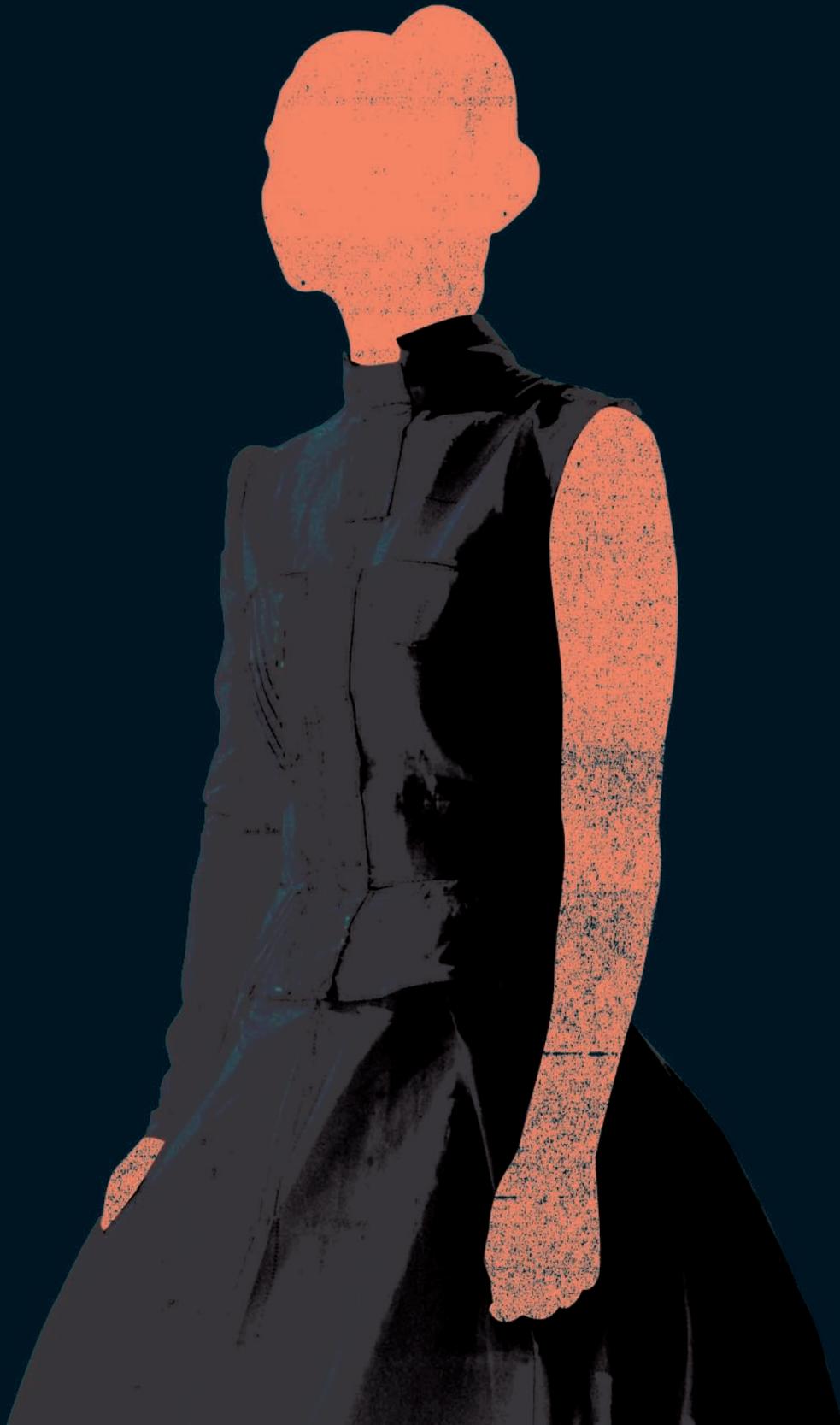
2006년, 자료실 2층에 우수졸업 작품 소장실이 마련되었다. 대한민국 패션 대전 대통령상 수상작들을 비롯, 우수졸업 작품 수상작을 전공별로 분류하여 1기부터 빠짐없이 자료화하고 있는 이곳은 에스모드 서울의 도전과 성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이 작품들은 에스모드 서울의 스틸리즘과 모델리즘이 조화된 교육방식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구체화되고 창의적인 작품으로 표출되었는지를 보여 주며, 후배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의 패션을 제안하게 하는 상상력의 보고로 작용하고 있다.



part

02

최고의 패션디자인 플랫폼
이렇게 아름답게 있다



part

03

주목받는

에스모드서울

A dark, textured silhouette of a person's head and shoulders, possibly a student, against a bright orange background. The silhouette is rendered in a dark, almost black color with some internal texture and shading, suggesting a close-up of a person's face and neck. The background is a solid, vibrant orange color.

01

입학생

입학 설명회



입학 설명회 (2008)

에스모드 서울에 응시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두 가지이다. 첫번째 조건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이며, 두 번째 조건은 에스모드 서울에서 개최하는 입학 설명회 참석이다. 입학 설명회는 에스모드 서울의 입학 안내에서부터 교과 과정까지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자세하게 진행된다. 3년간 배우게 될 내용을 영상자료를 통해 보고, 미니 쇼를 통해 학생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재학생과 졸업생의 체험담을 들으면서 에스모드의 교육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

에스모드 서울의 교과과정은 매우 타이트하게 진행되므로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와 동기를 가진 학생들만이 3년간의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학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신중하게 입학할 결정하라는 의미에서 입학 설명회 참석이 필수 요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입학 설명회를 듣고 나면 교수진들과 개별 면담도 가능하다.

입학 설명회의 내용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지만, 개교 이후 2009년 현재까지 변함없이 연 네 차례에 걸쳐 개최하고 있다. 에스모드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개별 상담을 하러 오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기도 하지만, 입학 설명회에 참석하는 것이 에스모드 교육의 전모를 파악하고 신뢰를 갖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지원을 앞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친지들이 함께 참석하기도 하고, 중고등 학생들이 본인의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 미리 설명회에 오는 등 에스모드의 입학 설명회는 해마다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다.

에스모드 서울이 추구하는 인재상

장혜림 교장

에스모드가 생각하는 인재상은 과연 어떠한가? 에스모드에 진학하고자 하는 지원자들 가운데 어떤 성향의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선발되며, 학교에서는 어떻게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에스모드의 입학 전형은 1차적으로 고교 생활기록부, 학력 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지만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개별 면접이다. 면접 경험이 없는 지원자들은 대개 4~5명의 면접관 앞에서 긴장을 하게 마련이다. 면접관들은 지원자들이 긴장을 풀고 자신의 이력과 꿈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 주면서 질문을 한다. 패션에 관한 표피적인 지식을 캐묻거나, 상투적인 질문은 피한다. 지원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그때 그때 질문이 던져지는 개별 심층 면접이므로 이에 대한 모범답안 또한 없다.

에스모드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매우 다양하다. 수학능력고사를 막 치른 고교 졸업 예정자가 있는가 하면, 에스모드에 빨리 입학하기 위해 고졸 검정고시 자격을 취득한 앳된 학생도 있다. 최근엔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오는 대학생들이 부쩍 많아졌고, 잘 나가던 직장에 사표를 던지고 오는 직장인도 있다. 재수, 삼수까지 하다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온 젊은이와 군 복무 내내 에스모드 입

학을 기다렸다는 제대를 눈앞에 둔 군인도 있다. 그런가 하면, 결혼해 아이를 낳고 기르다가 자아 실현을 위해 에스모드의 문을 두드리는 가정 주부도 있다. 면접 현장에서 만나는 개인의 역사는 실로 다양하지만 에스모드에서 패션을 공부해 보고자 하는 열망만은 하나같이 똑같다.

면접에 임하는 지원자들은 본인의 재능과 굳은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한다. 성실하게 보이기 위해 일부러 교복을 입고 오거나 디자이너를 꿈꾸는 사람답게 개성 있는 옷차림을 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엉뚱하게도 입시와 전혀 관련 없는 부대장 추천서를 제출하는 군인이 있는가 하면, 어린 시절부터 디자이너를 꿈꾸어 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다섯 살 때부터 그려 모은 그럴싸한 포트폴리오를 가져오거나, 유치원 시절부터 써 온 수십 권의 일기장을 가져온 학생도 있다. 어떤 지원자는 미래에 본인이 론칭할 브랜드를 문신한 가슴을 서슴없이 펼쳐 보여 면접관들을 놀라게 한 적도 있다. 젊은이다운 치기와 패기가 뒤섞인 순수한 열망은 종종 감동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합격자들의 공통점은 사회적인 편견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스스로 선택했다는 점이다. 수

능 점수에 맞추어 대학을 고르거나 부모의 뜻대로 진로를 정하는 학생들과는 뚜렷이 구분된다. 이처럼 합격자들이 지닌 뚜렷한 자기 주관과 동기야말로 에스모드 서울을 우수 교육기관으로 성장시킨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된다. 패션에 대한 강렬한 열정을 지닌 학생들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에스모드를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우리는 이들을 더욱 잘 가르쳐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끼곤 한다. 에스모드가 추구하는 인재상은 바로 독창성과 창조성을 지닌 자기 주도적인 인간형이다. 독창성이 결여된 디자인은 생명력을 갖지 못하며, 자기가 주도하지 않는 디자이너는 타인의 감성을 자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에스모드에서는 이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답보다는 질문을, 암기보다는 창의를, 일치보다는 개성을, 획일화된 결과보다는 차별화된 과정을 중시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열정과 호기심,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 않는 모험가의 기질로 시대의 변화를 예민하게 포착하여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에스모드 서울의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인재라고 할 수 있겠다.

“열정과 호기심,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 않는 모험가의 기질로 시대의 변화를 포착하여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에스모드 서울의 인재상이다.”

에스모드 서울은 설립 초창기에 이미 입학 전형에 위한 포트폴리오 제출을 폐지했다. 에스모드 파리 졸업생에게 부탁을 하거나 입시 미술학원에서 과외로 만든 포트폴리오로는 공정한 전형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최근 대학에서 성적이나 실기시험 대신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에스모드 서울에서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실기시험도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여 인재를 길러 내고 있다. 이것은 ‘아무것도 몰라도’, ‘할 수 있게’ 가르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에스모드는 교직원을 통한 입시 청탁을 금지하고, 면접 시간에 지각한 지원생들을 당해 연도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없게 하는 등 선발 규정을 엄정하게 해 오고 있다.



에스모드 서울 입학기

나는 이렇게 에스모드와 만났다

윤소정(3학년)

어릴 적 꿈을 말하며 지금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오랜 시간 바라왔던 일인지를 말하는 친구들이 항상 부러웠다. 장차 무엇을 하고 싶은지 확신이 없었던 나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 뭔지, 또 그걸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존경스러웠다. 지난 2007년,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며 에스모드 서울에 입학하기까지 나는 나의 미래에 대해 무수한 방향과 고민을 해 왔다.

극단에 지원하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던 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미대 입시를 준비했다. 하지만 우연히 시작한 연극 동아리 활동에 빨려 들기 시작했다. 미대와 연극영화과 사이에서 갈등하던 나는 연극 영화과에 지원했지만 결과는 낙방이었다. 그래도 배우가 되고 싶은 꿈은 버릴 수 없었다. 배우를 모집하는 오디션에 응해 밀양에 있는 극단에 들어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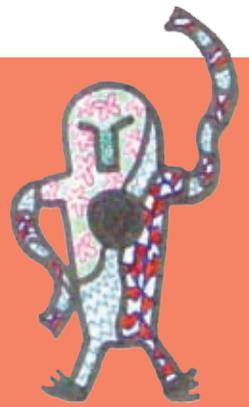


무대의상을 제작하며 패션 디자이너의 꿈을 발견하다

신참 배우로서 온갖 굵은일을 다 하던 내게 또 하나 주어진 일이 있었으니 바로 무대 의상 제작이었다. 배우로 무대에 오르면서 동시에 의상을 담당하는 일은 힘들었다. 극장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몇 시간이고 그림을 그리고 패턴을 만들었다. 더러워진 의상을 세탁하고 다리미질을 하며 극단이 소유한 몇천 벌의 옷을 관리해야 했다. 몸은 고달팠지만 신기하게도 나는 그 일에 빠져들고 있었다. 오히려 무대에 오르는 것보다도 더욱 큰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뮤지컬 '화성에서 꿈꾸다'의 의상 팀원으로 일했고, 내가 의상을 담당한 연극 '아름다운 남자'는 서울 연극제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다. 내가 만든 옷이 무대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침내 내가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나는 본격적인 패션 공부를 위해 에스모드 서울에 진학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티셔츠 디자인도 해 보고, 스타일화도 미리 그려 보면서 차분히 에스모드 입학 준비를 했다.





다시 찾은 나의 꿈, 패션 디자이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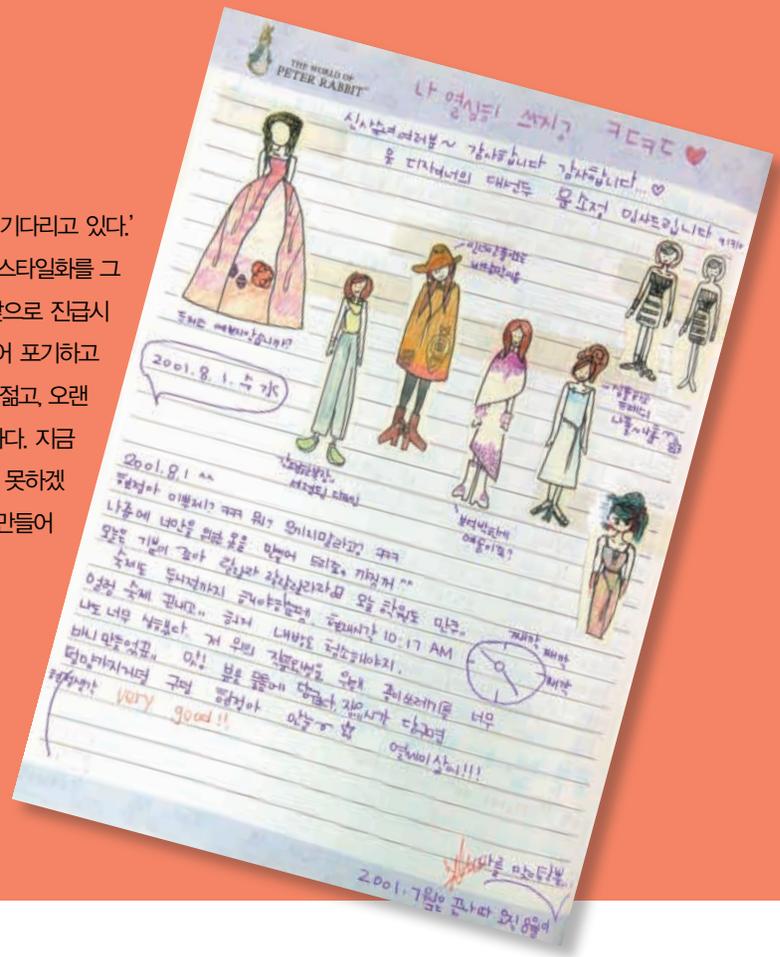
에스모드 1차 면접에 합격한 뒤에 우연히 어린 시절 그림 일기를 발견했다. '나의 꿈 디자이너'라는 제목 밑에는 '나는 디자이너가 되어서 선생님과 친구들의 옷을 멋있게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재봉틀과 옷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또 중학교 때 썼던 일기장 한 칸에는 친구에게 '나중에 너만을 위한 옷을 만들어 줄게.'라는 글과 함께 드레스며 판초 스타일의 옷 그림이 있었다. 오래도록 잊고 있었던 내 꿈이 고스란히 일기에 담겨 있었다.

나는 지금 에스모드 서울에 입학해서 어린 시절에 꾸었던 그 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무대 의상 작업을 해 보긴 했지만 너무나 주먹구구식이었던 터라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했던 나에게 에스모드 서울은 확실한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

에스모드 서울을 통해 꿈 이루고 싶어

나는 '당장의 만족을 유예하면 더 큰 만족과 성공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참 좋아한다. 이제 1학년 몇 달을 보낸 지금, 스타일화를 그리고 스커트를 만드는 일은 낯설면서도 재미있다. 앞으로 전공시험과 졸업작품 발표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아직 젊고, 오랜 방향 뒤에 되찾은 패션 디자이너의 꿈은 너무 소중한데, 지금 당장은 또래 친구들과처럼 대학 생활의 여유를 즐기지 못하겠지만 어느 순간 나의 노력들이 미래의 훌륭한 나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 이 글은 윤소정 학생이 에스모드 서울에 입학한 2007년에 작성한 글이다.





02

콘테스트 수상

콘테스트 수상

지난 20년간 에스모드 서울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콘테스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한국 섬유산업 연합회가 후원하고 한국 패션 협회가 주최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패션 콘테스트인 대한민국 패션대전에서 에스모드 서울은 12회, 13회, 21회, 23회 대회 등 네 차례에 걸쳐 대통령상인 대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뿐만 아니라 2006년에는 산업자원부 장관상, 2007년 대회에서는 국무총리상과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에스모드 서울은 대한민국 패션대전이 개최된 이래 교육 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수상자를 배출하고 있다.

에스모드 서울은 국내외 정상급 디자이너들의 등용문인 중앙 디자인 콘테스트에서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 연속 대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에스모드 서울 1회 졸업생부터 국내외 여러 콘테스트 상위 입상의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국내 최고의 패션 디자인 콘테스트에서 에스모드 서울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개교 10년 이후부터이다. ‘예술작품으로서의 옷’에서 ‘입을 수 있는 옷’으로 패션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주요 콘테스트에서도 활동성이 배제된 추상적이고 조형적인 의상보다는 독창성이 가미된 실용적인 작품이 심사의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입을 수 있는 옷 만들기’라는 교육목표를 추구해 온 에스모드가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패션대전에 패턴 메이킹 실기시험이 추가됨으로써, 스틸리즘과 모델리즘 병행교육을 받아 온 에스모드 서울 학생들이 더욱 각광받게 되었다.

국내 콘테스트에서뿐만 아니라 국제 패션 콘테스트에서도 두각을 드러내 온 에스모드 서울 동문들은 일본 아시아 패션 그랑프리 콘테스트, 이탈리아 미넬모다 콘테스트, 일본 나고야 패션 콘테스트, 프랑스 디나르 신진 디자이너 콘테스트, 미국 젠아트 콘테스트, 중국 차이나컵 국제 패션 디자인 콘테스트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올린 바 있다.

한편 에스모드 서울은 세계적인 코스메틱 브랜드 랭콤이 뽑은 가장 뛰어난 패션 교육 기관으로 선정되어 2005년과 2006년 2년 연속 한국 독점 파트너 자격으로 ‘랑콤 컬러 디자인 어워드’에 참가하기도 했다.

역대 콘테스트 수상자

1991



일본 미즈노 국제 콘테스트
입상 전범준 (1기)

1992

- 중앙 디자인 콘테스트
금상 김경 (2기)
- 일본 미즈노 국제 콘테스트
입상 이혜선 (2기)



중앙 디자인 콘테스트
은상 정옥준 (2기)

1993

- 중앙 디자인 콘테스트
은상 윤광식 (3기) 동상 양복형 (1기)
- 일본 미즈노 국제 콘테스트
입상 손재현 (3기)



중앙 디자인 콘테스트
금상 김형철 (1기)

1997

- 중앙 디자인 콘테스트
은상 조은미 (2기) 장려상 허미혜 (3기)
- 프랑스 국제 신인 디자이너 콘테스트
입상 박양숙 (7기)
- UNESCO DESIGN 21
입상 박순경 (7기) 심선주 (7기) 윤경규 (7기)



프랑스 국제 신인 디자이너 콘테스트
은상 김상철 (7기)

1998

- 중앙 디자인 콘테스트
은상 김정미 (8기) 장려상 김은혜 (6기)
- 이태리 미텔모다 콘테스트
여성복 부문 2등 조은미 (2기)
- 마랑고니 장학생 선발 패션 콘테스트
입상 김윤정 (6기)



고어 콘테스트
자유복 부문 최우수상 허미혜 (3기)

1994

- **중앙 디자인 콘테스트**
은상 길연수⁽¹⁷⁾ 동상 태명은⁽³⁷⁾
- **일본 아시아 패션 그랑프리 콘테스트**
특별상 윤광식⁽³⁷⁾
- **인도네시아 아시안 패션 컴피티션**
최우수상 길연수⁽¹⁷⁾



대한민국 섬유 패션대전
대상 길연수⁽¹⁷⁾

1995

- **중앙 디자인 콘테스트**
은상 최유정⁽²⁷⁾ 동상 박성미⁽⁴⁷⁾
- **일본 아시아 패션 그랑프리 콘테스트**
일본 직물협회상 김다인⁽⁵⁷⁾
- **UNESCO DESIGN 21**
입상 전세원⁽⁴⁷⁾



대한민국 섬유 패션대전
대통령상 김다인⁽⁵⁷⁾

1996

- **대한민국 섬유 패션대전**
은상 심혜원⁽³⁷⁾ 장려상 이은주⁽⁷⁷⁾
- **매경 패션 디자인 콘테스트**
은상 조현수⁽⁶⁷⁾



프랑스 국제 신인 디자이너 콘테스트
한국대회 엘르 특별상 김형진⁽⁶⁷⁾

1999

- **두타 벤처 디자이너 공모전**
동상 김윤정⁽⁶⁷⁾



일본 ATF 아시아 신인 디자이너
콘테스트 2등상 김다인⁽⁵⁷⁾

2000

- **대한민국 섬유 패션대전**
베스트패턴상 김윤정⁽⁶⁷⁾
- **중앙 디자인 콘테스트**
장려상 채은하⁽¹⁰⁷⁾ 특별상 최지형⁽¹⁰⁷⁾
- **두타 벤처 디자이너 공모전**
동상 천명지⁽¹¹⁷⁾
- **대한민국 니트 디자인 공모전**
최우수상 김유정⁽¹¹⁷⁾ 입선 김승연⁽¹¹⁷⁾
- **일본 아시아 컬렉션 국제 콘테스트**
입선 윤효정⁽¹⁰⁷⁾ 최지형⁽¹⁰⁷⁾
- **엘르 패션디자이너 공모전**
장려상 문에덴⁽¹⁰⁷⁾
- **서울 패션 디자인 공모전**
장려상 김윤정⁽⁶⁷⁾



중앙 디자인 콘테스트
은상 이희승⁽¹⁰⁷⁾

2001

- **중앙 디자인 콘테스트**
금상 이지선⁽¹¹⁷⁾ 은상 천명지⁽¹¹⁷⁾
장려상 김세창⁽¹¹⁷⁾ 조영선⁽¹¹⁷⁾
천애주⁽¹²⁷⁾
- **미국 Gen Art 콘테스트**
남성복 부문 입선 이수정⁽¹⁰⁷⁾
- **일본 아시아 컬렉션 국제 콘테스트**
특별상 진기영⁽¹¹⁷⁾
- **일본 나고야 패션 콘테스트**
입선 박미선⁽¹¹⁷⁾
- **두타 벤처 디자이너 컨퍼런스**
학생부 은상 천애주⁽¹¹⁷⁾
- **대한민국 속옷 대전**
금상 이정환⁽¹⁰⁷⁾ 동상 선희정⁽¹⁰⁷⁾
- **대한민국 니트 디자인 공모전**
우수상 김세창⁽¹¹⁷⁾
- **With 패션 디자인 콘테스트**
장려상 이지선⁽¹¹⁷⁾
- **전주 한지 패션 디자인 경진대회**
입선 김승연⁽¹¹⁷⁾



일본 Hep Five 콘테스트
Five상 김은진⁽¹¹⁷⁾

- **두타 벤처 디자이너 컨퍼런스**
학생부 은상 천애주⁽¹¹⁷⁾
- **대한민국 속옷 대전**
금상 이정환⁽¹⁰⁷⁾ 동상 선희정⁽¹⁰⁷⁾
- **대한민국 니트 디자인 공모전**
우수상 김세창⁽¹¹⁷⁾
- **With 패션 디자인 콘테스트**
장려상 이지선⁽¹¹⁷⁾
- **전주 한지 패션 디자인 경진대회**
입선 김승연⁽¹¹⁷⁾



일본 나고야 패션 콘테스트
입선 권정희⁽¹¹⁷⁾

2003

- **대한민국 패션 대전**
은상 유유나⁽¹³⁷⁾ 장려상 정승훈⁽¹³⁷⁾
- **중앙 디자인 콘테스트**
장려상 김명진⁽¹³⁷⁾
- **서울 모델리스트 콘테스트**
학생부 우수상 하은미⁽¹³⁷⁾
입선 김민정⁽¹³⁷⁾ 윤유민⁽¹⁵⁷⁾



대한민국 패션 대전
대상 김명진⁽¹³⁷⁾

- **일본 나고야 패션 콘테스트**
특별상 이지선⁽¹¹⁷⁾ 입선 최종주⁽¹³⁷⁾
- **일본 HEP FIVE 콘테스트**
가작 박미진⁽¹³⁷⁾ 장은주⁽¹³⁷⁾
- **대구 PID 세계 패션 디자인 콘테스트**
은상 김종문⁽¹²⁷⁾
- **대전 패션 디자인 경진대회**
입선 방정옥⁽¹³⁷⁾



일본 나고야 패션 콘테스트
은상 방정옥⁽¹³⁷⁾

2002

- **중앙 디자인 콘테스트**
 금상 김종문⁽¹²⁷⁾ 은상 송미연⁽¹²⁷⁾
 동상 위세나⁽¹²⁷⁾ 이은주⁽¹³⁷⁾
 장윤미⁽¹³⁷⁾ 장려상 한주람⁽¹²⁷⁾
- **일본 Hep Five 콘테스트**
 입선 김우미⁽¹²⁷⁾
- **대구 PID 세계 패션 디자인 콘테스트**
 금상 이문희⁽¹¹⁷⁾ 심사위원상 김승연⁽¹¹⁷⁾
 특별상 김은진⁽¹¹⁷⁾



일본 나고야 패션 콘테스트
 금상 송민지⁽¹²⁷⁾

- **부산 패션 디자인 경진대회**
 대상 임정길⁽¹²⁷⁾
 입선 안현선⁽¹²⁷⁾ 고종이⁽¹²⁷⁾
- **롯데백화점 패션 디자인 콘테스트**
 금상 김지혜⁽¹³⁷⁾ 은상 한서영⁽¹³⁷⁾
 동상 현지원⁽¹³⁷⁾
- **한산모시 콘테스트**
 대상 전세원⁽⁴⁷⁾
- **YK038 SATIN 패션 공모전**
 3등상 천애주⁽¹²⁷⁾



이태리 미텔모다 국제 콘테스트
 입선 안성희⁽¹¹⁷⁾

2004

- **대한민국 패션 대전**
 동상 민영록⁽¹⁴⁷⁾ 박귀희⁽¹⁴⁷⁾
 입선 고석주⁽¹⁴⁷⁾ 권형상⁽¹⁴⁷⁾ 서연진⁽¹⁴⁷⁾
- **중앙 디자인 콘테스트**
 장려상 김영지⁽¹⁴⁷⁾ 이경화⁽¹⁴⁷⁾
- **중국 차이나컵 국제 패션 디자인 콘테스트**
 남성복 부문 금상, 특별상 방정옥⁽¹³⁷⁾
 란제리 부문 동상, 특별상 임정길⁽¹³⁷⁾
 이동복 부문 장려상, 특별상 현지원⁽¹³⁷⁾
 여성복 부문 특별상 장은주⁽¹³⁷⁾



중앙 디자인 콘테스트
 대상 서연진⁽¹⁴⁷⁾

- **비즈니스 창립 50주년 기념 디자인 공모전**
 대상 김성희⁽¹⁴⁷⁾ 은상 이민영⁽¹⁴⁷⁾
 동상 문희정⁽¹⁴⁷⁾
- **SAGA-ESMOD INTERNATIONAL 디자인 컴페티션**
 모피 재해석 부문 1등상 최지영⁽¹⁵⁷⁾
 액세서리 부문 1등상 최인정⁽¹⁴⁷⁾
 모피 재해석 부문 2등상 서연진⁽¹⁴⁷⁾
- **잠뱅이 데님 DIY 콘테스트**
 2등상 조중훈⁽¹⁵⁷⁾



대한민국 패션 대전
 금상 정보람나⁽¹⁴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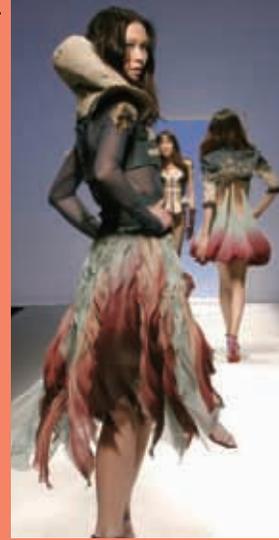
2005

- **대한민국 패션 대전**
 금상 전선영⁽¹⁵⁷⁾ 장려상 지윤희⁽¹⁵⁷⁾
 입선 삼규석⁽¹⁵⁷⁾ 민지정⁽¹⁵⁷⁾
 장명화⁽¹⁵⁷⁾ 배준⁽¹⁵⁷⁾
- **중앙 디자인 콘테스트**
 대상 정요섭⁽⁶⁷⁾ 장려상 위서현⁽¹⁵⁷⁾
 입선 정문석⁽¹⁵⁷⁾
- **서울 모델리스트 콘테스트**
 학생부 우수상 장미림⁽¹⁵⁷⁾



대한민국 패션 대전
 대상 최지영⁽¹⁵⁷⁾

- **중국 차이나컵 국제 패션 디자인 콘테스트**
 남성복 부문 은상, 소재 개발상
 정보람나⁽¹⁴⁷⁾
 여성복 부문 동상, 컬러 패브릭상
 장선희⁽¹⁴⁷⁾
 란제리 부문 장려상 문희정⁽¹⁴⁷⁾
 아동복 부문 동상, 소재 개발상
 서민지⁽¹⁴⁷⁾
 아동복 부문 동상 이승진⁽¹⁴⁷⁾
- **대구 PID 세계 패션 디자인 콘테스트**
 장려상 신애리나⁽¹⁵⁷⁾
- **랑콤 컬러 디자인 어워드 :**
 Modern Femenity상 권선희⁽¹⁴⁷⁾
 Innovation상 최인정⁽¹⁴⁷⁾
 Color & Texture상 전선화⁽¹⁴⁷⁾



랑콤 컬러 디자인 어워드
 Best Prize of All Categories상 이지혜⁽¹⁴⁷⁾

2007

- **대한민국 패션 대전**
 은상 이가이⁽¹⁷⁷⁾ 입선 박승훈⁽¹⁷⁷⁾
- **중앙 디자인 콘테스트**
 은상 이명하⁽¹⁷⁷⁾
 장려상 주소연⁽¹⁷⁷⁾ 최혜란⁽¹⁷⁷⁾
 입선 박현상⁽¹⁷⁷⁾ 송기호⁽¹⁷⁷⁾
 흥정아⁽¹⁷⁷⁾ 정혜경⁽¹⁷⁷⁾



대한민국 패션 대전
 금상 이경서⁽¹⁷⁷⁾

- **서울 모델리스트 콘테스트**
 대상 주효순⁽¹⁶⁷⁾
- **중국 차이나컵 국제 패션 디자인 콘테스트**
 언더웨어 / 비치웨어 부문 은상, 소재상
 안현정⁽¹⁶⁷⁾
 여성복 부문 동상 주효순⁽¹⁶⁷⁾
 남성복 부문 동상, 소재상 김보선⁽¹⁶⁷⁾
 아동복 부문 동상 전새로미⁽¹⁶⁷⁾
 아동복 부문 장려상, 코디네이션상
 이지은⁽¹⁶⁷⁾



중앙 디자인 콘테스트
 대상 엄지민⁽¹⁷⁷⁾

2006

- **대한민국 패션 대전**
은상 정미영⁽¹⁵⁷⁾
장려상 김해⁽¹⁶⁷⁾ 김선호⁽¹⁶⁷⁾
입선 원선애⁽¹⁶⁷⁾ 최현복⁽¹⁶⁷⁾
- **중앙 디자인 콘테스트**
입선 김진경⁽¹⁶⁷⁾
- **서울 모델리스트 콘테스트**
일반부 최우수상 김정은⁽¹⁴⁷⁾



중앙 디자인 콘테스트
대상 이유진⁽¹⁶⁷⁾

- **두타 벤처 디자이너 컨퍼런스**
대상 최종주⁽¹³⁷⁾
- **중국 차이나컵 국제 패션 디자인 콘테스트 남성복 부문**
은상 정문석⁽¹⁵⁷⁾
- **랑콤 컬러 디자인 어워드**
Modern Femenity상 최지영⁽¹⁵⁷⁾
Innovation상 채은영⁽¹⁵⁷⁾
Color & Texture상 이영화⁽¹⁵⁷⁾
- **일본 YKK Fastening Awards**
입선 홍성희⁽¹⁶⁷⁾



대한민국 패션 대전
은상 엄주희⁽¹⁶⁷⁾

2008

- **현대 백화점 신진 디자이너 공모전**
금상 박아지⁽¹⁶⁷⁾ 장려상 홍성희⁽¹⁶⁷⁾
김승환⁽¹⁶⁷⁾ 최지형⁽¹⁰⁷⁾
- **한스타일 한복 패션 디자인 공모전**
특별상 김다운⁽¹⁶⁷⁾



프랑스 디나르 국제 신진 디자이너 페스티벌
여성복 부문 그랑프리 이재환⁽⁹⁷⁾

- **중앙 디자인 콘테스트**
장려상 김호중⁽¹⁸⁷⁾ 특별상 김덕희⁽¹⁸⁷⁾
입선 이동현⁽¹⁸⁷⁾ 윤영선⁽¹⁸⁷⁾
- **중국 차이나컵 국제 패션 디자인 콘테스트**
아동복 부문 동상 김근영⁽¹⁷⁷⁾
언더웨어 부문 동상 박미혜⁽¹⁷⁷⁾
남성복 부문 동상 정효승⁽¹⁷⁷⁾
- **Triumph Inspiration Award**
3등상 성주리⁽¹⁸⁷⁾



대한민국 패션 대전
장려상 박준영⁽¹⁸⁷⁾



03

졸업생

에스모드 서울 졸업생들의 활약

에스모드의 출현은 대학만을 선호하던 사회적 풍토에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의 의미와 대학이 아니더라도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해 주었다. 에스모드 출신들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자, 대학에서 몇 년 간 패션을 전공한 신입 디자이너라도 실제 업무는 새로 가르쳐야만 한다고 믿던 패션 업계도 인식을 달리하기 시작하였다. 입사 후 별다른 추가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유형의 인재를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기업에서부터 시작된 학력 파괴 움직임은 중소기업까지도 퍼져 나갔으며, 이제는 실력을 가진 창의적인 인재라면 학벌과는 상관 없이 채용하는 풍토가 자리 잡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런제리의 세분화된 전공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해당기업의 전문분야에서 곧바로 상품기획이나 제작에 참여할 수가 있다. 여성복 전공자만 무성하던 국내 시장에 에스모드에서 처음으로 남성복과 아동복 전공자를 배출하면서부터 남성복, 아동복 업계의 브랜드 차별화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며, 이 분야의 취업률이 전문 인력에 대한 시장의 높은 수요를 대변해 주고 있다.

2009년 현재, 천삼백여 명에 달하는 에스모드 서울의 졸업생들은 대기업, 내셔널 브랜드, 디자이너 브랜드, 프로모션 업체, 홍보 대행사, 패션 잡지 등 패션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디자이너, 패턴터, MD, VMD 등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개인 브랜드를 운영하는 졸업생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20년의 에스모드 서울의 역사와 함께 성장한 졸업생들 중 여러 명이 국내 최고 권위의 서울 패션위크에서 정기적으로 컬렉션을 해 오고 있으며, 각 브랜드의 디자인 실장, 팀장으로 자리를 잡아 후배들의 졸업심사에도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에스모드 서울 동문들의 국제무대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다수의 동문들이 파리 프레타 포르테, 후즈 넥스트, 뉴욕 트레인전, 밀라노 벤데모다 등 해외 전시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와 셀렉트 습의 증가와 더불어 정부의 신진 디자이너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어, 갓 졸업한 동문들이 보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기업에서 환영받는 에스모드 서울 졸업생들

교장과 사무처장이 졸업생들의 취업을 위해 기업체를 일일이 찾아다녔던 것은 에스모드 서울 개교 초창기에만 있었던 일이다. 에스모드 졸업생들을 한 번이라도 채용해 본 기업들은 재교육이 필요 없이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에스모드 졸업생들의 진가를 알아 주었다.

에스모드는 교과 내용 자체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임은 물론, 기업체 업무 진행 방식과 유사한 시스템의 교수법을 통해 학생들을 교육한다. 실제로 3학년 때 기업연수를 나간 학생들은 디자인실에서의 업무 방식이 학교 수업 진행 방식과 똑같다는 것에 오히려 놀라곤 한다. 에스모드 졸업생들을 채용해 본 기업들은 학무실로 취업 의뢰를 해 온다. 기업체의 취업 의뢰 건수는 매년 졸업 예정 학생수의 4~5배에 달한다.

매년 말 졸업작품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디자이너, 기업체 CEO, 디자인 실장들은 심사를 하면서 자신의 회사에 맞는 학생들을 선정하여 인턴을 거쳐 직원으로 채용하곤 한다. 또한 이미 패션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에스모드 서울 동문들은 회사에서 인력 채용 계획이 있을 때마다 학교에 후배들의 추천을 요청한다. 남성복 업체의 경우, 많은 에스모드 졸업생들이 실장급 이상으로 근무하고 있어 동문 추천으로 취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3학년 학생들은 여름방학 동안 받는 기업 연수중에 취업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에스모드 서울의 졸업생들은 평균 85%의 취업률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고, 국내 유명 패션 업체에는 이미 에스모드 파워가 형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패션 기업의 해외 진출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요즘에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한국 패션 기업의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해외로 진출하는 졸업생들

20년 동안 쌓아 온 에스모드의 성과는 졸업생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몇 년 전부터 해외 패션계에서 한국이 패션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어, 한국 패션 기업들과 한국인 디자이너들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에스모드 서울 졸업생들도 포함되어 있다. 에스모드 서울 동문들은 한국 패션계뿐만 아니라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전범준 동문^(1기)은 1998년 도블, 전세계 양대 트렌드 정보회사인 프로모스틸Promostyle과 넬리로디Nelly Rodi에서 디자이너로 일했다. 2002년부터 5년간 에스모드 파리에서 스틸리즘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넬리로디 디자이너와 모노프리Monoprix 의류사업부의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노정은 동문^(5기)은 브라질 대학에서 그래픽을 전공하고 귀국하여 에스모드 서울을 졸업한 다음 1998년부터 브라질 에스모드 세낙에서 스틸리즘 교수로 재직중이다. 2003년 중국으로 건너가 카파 디자인실에서 일을 시작한 이광원 동문^(8기)은 현재 카파 차이나 총괄 디렉터로 근무하고 있다.

이 밖에도 김경 동문^(2기)이 이태리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론칭해 활동하고 있으며, 조미인 동문^(10기)이 밀라노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 또한 김하령 동문^(6기)이 중국 박하팩토리에서, 천명지 동문^(11기)이 파리 클로에 디자인실에서, 홍주성 동문^(17기)과 최상묵 동문^(17기)은 베트남에 진출한 약진통상 디자인실에서, 김호중 동문^(18기)은 중국 카파 디자인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또한 1996년 에스모드 서울에 입학해 2학년 재학 중 도블, 에스모드 렌즈와 파리에서 수학한 박수진 동문은 파리에서 패션 비즈니스 에이전시인 '소하 트렌드Sauha Trend'를 운영하고 있다. 에스모드 서울에 입학한 뒤, 파리로 건너가 에스모드 파리를 졸업한 이주영 동문은 에스모드 파리 졸업생인 박윤정 실장과 함께 파리 스말토Smalto 디자인실에서, 노주영 동문은 인도네시아 소피 마르탱Sophie Martin에서 근무하고 있다.

글로벌 회사에 취업해 프로페셔널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컬렉션을 해외에서 선보이고 있는 크리에이터 동문들의 활동도 활발하다.

먼저 에스모드 서울 졸업생 중 최초로 파리 컬렉션에 진출한 정욱준 동문^(2기)을 들 수 있다. 2008 S/S 파리 컬렉션에서 성공적인 데뷔 무대를 가진 뒤 2010 S/S에 이르기 까지 다섯 차례의 파리 컬렉션을 통해 정욱준 동문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남성복 디자이너로 굳건히 자리매김해 오고 있다.

또한 2007년 제14회 디나르 국제 신진 디자이너 페스티벌 Festival International des jeunes createurs de mode de Dinard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여성복 그랑프리를 수상했던 이재환 동문^(9기)은 자신의 브랜드 'jaehwan*lee'로 2007년부터 네 시즌 연속으로 파리 프레타 포르테 Prêt-à-Porter 살롱에 참여하고 있다. 이 동문은 '프랑스적인 이미지와 파리지엔의 감성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디자이너'로 주목받고 있으며 매 시즌마다 가장 뛰어난 컬렉션 중 하나로 선정되어 '포럼 탕당스 Forum Tendances'에 소개되고 있다.

한편 런던 비비안 웨스트우드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했던 최지형 동문^(10기)은 파리 후즈 넥스트 Who's Next 살롱에 자신의 컬렉션 'CHOIJIHYUNG'을 출품하고 있으며, 뉴욕 트레인전과 밀라노 벤티모다 전시에도 참여하고 있다.

에스모드 서울에서 세계 무대로



2008 S/S 준지Juun.J 파리 컬렉션

설립자 박윤정 이사장의 오랜 숙원은 에스모드 서울 출신이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국제 무대에 서는 것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정욱준 동문이 세계 패션계의 기린아로 등장했다. 정욱준 동문(27)은 1991년 에스모드 서울을 졸업하고, '쉬퐁', '클럽모나코', '닉스' 디자이너를 거쳐 1999년 론 커스텀(Lone Coustome)을 론칭했다. 에스모드 서울과 이웃하고 있는 가로수길에 자리 잡은 그의 매장 '론 커스텀'은 곧 수많은 패셔니스타의 집결지가 되었고, 젊은 디자이너가 옷으로만 입소문을 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2000년부터 서울 컬렉션에 참가하는 동시에 영화 의상과 호텔 유니폼 디자인에도 관여하는 등 정 동문은 다방면에서 능력을 발휘해 왔다. 또 영국 화가 사이먼 헨우드(Simon HENWOOD), 일본 그래픽 디자이너 너츠(Nuts) 등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더욱 오리지널한 컬렉션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 디자이너로서의 도약을 위해 정욱준 동문은 2007년 6월, 준지Juun.J라는 이름으로 파리 컬렉션에 진출했다. 에스모드 서울 졸업생 중 최초로 파리 컬렉션에 진출한 정욱준 동문은 2008 S/S 파리 컬렉션에서 성공적인 데뷔 무대를 가졌고 '놀라운 신인'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남성복 디자이너로 성장하고 있다.

르 피가로(Le Figaro) 지를 비롯, 많은 패션 기자들은 '패션계의 신동', '가장 혁신적인 디자이너', '주목해야 할 디자이너' 등으로 정 동문을 언급해 왔다.

정욱준 동문의 정체성은 정교한 테일러링에서 찾을 수 있다. 탄탄한 기본기를 느끼게 해 주는 재킷과 팬츠, 남성적인 단단함이 특징인 트렌치 코트는 정욱준 동문을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다. 정 동문의 컬렉션은 클래식한 디자인에 언더그라운드적 디테일을 믹스하고, 여러 가지 볼륨과 서로 다른 느낌의 소재를 믹스 매치하며 세련된 '누보 클래식시즘'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트렌치 코트의 각 부분을 해체하고 결합하며 클래식한 아이템을 아방가르드하게 해석하는 데 탁월한 재능을 나타내고 있다. 정 동문의 컬렉션은 '세련된 하이브리드', 독특한 커팅과 완벽한 재단을 통해 '남성복 아이템을 전복시키는 컬렉션'으로 호평받는다.

‘준지Juun,J’ 컬렉션은 현재 파리, 밀라노, 런던, 홍콩 등 전세계 패션 도시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그리스, 러시아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 초청 컬렉션을 개최하고 있다. 한편 칼 라거펠트Karl LAGERFELD가 준지의 블랙 수트와 셔츠를 입고 2009 S/S 펜디 쇼 피날레 무대에 섰을 뿐만 아니라, 밀라노 편집매장에 있는 준지 의상을 모두 사 갔다는 뉴스가 국내에서 발표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정욱준 동문은 2003년, 아시아 타임지 선정 ‘아시아 최고 디자이너 4인’에 뽑힌 바 있으며, 2008년 영국 패션 전문 사이트인 WGSN에 의해 ‘6인의 디자이너’에 선정되기도 했다. 2008년에는 삼성패션디자인펀드SFDF 수상자로 선정되어 10만 달러의 후원금을 받기도 하였다. 삼성패션디자인펀드는 제일모직이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 디자이너 발굴을 통해 한국 패션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설립한 제도이다. 지금까지 4회에 걸쳐 SFDF가 선정한 9명 중 유학 가지 않고 국내에서 패션 공부를 마친 뒤 해외에서 컬렉션을 성공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디자이너로는 정욱준 동문이 유일하다.



정욱준 동문이 그린 백스테이지 일러스트레이션

인터뷰

패션 디자이너 정옥준

신사동 가로수길에 자리 잡은 '론 커스텀'에서 정옥준 동문을 만났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패션 디자이너로 부상한 그로부터 에스모드 서울 시절의 추억과 패션에 대한 생각들을 들어 보았다.

Q. 최종 학력이 에스모드 서울인가? 학력이 사회 생활에 장애로 작용한 점은 없는가?

A. 본래 에스모드 파리에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의 반대로 가지 못했다. 미술 대학 공예과를 3학년 1학기까지 다녔지만 그만두고 에스모드 서울로 오게 됐다. 에스모드 서울이 최종 학력이다. 후회는 없다. 자식이 생겨도 학위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시킬 것이다.

Q. 에스모드 서울 재학 당시의 잊지 못할 추억이 있다면?

A. 특별한 순간보다 열심히 공부한 기억이 떠오른다. 내가 포기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었다. 항상 1등을 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했다. 거의 그렇게 성적을 거두었다. 그 때 에스모드는 정말 규율이 엄했다. 1초만 늦어도 과제물 제출을 못 했다. 그게 내 인생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Q. 가장 영향을 준 에스모드 선배 동문이나 교수가 있다면?

A. 홍인수 교수님의 영향이 크다. 나에게서는 학교 선배, 사회 선배, 그리고 스승이다. 인생에 관한 선배인 것은 물론이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조언을 해 주신다. 예리하면서도 다감하시다. 잘못된 부분을 자존심 안 다치게 일러 주곤 하신다. 칭찬과 같이 함께 숨겨져 있다. 컬렉션을 할 때마다 꼭 봐 달라고 한다. 가까운 데 계시니 자주 만나 소주잔도 기울인다.

Q. 에스모드 서울 후배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다. 인생 자체가 시간 아닌가. 패션은 시간 산업, 유행은 시간이다. 항상 시간을 앞서 가야 한다. 1년 후의 디자인을 해야 한다. 옛날 에스모드 시절, 버스 안에서 스커트 공구르기를 하다가 잠이 들어서 10분이 늦었다. 그 때는 안 받아 줬는데 지금은 감점 처리를 하고 받아 준다고 들었다. 그 전통이 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절망이 있어야 한다. 점수 1, 2점 못 받는 게 낫다. 제발 그 전통이 부활했으면 좋겠다.

Q.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디자이너가 된 소감은?

A. 처음에는 기쁘기도 했지만 불안감도 있다.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디자이너로 꼽히는 것은 개인적으로 기쁜 일인 동시에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된다. 에스모드 서울에 다니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싶다. 항상 에스모드 서울 출신이라는 자각을 갖고 있다.

Q. 좋은 패션 디자이너란 어떤 사람인가?

A. 아직 모르겠다. 고유한 작품 이름을 오래도록 남기는 사람이 아닐까. 예를 들어 샤넬의 트위드 수트라든가, 아르마니의 패드 없는 수트라든가, 획기적인 사실을 만들어 낸 디자이너는 칭송받을 만하다.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게 중요하다. 자기만의 것이 있어야 한다. 나는 아직 획을 못 찾았다. 파리 컬렉션 다섯 번째다. 이제 시작이다.

Q. 패션 디자이너이면서도 정작 본인은 옷이 적고, 멋을 안 낸다고 들었다.

A.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멋을 내는 디자이너이다. 자기 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옷을 잘 못 만든다.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까만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다녔다. 영웅 같은 디자이너 헬무트 랭은 웨스턴 부츠에 진 티셔츠에 재킷 차림이었다. 요즘 젊은 디자이너들은 너무 자기 옷에 열중한다. 디자이너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고객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Q. 좋은 옷이란 무엇인가?

A. 이 질문은 어렵다. 그때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나의 답은 입을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 옷이다. 가끔 내가 디자인한 옷을 입을 사람을 본다. 그 사람과 내 옷이 안 어울릴 때 고통스럽다. 자기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고를 줄 아는 사람, 옷은 패션 디자이너가 아니라 입을 사람에게 의해서 완성된다.

이경비 (3기 / KYUMBIE 구두 디자이너)

에스모드는 나에게 패션의 진수를 알게 해 준 곳이다. 나는 어려서 부터 의식주에 대한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지만 당시 우리나라의 디자인 교육이나 문화 수준은 그리 세련되지 못했다. 에스모드의 교육과정은 하드 트레이닝이었다. 손끝이 아물지 못했기 때문에 모델 리즘 교수님은 언제나 무섭고 어려운 존재였다. 반면 스틸리즘에서는 인정을 받았다. 풀이나 손자국 등 지저분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손걸레를 옆에 두고 정교하게 마무리를 하느라 진땀 흘렸던 기억이 난다.

태어난 일정에 완벽함 개선, 일관성, 게다가 고급스러움까지 요구하는 에스모드를 향해 '미친 에스모드'라고 했던 것만 기억이 난다. 하지만, 에스모드에는 어떤 일관된 색조와 빛, 풍겨지는 멋이 있다. 작년에 학생들의 패션 작품 전시를 볼 일이 있었는데 '아... 이게 에스모드의 색이지.' 하고 느껴지던 그 무엇이 있었다.

유지용 (13기 / (주)에이선패션 엠볼햄 VMD 팀장)

에스모드 3년 동안의 무시무시한 커리큘럼을 소화한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마침내 해 내고 결과물을 보았을 때의 희열과 뿌듯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끈기'라는 농과 가까워질 수 있었으며, 사회생활을 좀더 진지하게 해 낼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엠볼햄 VMD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국 각 매장에서 지역 특색에 따라 VMD 업무를 유동성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 년에 한두 차례 유럽이나 일본, 홍콩 등으로 해외 출장을 가서 시장을 보는 안목을 넓히고, 상품 구성이나 새로운 연출 방법 등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경쟁에 비해 조금 일찍 팀의 마스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에스모드의 실무 중심 커리큘럼과 꾸준한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희 (14기 / (주)신영외교루 비너스 디자인실)

2학년 때 여성복 레니본과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조별로 콘셉트를 잡고, 디자인 전개에서 제작과 부스 설치까지 했습니다. 그 때 전 베스트를 디자인했는데 제품을 외부 손님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몰릴 듯 제작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학교 동기들, 후배들, 교수님들은 물론, 헤어숍, 웨딩숍 디자이너들의 유니폼으로까지 100여 벌의 주문을 받아 방향내 맘드스라 행복한 진땀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3학년 때는 '한국의 미'라는 주제로 졸업작품을 제작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웠지만 신나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 '비너스 창사 50주년 전국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입사 특혜와 뉴욕 파슨스 학기연수의 기회를 부상으로 받았습니다. 비너스에 입사한 지 벌써 5년째이지만 지금도 그 때의 추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아직도 아침에 출근할 때면 에스모드로 등교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디자이너로서의 제 삶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문유선 (7기 / 지도다노 캐주얼 실장)

에스모드에 입학해서 처음으로 재봉틀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A4 용지에 실이 없는 재봉 바늘로 구멍을 내며 밤새 재봉질을 손에 익혔던 기억이 납니다. 이상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멋스러울 줄 알았던 에스모드의 생활이 힘들어서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완성한 옷을 다림질하여 마네킹에 입힐 때의 기분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일이 힘들 때면 에스모드 시절의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그러면 저절로 입가에 웃음이 머금어지면서 내 자신이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처음 옷을 배울 때 가졌던 마음을 소중히 간직할 수 있었기에 일을 사랑하는 제가 된 것 같습니다.

최지형 (10기 / CHOIJIHYUNG 실장)

에스모드에서의 3년은 나에게 많은 '첫경험'들을 선사했다. 교수님의 권유로 응모하게 된 일본 마쿠하리 콘테스트 입선에 이어 국내 중앙 디자인 콘테스트에서도 입선하였다. 실물 작업을 위해 교수님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면서 밤을 새웠던 일들이 떠오른다. 그때는 작품 속에 푹 빠져서 머칠을 꼬박 앉아서 작업해도 시간이 어찌 흐르는지 모를 정도였다. 한국식 교육에 익숙해져 있던 내게 프랑스 선생님과의 자유로운 수업방식도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광원 (8기 / 중국 카파 차이나 디자인 디렉터)

졸업한 지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나의 미래를 결정지었던 에스모드 3년의 기억은 여전히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3학년 언젠가 모델리즘 과제를 제출하기 전날이었습니다. 수업 후반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다가 맥주 한두 잔을 기울인 게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집에 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로 날이 밝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과제물 거장에 인질부질못하며 가방을 챙겨서는 순간 과제가 모두 완성되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신에도 완벽하게 과제를 미치고 잠이 들었던 것이죠. 그 시절 에스모드의 생활은 의식에서 건 무의식에서건 저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정두영 (8기 / ㈜신원 지이크 퍼센타이트 상품기획 실장)

패션에 대한 열정과 인내심 없이는 에스모드를 졸업하기 힘들다. 처음 입학식을 치르고 둘째 날 에스모드 서울에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힘들 때마다 그 생각을 떠올리며 3년을 버텼다. 삼 일 동안, 총 네 시간만 자면서 도시에 과제를 해 냈던 기억이 있다. 수업 부족으로 신경이 예민해질수록 과제를 완성해내고야 말겠다는 오기가 솟았다. 속된 말로 '양에 반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냈더니, 사회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도 이겨낼 수 있는 것 같다. 에스모드의 커리큘럼은 직장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에스모드에서 콘셉트, 소재, 색상, 스타일링, 제작까지 라인업으로 교육 받고 트레이닝을 한 나는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상품 기획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다.

안희정 (9기 / 이랜드 해외 사업부(영국) Gloverall 디자인실)

에스모드 시절,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했지만 누구 못지않은 열정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졸업작품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부족하여 열흘 동안 잠도 안자고, 우유 2리터 버렸던 기억이 남네요. 작품을 마치자 할수증으로 쓰러져 체중이 10kg이나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준비한 덕분에 에스모드 졸업 때 대상을 받았고, 제일로직 빈폴 레이디스에도 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상으로 유학의 기회도 얻었습니다. 프랑크 소르비에라는 프랑스의 디자이너 오토 쿠틀르에서 스태프로 일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에스모드는 제 인생에서 커다란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김상윤 (13기 / 베네통 코리아(주) 베네통 여성복 기획실 MD 대리)

일반 대학 물리학과를 다니다가 에스모드에 온 나는 그림 솜씨가 형편 없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오신 담당 교수님은 내게 계속 A학점을 주셨다. 이상해서 여쭙어 보니 '나는 그림을 가르치려 온 게 아니다. 못 그린데 그림 너에게 있는 너의 스타일을 보고 점수를 주었다.'고 하셨다. 이 말을 듣자 '내가 정말 에스모드라는 학교에 오길 잘했구나. 이 곳이야말로 나의 재능을 이렇게 발휘해 줄 수 있는 학교가 우리나라에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교수님의 권유로 13기 에스모드 남학생 중에서 유일하게 여성복을 전공했다. 졸업할 때엔 멋지게 심사위원상을 탔고 동시에 취업도 되었다. 지금 이렇게 여성복 내셔널 브랜드에서 승승장구하는 MD로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은 에스모드의 교육 이념과 교수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장정애 (7기 / ㈜네이션 닷컴 EnC 실장)

에스모드 시절, 밤새 재봉틀을 돌리다가 새벽 5시쯤 해가 뜨기 직전의 군청색 하늘을 바라보곤 했다. 정말 체력의 한계를 경험했었다. 그 땐 정말 순진했던 것 같다. 회사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으니 말이다. 평생 저자 너를 하려던 잠이 많으면 안 된다. 에스모드에서의 엄청난 프레이밍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또 에스모드에서 만난 친구가 나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 있다. 공부할 땐 연인 사이가 아니었는데 사회에 나와서 우연히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지금은 네 살배기 천사 같은 딸을 두고 있다. 남편은 누구보다도 패션을 잘 알기에 나를 잘 이해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준다. 에스모드는 나에게 잊지 못할 추억의 곳이다.

김호중 (18기 / 중국 카파 차이나 디자인실)

에스모드가 힘든 이유? 에스모드를 안 다녀 보면 절대로 모를 수많은 이유가 있다. 그런데, 다닐 만하다. 참고로 학교 별명은 데스모드이다. 에스모드에서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선배는 물론 동기와 후배들에게서도 배울 점이 많다. 저마다 풍부한 개성을 지닌 다양한 인간 군상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에스모드를 겪고 나면 두려울 것이 없다. 사람을 못 하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준다.

이카이 (17기 / 제일모직 르 베이지 디자인실)

졸업과 동시에 제일모직에 취업이 되어 르 베이지의 막내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 일이 고단할 때마다, 에스모드 시절의 제 모습을 떠올려 보곤 합니다. 모델리즘 시간의 패턴 수업과 입체 가봉, 스티리즘 시간의 디자인과 맵 작업,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과제 물들로 인해 밤을 새면서 힘들었지만, 교수님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따라가다 보니, 좋은 성적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정헌재단과 에스모드 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행운도 얻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시절이 있었기에 현재의 위치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라는 직업이 주는 부담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제 마음 속에 '에스모드'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희정 (14기 / ㈜좋은사람들 리바이스 바디웨어 디자인 팀)

3학년 때, 반 친구들이 저마다의 사정으로 수업에 빠져 진도가 처지자 담당 교수님은 우리를 팀으로 나눠서 덕으로 부르셨다. 소중한 주말을 우리들에게 내어 주고, 밥까지 먹여 주며 꼼꼼히 지도해 주시던 선생님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졸업한 지 벌써 4년째가 되었다. 가끔 회사 생활이 힘들어 투정이라도 부려 볼까 선생님께 전화를 걸기도 하지만 투정은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전화기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선생님의 목소리에서 응원의 힘이 가득 느껴지기 때문이다. *졸업을 했어도 영원한 재미있는 분명한 것 같다. 여전히 두에서 겪어주시는 선생님이 제 17기에 이직도 에스모드 8학년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정문석 (15기 / ㈜한성 타임오프 디자인실)

저에게 에스모드는 잊지 못할 20대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3학년 때 졸업작품을 준비하면서 촉박한 시간, 부족한 체력, 끝없는 과제들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졸업작품전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것은 제게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져다 준 고마운 보상이었습니다. 다시 그 시절이 온다 해도 저는 주저 없이 에스모드를 선택할 겁니다.

김지영 (4기 / 이테리 Domus Academy Fashion Business 유학 중)

에스모드의 *아이덴티티*는 *Esprit, Creative, Fun, Professional* 이라고 할 수 있다. 수없이 반복되는 밤샘 작업이 힘들었지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열심히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행복했다. 에스모드에 다시 입학하게 된다면, 테크닉에 치우치기보다 다양한 문화 경험을 통해 좀더 창의성 있는 아이디어를 찾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 보고 싶다.

방정욱 (13기 / ㈜에이트에이든 디자인실)

가장 힘들었던 일을 꼽으라면 무엇보다도 수면 부족이었던 것 같다. 3학년 때 과제물 때문에 56시간 동안
 한숨도 못 잔 기억이 있다.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았다. 잠을 아끼며 노력한 결과 에스모드 재학 중에 해외
 콘테스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다. 콘테스트 본선 진출의 기회도 얻어 일본과 중국으로 가서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 에스모드는 '가능할까?'라는 물음표를 '가능해!'의 느낌표
 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 주는 곳이다.

황은파 (14기 / 바초비치 홍보팀장)

학교가 생긴 이래, 옥상에서 도시락을 비벼 먹었던 친구
 들은 우리 패밀리밖에 없었을 것이다. *화창한 날씨엔
 따뜻한 강의실에서 나와 옥상에서 밥을 비벼 먹으며
 수다를 떨었던 그 때가 생생하다.* 만약 에스모드에 다
 시 입학하게 된다면 더 열정적으로 공부해 보고 싶다. 아
 동복이나 란제리를 전공으로 하고 싶은 생각도 든다. 후
 배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안목을 키우라는 것이다. 또, 인간관
 계를 잘 하라는 말을 꼭 해 주고 싶다. 패션 브랜드 홍보
 를 하면서 내가 느끼는 것은 '진실은 언제나 통한다.'는
 것이다. 좋은 인맥을 만들고, 좋은 평판을 얻으려면 사람
 들에게 거짓 없이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권재현 (3기 / ㈜신성통상 올렌 디자인 실장)

에스모드의 이펙터는 '자부심'이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노력하지 않으면 힘든 곳이며, 반면에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곳이다. 본인이 잡은 콘셉트에 충실하게, 또 주어진 시간 내에 완
 벽한 과제를 제출하기 위해 기른 집중력이 지금 회사 일을 하는 데 많은 도
 움이 되고 있다. 과제를 수행하면서 생기는 고민을 교수님과 의논하면서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 혼자서 궁리하는 것보다 파트너와 서로 생각을 주고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

이현정 (12기 / ㈜남영 비비안 SONORE 디자인실 대리)

에스모드의 장점은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본인이 직접 배울 수 있다는 점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감각 있는 교수님들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론
 만 많이 안다거나 감각만 있다고 해서 좋은 디자이너가 되는 건 아니다. 이론과
 감각을 아우를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디자이너일 것이다. 에스모드에서는 이 모
 든 것을 배울 수 있다. 만약 내가 에스모드에 다시 입학한다면, 패션이라는 한 분
 야에 치우치지 않고 내 감성을 키울 수 있는 각종 디자인과 예술작품들을 내 눈과
 마음에 담고 싶다.

이희승 (10기 / ㈜리베도 기획실 팀장)

졸업작품을 준비하느라 밤을 새우다 보면, 아침 신문 돌리는 소리가 들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힘들었지만 졸업작품을 통해서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첫번째 작품으로 일본 나고야 콘테스트에 출품해 한국인 최초로 입선했고, 두 번째 작품으로는 중앙 디자인 콘테스트 은상과 함께, 에스모드 서울 졸업 대상까지 받았다. 하루하루 너무 바쁘고 힘들었지만, 그 때만큼 행복했던 때가 또 있을까? 졸업 대상 덕분에 제일모직에 특채로 입사하는 행운까지 누렸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에스모드에서 받은 혹독한 교육으로 인해 결코 뒤쳐진 적이 없다. 내 인생에서 에스모드를 빼놓고는 디자이너로서의 열정과 꿈을 말할 수 없다. 내가 지닌 디자이너로서의 모든 기초와 열정은 에스모드에서 키워진 것이다.

홍정아 (7기 / 빈폴 맨즈 컬렉션 라인 디자인실 책임 디자이너)

에스모드에 입학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소심한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뛰어난 동기들 속에서 자신감을 잃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후회로 남습니다. 지금은 국내외 패션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열정을 기울이며, 일을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시혁 (5기 / 제일모직 갤럭시 모델리스트)

얼마 전에 졸업한 것 같은데 벌써 13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저는 디자이너의 꿈을 안고 처음 에스모드의 문을 노크했는데 공부하는 동안 모델리즘이라는 매력에 빠져 버려 결국 모델리스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에스모드 시절로 돌아가 보면 참 힘들었던 기억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많은 과제물, 시장조사, 자료 정리 등등……. 매일 늦은 시각까지, 아니 술한 밤샘 작업을 하느라 힘든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시 에스모드에서 공부하려면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고생스러웠던 3년이 저에게 최고의 경쟁력과 그 어떤 어려움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두툼한 배움을 주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승한 (16기 / 동일레나우㈜ 상품기획 MD)

Fashion은 곧 Passion이다. 패션을 공부하려면 우선 자신이 패션에 대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 여기서 열정이라는 말은 단순히 '옷이 좋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옷이 좋은 사람'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다른 길을 택하길 바란다.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옷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될 거야.'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자신이 어떤 분야에 몸담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몸으로 뛰면서 알아 보라. 경험은 곧 지식이다. 어디에 있든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끈기를 가지고 버텨라.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언제든 기회는 찾아온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일을 사랑하고 즐기는 것이다.



1989 ~

에스모드 서울 연혁

2009

1988

5.17 에스모드 파리와 분교 계약 체결



1989

9.11 설립 인가

12.15 생트 카트린느 축제 '이집션 재즈'



7.27 에스모드 서울 오프닝 기념
프로모션 패션쇼 (하얏트 호텔)



9.18 제1회 입학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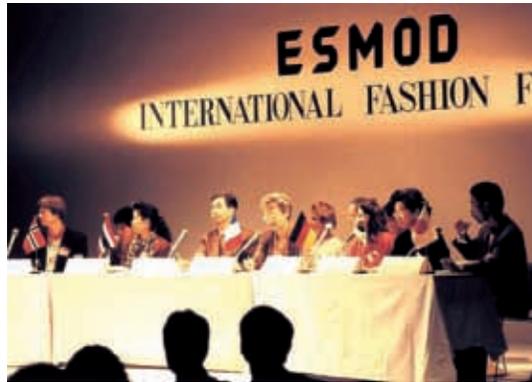


12.1 교사 건축 공사 착수

1990

7.20 진급 패션쇼

9.7 제2회 입학식



11.2 ~ 11.8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분교장 회의 및
에스모드 도쿄 국제 패션 포럼 (도쿄)

12.4 생트 카트린느 축제
'동서양의 만남'



1991



11.23 ~ 12.5 에스모드 파리
150주년 기념 행사 참가(파리)

7.3 ~ 7.4 2학년 진급 패션쇼

9.6 제3회 입학식

10.18 에스모드 서울 교내 운동회

12.13 생트 카트린느 축제 '영화 속의 주인공들'

1992

6.25 ~ 26 제1회 졸업작품 발표회



6.30 제1회 졸업식

7.13 ~ 8.14 제1회 하기특별강좌

7.20 에스모드 서울 회보 창간

9.2 제4회 입학식

11.19~28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분교장 회의(파리)

12.11 생트 카트린느 축제 '세계의 종족'

1993

12.10 생트 카트린느 축제 '재활용'



- 3.2 제5회 입학식
- 6.23, 6.25 제2회 졸업작품 발표회
- 6.26 제2회 졸업식
- 7.5 ~ 30 미셸 몽사라 교수 초빙, 제1회 전문인을 위한 입체 재단 세미나
- 7.19 ~ 8.13 제2회 하기특별강좌
- 11.14~27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분교장 회의 (베를린)

- 3.4 제6회 입학식
- 7.6, 7.8 제3회 졸업작품 발표회
- 7.9 제3회 졸업식
- 7.18 ~ 8.12 제3회 하기특별강좌
- 11.19 ~ 27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분교장 회의(파리)
- 12.9 생트 카트린느 축제 '희한한 멋쟁이'

1994



7.11 ~ 8.5 미셸 몽사라 교수 초빙, 제2회 전문인을 위한 입체재단 세미나

1995



7.3 ~ 28 베로니크 부스케 교수 초빙, 제3회 전문인을 위한 입체재단 세미나

- 3.2 제7회 입학식
- 6.21, 6.23 제4회 졸업작품 발표회
- 6.24 제4회 졸업식
- 7.18 ~ 8.11 제4회 하기특별강좌
- 12.13 생트 카트린느 축제 '역할놀이'

1996



2.14 한국 섬유산업 연합회와 공동으로 '21세기 패션 교육 방향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 개최

11.22 ~ 25 'SFAA VISION 96' 홍보 전시 참가 (한국 종합 전시장)



2.16 제5회 졸업식

- 2.15 에스모드 서울 국제종합 발표회 및 제5회 졸업작품 발표회 (하얏트 호텔)
- 2.13 ~ 16 에스모드 서울 주최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분교장 회의
- 3.14 제8회 입학식
- 6.4 ~ 10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분교장회의(파리)
- 7.1 ~ 26 베로니크 부스케 교수 초빙, 제4회 전문인을 위한 입체재단 세미나
- 7.8 ~ 8.2 제5회 하기특별강좌
- 11.13, 11.15 제6회 졸업작품 발표회
- 12.6 생트 카트린느 축제 '우화와 전설'

1997

- 2.14 제6회 졸업식
- 3.3 제9회 입학식
- 7.7 ~ 8.1 제6회 하기특별강좌
- 11.26, 11.28 제7회 졸업작품 발표회
- 12.12 생트 카트린느 축제 '이국적 정서'



9.26 2학년 (주)태승트레이딩 닉스, 스톱과 워크숍 발표회



6.8 ~ 10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분교장 회의(오슬로)



7.7 ~ 8.1 칠리앵 크리스토폴리 교수 초빙, 제5회 전문인을 위한 입체재단 세미나

1998

- 2.13 제7회 졸업식
- 3.6 제10회 입학식
- 7.6 ~ 31 칠리앵 크리스토폴리 교수 초빙, 제6회 전문인을 위한 입체재단 세미나
- 7.6 ~ 31 산자부와 섬산연 후원 해외 패턴 전문가 초청 패턴기술교육 및 진단 지도사업 실시
- 7.13 ~ 8.7 제7회 하기특별강좌
- 12.2 ~ 3 제8회 졸업작품 발표회
- 12.18 생트 카트린느 축제 '영화'



3.23 ~ 28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분교장 회의 참석(상파울루)



9.25 2학년 (주)대하 EnC, B+G와 워크숍 발표회

1999



7.8 2학년 (주)모수인터 내셔널 모리스커밍홈과 워크숍 발표회

- 2.11 제8회 졸업식
- 3.8 제11회 입학식
- 3.8 소재자료실 개관
- 6.7 ~ 12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분교장 회의 (튀니지)
- 6.15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 7.5 ~ 23 칠리앵 크리스토폴리 교수 초빙, 제7회 전문인을 위한 입체재단 세미나
- 7.12 ~ 8.6 제8회 하기특별강좌
- 8.30 재단법인 에스모드 서울 재단 발족
- 9.9 ~ 12 개교 10주년 기념 전시
- 12.1 제9회 졸업작품 발표회 및 에스모드 서울 동문 컬렉션 (한국 패션 센터)
- 12.3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창립 14주년 기념 에스모드 서울 졸업작품 발표회 / 동문 컬렉션 (현대백화점 본점)



9.9 개교 10주년 기념식 및 《에스모드 서울 10년사》 발간



9.15 제2대 교장 취임식

2000 7.13 2학년 (주)쌘지 쌘지스포츠와 워크숍 발표회



2.9 ~ 16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분교장 회의 (도쿄)

2.10 제9회 졸업식

3.10 제12회 입학식

4.18 ~ 21 패션디자인 시물레이션 전시 (한국 패션 센터)

5.24 ~ 25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분교장 회의 (파리)

7.18 ~ 8.11 제9회 하기특별강좌

12.15 생트 카트린느 축제 '바자'

2001

2.15 ~ 16 제10회 졸업작품 발표회 'Petit Prince'

2.22 제10회 졸업식

3.9 제13회 입학식

5.21 ~ 29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분교장 회의 (파리)

7.16 ~ 8.10 제10회 하기특별강좌

10.13 제1회 신사문화축제 참여

11.29 제11회 졸업작품 발표회 'Colors of my world'

12.4 생트 카트린느 축제 '서커스'

12.8 AFC(Association des Francophones de Corée) 갈라쇼 참가 (인터콘티넨탈 호텔)

7.12 2학년 (주)성도
툼보이, 빤스아웃피터스와 워크숍 발표회



7.9 ~ 27 노에미 르비보 교수 초빙, 제8회
전문인을 위한 입체재단 세미나



11.23 박윤정 이사장,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
화예술 공로훈장 수상

2002

2.2 ~ 5 에스모드 프랑스, 독일, 일본과
ISPO 스포츠 박람회 참가 (뮌헨)

2.20 제11회 졸업식

3.8 제14회 입학식

7.11 2학년 YKK한국(주)과 워크숍 발표회
'Unzip Your Mind'

7.15 ~ 8.9 제11회 하기특별강좌

10.26 제2회 신사문화축제 참여

11.4 라코스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크리스토프 르메르 세미나

11.27 ~ 28 제12회 졸업작품 발표회 'Lumiè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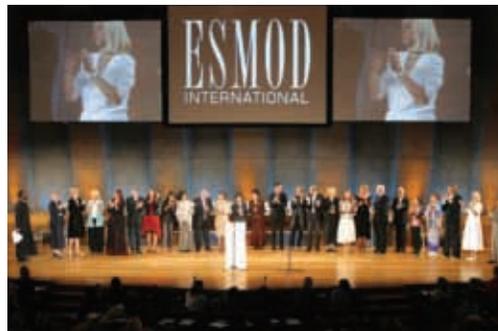
12.13 생트 카트린느 축제 'Super Heros'



3.4 3학년 란제리 전공 신설



10.28 ~ 30 Preview in Seoul
전시 참여 (SETEC)



6.10 ~ 13 에스모드 파리
개교 160주년 기념 행사 참가
(파리 UNESCO 본부)

2003



9.18 제3대 교장 취임식

- 2.19 제12회 졸업식
- 3.7 제15회 입학식
- 5.20 ~ 24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분교장 회의 (파리)
- 7.15 ~ 8.8 제12회 하기특별강좌
- 10.13 제3회 신사문화축제 참가
- 11.27 ~ 28 제13회 졸업작품 발표회
'Code or pleasure'
- 12.12 생트 가트린느 축제 'Famous couple' (코엑스 밀레니엄)



7.11 2학년 (주)아이디룩 레니본과 워크숍 발표회

2004

- 2.18 제13회 졸업식
- 3.4 제16회 입학식
- 5.27 ~ 6.5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분교장 회의 (파리)
- 7.12 ~ 8.6 제13회 하기특별강좌
- 9.15 개교 15주년 기념 화보집 《de Paris à Seoul –
une histoire de 15ans》 발간
- 11.11 2학년 (주)미우라인 가파치와 워크숍 발표회



6.16 3학년 란제리 전공 (주)좋은사람들 제임스딘, 보디가드와 워크숍 발표회



9.15 ~ 18 개교 15주년 기념 전시회
'Le temps de ESMOD' 개최



7.8 2학년 (주)보끄레머천다이징 온앤온, 올리브데올리브, 더블유닷과 워크숍 발표회

2005

- 2.25 제14회 졸업식
- 3.4 제17회 입학식
- 6.18 ~ 24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분교장 회의 (베이루트)
- 7.9 2학년 판매 워크숍
'Trend Factory' (압구정동)
- 7.11 ~ 8.5 제14회 하기특별강좌



1.25 3학년 여성복 로레알코리아(유) 랑콤 주최
'랑콤 컬러 디자인 어워드' 참여 (하얏트 호텔)



2.16 ~ 17 제14회
졸업작품 발표회 'Human...istic'



2.15 ~ 16 제15회 졸업작품 발표회
'The Show'



1.31 3학년 여성복 로레알코리아(유) 랑콤 주최
'랑콤 컬러 디자인 어워드' 참여 (파크하얏트 호텔)



1.16 제4대 교장 취임식



7.1 2학년 판매 워크숍
'Maison d'ESMOD' (청담동)

2006

2.24 제15회 졸업식

3.3 제18회 입학식

5.11 '랑콤 컬러 디자인 어워드'
국제 결선소 (파리 보자르 국립학교)

7.10 ~ 8.4 제15회 하기특별강좌

9.1 학생 휴게실 L'ESPACE 개관

12.8 제16회 졸업작품 발표회 패션쇼

6.13 3학년 란제리 전공
(주신영와코르 비너스와 워크숍 발표회)



7.30 ~ 8.6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분교장 회의 (상파울루)



10.18 2학년 YKK한국(주)과 워크숍 발표회
'Supplies ATTACK'



9.18 ~ 22 한불수교 120주년 기념 'Au-delà du vêtement (의상을 넘어서)' 전시회



11.24 제16회 졸업작품 발표회 살롱 전시회
'SHOP in SHOP'

2007

2.22 제16회 졸업식

3.2 제19회 입학식

7.16 ~ 8.10 제16회 하기특별강좌



6.27 ~ 7.6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분교장 회의(파리)



10.26 2학년 YKK한국(주)과 워크숍 발표회
'Smart & Supplies'



5.30 3학년 란제리 전공 (주)남영비비안과 워크숍 발표회



7.7 ~ 8 2학년 (주)쌔지
쌔지마켓과 판매 워크숍
'이일장' (인사동 쌔지길)



11.29 제17회 졸업작품 발표회 'Talk Talk'



12.13 제17회 졸업작품 발표회 패션쇼

2008



6.18 3학년 아동복 전공 (주)오콘
뽀로로 디노 캐릭터 워크숍 발표회



7.4 2학년 판매 워크숍 'BizBazar' (홍대 앞 상상마당)



11.3 ~ 9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분교장 회의 (도쿄)



11.27 제18회 졸업작품 발표회 'Art Fact Story'

- 2.27 제17회 졸업식
- 3.7 제20회 입학식
- 7.14 ~ 8.1 제17회 하기특별강좌
- 9.1 2학년 선택 교양과목 개설
- 11.3 ~ 9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분교장 회의 (도쿄)
- 11.8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산학협동 심포지엄 참가 및
에스모드 서울 사례 발표 (도쿄 이케가미 혼동지)
- 11.27 3학년 란제리 전공
프랑스 상탈 토마스와 워크숍 발표회
- 12.11 제18회 졸업작품 발표회 패션쇼



11.27 서울 패션 센터 주관,
에스모드 서울 후원으로
상탈 토마스 란제리
세미나 개최 (SETEC)



9.1 2학년 선택 교양과목 개설

9.19 2학년 YKK한국(주)과
워크숍 발표회 'Plus'



2009

- 2.25 제18회 졸업식
- 3.6 제21회 입학식
- 7.11 2학년 YKK한국(주)과 워크숍 발표회 및
판매 워크숍 'POP-UP STORE'
- 7.13 ~ 31 제18회 하기특별강좌
- 9.18 개교 20주년 기념식 및
《에스모드 서울 20년사》 발간

편집 후기

20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의 희망을 보다

《에스모드 서울 20년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었던 것은 책꽂이에 모셔만 두는 교사^檣가 아니라 잡지처럼 많은 사람들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엮는 것이었다. 그러나 원고를 모으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에스모드 서울의 발자취가 결코 한번 읽다가 덮어 두어도 그만인 가벼운 주제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에스모드 서울의 역사는 설립자 한 개인의 꿈에서 출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대적인 소명과 맞닿아 있었다. 에스모드 서울은 ‘기업에 필요한 선진화된 패션 전문 인재의 육성’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맞서야 했다. 국내 패션 교육의 짧은 역사가 그 하나요, 학력 지상주의로 단단히 무장된 사회 풍토가 그 둘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에스모드 서울 20년사》는 실로 한국 패션 교육의 개척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패션 교육의 새 길을 열어 온 에스모드 서울의 선도자적 역할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했다. 때문에 소소하지만 중요한 발자취들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가 들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 교수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에스모드 교육에 동참한 패션계 인사들의 생생한 인터뷰와 기고문을 화보와 일러스트레이션, 카툰 등 다양한 형식으로 담으려 애썼다. 그 중에서도 에스모드 교육의 결실이자 증인이라 할 수 있는, 도전과 열정으로 뭉친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이야기는 《에스모드 서울 20년사》의 백미이자 다가올 100년의 희망이 아닐 수 없다.

20년사를 펴내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수많은 생생한 이야기들을 털어 내는 일이었다. 20년사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소중한 자료들은 다른 기회를 통해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에스모드 서울을 움직이는 모든 교직원들의 이야기를 다 담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쉽다. 교수진을 비롯하여 학무실, 홍보실, 관리실, 자료실, 경비실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이 에스모드 서울의 오늘을 이룬 것이요, 내일을 일구어 갈 것이다.

끝으로 우리와 함께 작업을 해 온 시인 반칠환 선생님과 패션 학교다운 편집 디자인을 맡아 준 플린트에 감사드립니다.

2009년 7월

《에스모드 서울 20년사》 편찬 위원장 손 영 순



에스모드 서울 20년사 1989-2009

편찬위원회

편찬위원장	손영순
편집위원	장혜림 서호성
집필위원	손영순 고은경 조혜나

2009년 9월 18일 발간

발행처	에스모드 서울
발행인	박윤정
편집디자인	플린트 www.flint.co.kr
인쇄·제본	프린테크21